한국전력공사 공인협의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호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2-152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8월 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3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새싹포교 무관심

지난해 청소년 대화의광장에서 전국 1천6백4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 청소년 종교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9.6%가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어린이 · 청소년이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교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했다. 동 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관심 갖는 종교는 개신교(56.9%), 불교(21.7%), 천주교(1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법회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구회(회장 지원)에서 서울지역의 어린이법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회가 진행 중인 사찰은 85곳이며, 각 법회 참여 수는 20여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법회 현황도 서울 · 경기 146, 인천 20, 강원 48, 대전 · 충남 74, 광주 · 전남 38, 부산 · 경남 138, 대구 · 경북 134, 제주 16곳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전체 2천여 사찰 중 1/3 정도.

어릴때 불교적 환경 커서도 불자의 삶

깊은 지도교사들은 침체 원인으로 우선 종단의 무관심을 꼽는다. 종단의 실질적인 후원과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법회 활성화를 위해선 어린이 전담부서를 설치, 장기적인 포교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에 쏟는 불교계의 관심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6월 조계종 포교원이 일선 지도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교사 육성과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1.7%가 경력 1년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불장'(佛種)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프로그램과 전문성이 결여된 지도교사들로는 어림없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어릴때의 불교적 경험은 대단히 소중하다. 어릴때는 가소성이 대단히 커서 이때 형성된 불교적 신행은 영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교육학자의 이같은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자비의 대중화' 본격화

조계종 NGO해외봉사원 지속적 파견
진각종 국제협력단 가입 구호사업 전개

불교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 불교시민사회활동 육성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또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 봉사단원 해외파견, 한국국제협력단에 가입하는 등 불교계의 시민 ·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불교의 대사회적인 이미지의 제고와 '자비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성조)는 7월 26일 불교 시민 · 사회단체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서를 경봉련 불교환경교육원 등 42개 단체에 발송하고, 조사결과를 종단 사회활동 관련 종책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사회부는 이와 함께 불교사회의제 개발을 위한 팀을 구성, △불교사회운동의 근본사상 정립 △다양한 사회활동 분야 개척 △불교사회활동의 전형 창출에 들어갔다.

조계종은 또 NGO활동 강화를 위해 혜성스님(비구니, 동국대 대학원 재학)을 해외자원봉사단원으로 선발해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해외봉사단원 선발 및 파견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나 불교계가 참여하기는 처음이다.

조계종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NGO대회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부장 성조스님은 "앞으로도 종단은 NGO 봉사요원 파견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대표이사 성초)도 7월 16일 한국국제협력단의 NGO에 가입, 보다 활발한 국제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빈곤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민간원조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등록 단체는 협력단으로부터 사업비와 봉사요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진각복지회는 금년내로 스리랑카와 네팔에 현지지회를 설립, 지속적인 국제구호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북한주민 및 재증평포, 탈북자 돕기사업도 펼친다.

정성운 · 한명우 기자 (swjung@buddhapia.com)



산사 음악회 7월24일 충북 진천 보탑사(주지 지광) 3층 목탑 앞뜰에서는 신사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밀게 씻어준 청량한 선율들이 별빛과 반딧불을 타고 울려 퍼졌다. 중요무형문화재 동희스님의 범패 '팔부금강소리'와 니르바나실내악단의 '유모레스크', 정율스님의 불교 가곡 음성공양 등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진 이번 음악회에서는 1천여 관중들이 참석, 고운 선율에 온갖 번뇌를 실어 보냈다.

영축총림 해제 결의

통도사 말사 3곳 직영사찰로
석남사 종립특별선원 지정

조계종 141회 임시 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7월 26일 오전 불교회관1층에서 141회 임시종회를 개최하고 영축총림 해제, 통도사 3개 말사 직영사찰 지정 승인, 석남사 종립특별선원 지정 등을 결의했다. 통도사가 총림에서 해제됨으로써 주지 임명권을 총무원에서 행사하고, 방장 중심에서 주지 중심의 종무행정이 이뤄진다.(관련기사 2 · 3면)

■통도사 영축총림 해제 결의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고산 총무원장은 영축총림 해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종회결의에 따라 통도사 분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영축총림 해제를 요청했다.

원택스님은 또 "통도사에 취하고 있는 승적박탈 거부, 행자교육 입방 거부, 비구계 수지 거부 등의 행정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종단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은 통도사가 종림이기 때문이며, 현재대로 방치하면 분종으로 간다"며 영축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혜창스님은 표결에 기권했다.

■문수사 등 직영사찰 지정

원택스님은 직영사찰 지정 승인 제안설명을 통해 "종단분규를 조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룡사 해남사는 분규의 원인으로, 문수사는 분규와 재정의 종단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직영사찰법을 적용해 직영사찰 지정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종회는 총무원의 제안대로 3개 사찰의 직영사찰 지정을 승인했다. 월우스님 등은 통과에 동의하면서 한시적 직영사찰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면에 계속)

정성운 기자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 불서 · 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 ·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나온 불서 한권씩을 다니는 절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참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 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737-8881 총괄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 혜암종정 '사면 복권' 재가

총무원 "승단 화합-종단 위상 회복 조치"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7월 30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요청한 사면 · 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 복권은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98년 12월까지 징계집행중인 68명(멸빈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사면 9명, 복권 2명, 사면 · 복권 5명 등 모두 16명에 대해 시행했다.

조계종총무원은 이번 사면 · 복권과 관련 "자비문중의 일불제자로서 승단의 화합을 이루고, 작년 종단사태로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공원 입장료 폐지 촉구

조계종 "입장권 당일중복사용 반대"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7월 29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국립공원내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사찰경내지내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 설치금지를 결의했다.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의 이같은 결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염대우)이 공원입장권을 '당해공원 발매당일 1회 사용'에서 '당해공원 발매당일 사용'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은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입장권 사용 개선에 대하여 총무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8일 공단을 방문한 재무부장 일철스님과 호법부장 종고스님에게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공원입장권 '사용 개선 방침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성운 기자

사 령

의원면직 한명우
편집국 취재부 기자
1999년 7월 30일자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여름휴가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성보도난 백서 발간 11면
부다피아 캠프현장 14면



신국판, 240쪽, 값7,000원

21세기, 미래불교의 지평을 여는 불교계 초유의 종합잡지

법륜공(法輪功)은 부불사교(附佛邪教)인가

1억의 수련자를 가지고 있다는 파룬궁(法輪功)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파룬궁은 과연 불교에 부속된 사교인가?



석학의 대담 리영희 VS 정방조

미래사회와 불교

불확실한 미래, 한국불교의 적극적 역할이 세시대와 세역사를 이끌어 간다





프랑스에 부는 불교바람

프랑스 시사주간지가 특집보도한 프랑스 불교의 현주소

수백개의 선불교센타와 불교명상센터, 그리고 승광사 파리분원 길상사. 프랑스 국민중 불교신자가 60만명, 성인의 15%가 불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불교의 현대성과 그 가치에 비추되는 프랑스인들 / 참선의 중심지 페리고리 / 철학과 불교는 함께 가는 단짝

송산 스님

군사정권하의 미얀마 불교
티베트, 두 사람의 판첸라마
돌아오지 못하는 「직지심체요절」

특집안내

본지는 다음과 같은 편집계획을 진행중입니다.
열린편집을 위하여 독자여러분의 제언과 투고를 기다립니다.
1. 여성불교 2.환경과 불교 3. 재가불교
4. 대은(大隱)스님연구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이나 식자스님의 연락을 바랍니다)

창간특집

미래의 과학은 불교의 동반자인가 적인가



주문형 인간시대, 인간복제는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적 연기사상의 구현이가, 반연기적 재앙인가?

불교의 관점에서 본 인간복재/인간복제의 문제와 불교의 입장/인간복제를 향한 광란의 질주/인간복제의 윤리적 부당성/인간복제와 자연의 본성/대자연의 법칙에 거스르지 않는 삶의 방식

무엇이 태국불교를 괴롭히는가

돈의 소용돌이 속에 농락당하는 태국의 스님들

태국 불교계의 스캔들에 대한 충격적인 리포트 — 산티카로 스님

시사칼럼 종교에 홀린 미치광이 집단 윤청광
8 · 15 기념논단 일제하 불교계의 광복운동 김광식
세계문화유산속의 불교유적 네팔의 스와얌부나트 김종면

주제가 있는 명상 마음 영어로해두는 부처님말씀 법구경

화보 고구려금동여래좌상/분단이후 최초 신계사참배/간다라 부처님/네팔불교/군사정권하의 미얀마불교/광고에 등장하는 스님들/파괴된 티벳트 사원
시 눈부신 사람(이청화) 외
단편소설 꿈(김삼초)/회한(김소하)
희곡 한국최초의 불교희곡 "무란분"(김홍우)
영화 한국최초의 불교영화 "마음의 고향"(문학산)
연극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아노마"(목호찬)
동화의 세계 은하철도의 밤(조명령)
만화 맨질스님(청수일)/부처님의 유교(고시로다케시)

역사의식 재고를 위한 공개설문

귀의삼보하옵고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불교는 창조적인 21세기를 열어 가지 위해서 지난 20세기 1백년을 돌아볼 필요를 느낍니다. 이에 스님과 재가신도 및 학계인사 100인에게 지난 한 세기 동안에 한국불교가 겪은 영광된 일 두가지와 부끄러웠던 일 두가지를 설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인 잡지를 지향하는 「불교저널」은 독자를 비롯한 모든 불교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을 공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세기 100년동안 한국불교가 겪은 영광된 일 두가지와 간략한 이유
2. 20세기 100년동안 한국불교가 겪은 부끄러운 일 두가지와 간략한 이유
3. 기간 99년 8월 30일까지
4. 보내실 곳 월간 불교저널사
우편번호 100-380 서울 중구 묵정동 23-1 신현빌딩
전화 (02)2265-2421~2 팩스 (02)2265-2420

※ 고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설문 관련기사가 실린 잡지를 무송하여 드립니다.

불교저널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교저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려는 이에게는 각성을 촉구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상호간에 적대감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인류사에서 편견이 인류를 불행하게 한 사례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저널」은 단호히 편견을 거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포교의 길을 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동기와 결과가 좋다해도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좋지 않으면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이 따르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불교저널」은 이 점에 유의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포교의 길에 나서는 제자들에게 "물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일이 고독한 일임을 깨우쳐선 것입니다. 「불교저널」은 고독한 이 일을 스스로 짐지고 나섰습니다. 교계와 일반의 동참으로 고독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창간사 중에서)

사 설

'통도사 문제'의 해법

조계종 중앙종회가 통도사에 설치된 영축총림을 해제하고 문수사 등 3개 말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키로 결의한 것은 종단분규 여진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말해 준다. 조계종 사태가 마무리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조계종이 여전히 대참회를 통한 대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종회의 이번 결의는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정화개혁회의의 본거지 격인 통도사만큼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 동안 통도사는 종단의 인사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특정인사가 무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무리를 빚어왔다. 종단으로서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러나 조계종이 취한 이 같은 조치를 바라보는 사부대중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다. 불자들은 종회가 취한 태도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수긍하면서도 과연 총림해제와 직영사찰 지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큰 우려는 통도사가 삼보사찰로 꼽히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사찰인데다가 이곳의 방장이 전 종정인 월하스님이기 때문에 총림해제 자체가 불교위상에 큰 손실이 될 것이란 점이다. 또 이를 계기로 집행부와 통도사가 맞설 경우 또다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다. 조계종 집행부도 이 점을 걱정해 그 동안 통도사 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강경수단 동원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전말이야 어찌됐든 이제 관심은 통도사측이 종단방침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가장 현명한 해법은 통도사측이 고산스님 집행부가 강조하는 '무차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종단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단이 최후의 압박수단인 통도사 총림해제를 결의하자 월하스님은 정화개혁회의측 인사를 중심으로 일전불사의 태도를 보인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한술 더 떠서 지난해 조계사에서 벌어졌던 목불인견의 싸움을 천년고찰 통도사에서 재연하겠다는 암시를 담은 문건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상황이 반드시 나쁜 쪽으로 발전할 리는 없겠지만 만분지 일이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경우 불자들은 다시 한번 불조면도분(佛祖面塗糞)의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통도사나 조계종 집행부에 대해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매우 상식적인 말이지만 출가하던 때의 초발심(初發心)을 상기해 달라는 것이다.

일체의 세속적 아집과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라면 자존심을 버리고 언제나 하심(下心)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존경받을 수 있다. 출가자의 진정한 권위는 아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아량과 겸손에서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의 한결같은 희망은 이 문제가 화합적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도사에 다시 영축총림이 복원돼서 이 나라 불교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불교는 더이상 세속의 중생에게 할말이 없게 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목소리를 조금 낮추면…

조계종 종회 또 파행운영

탄우스님 제명 놓고 계파간 힘겨루기
신도교육법등 중요사안 논의조차 못해

7월 26일 개회한 조계종 141회 임시종회가 회기 첫날부터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못한채 30일 자동 폐회됐다.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종회의 회의시간은 3시간50분에 불과했다.

파행운영의 원인은 종회의 원인 탄우스님 제명을 둘러싼 종회내 그룹간의 의견차이 등의 때문이었다. 12대 종회의원들의 종책모임인 일여회(회장 세영)와 청림회(회장 성관)는 26일 "지난 종단사태와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종회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종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종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탄우스님의 제명을 발의했다. 투표결과 반대 28, 찬성 37표로 종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재적 2/3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일여회와 청림회는 다른 그룹인 육화회가 반대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여회와 청림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탄우스님의 종회의원직 사퇴 △총무원의 공정한 인사정책 실시 △동국학원 이사 후보 재선정 등을 요구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회의가 열리지 못한 27~29일 회의장에 나온 20여명의 종회의원들을 향해 "내일 10시에 속개하겠다. 유회를 선언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30일에는 141회 임시종회가 자동폐회됐음을 선언했다.

종회 내 그룹간의 세겨루기로 종회가 자동폐회되자 일부에서는 "11대 종회처럼 '유회 행진'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종회부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날짜별로 심의할 안건을 정하는 등 새로운 종회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장단과 사무처의 노력이 있었던 터라 후유증도 예상된다.


◇7월26일 회기 첫날부터 파행운영에 들어간 조계종 종회.

141회 종회가 파행운영됨에 따라 집행부 업무추진이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포교원이 제출한 신도·포교 관련 종법 제·개정이 어렵게 돼 신도 교육 및 조직화, 각종 포교종책 수립이 늦어지게 됐다. 군당국의 김태복 장군에 대한 종교편향행위 시정 촉구결의,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대정부 촉구결의도 불발로 그쳤다. 20여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인준도 미뤄지게 됐다. 차기 종회(9월에 임시종회가 열릴지는 미정)로 미뤄질 경우엔 선학원 이사회에서도 인준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로의 이전 및 재원마련을 위한 토지처분 논의도 이뤄지지 못해 총무원과 중앙승가대학인 동문 간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중신회장 선거 2파전

백창기-김한곤씨 각축예상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24일 신도회장 후보자 추천서 교부가 끝남에 따라 후보는 백창기(67,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와 김한곤(65, 前충남도지사)씨 2명으로 압축됐다.


◇백창기씨


◇김한곤씨

대의원들의 후보추천서를 받고 있는 백창기씨는 최근 '중앙신도회 대의원 님들께'라는 제하의 글에서 "더이상 중앙신도회가 몇몇 개인의 야심에 이용된다거나 종단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파행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부처님을 처음 만나던 날의 순수하고 환희에 찼던 첫마음을 되찾고 지키는 일에 마지막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백씨는 전북대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 서울 한양여고 교사를 역임했으며, 이후 건설업에 종사해 왔다. 30년전 경남 하동 쌍계사를 신행도량으로 삼아 불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신행만을 펼쳐왔다. 현재 수운회관 맞은 편 신화빌딩 2층에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활동중이다.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곤(前중앙신도회장 직무대행)씨는 7월22일 열린 수덕사 신도회 임원수련회에 참석, 중앙신도회장 출마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도 김씨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김한곤씨는 농림수산부 차관, 충남도 지사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며, 지난 9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앙신도회 회장직무대행을 맡았다. 올 2학기부터 천안대 초빙교수로서 강단에 설 예정이다.

한편 또다른 후보로 거론되던 손현수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회장은 '총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후보 등록을 포기해 지난 3월13일 대의원총회에 이어 이번 중신회장 선거는 백창기 김한곤 두 후보의 2파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행자교육원 입교지원 282명 접수

통도사 행자 20여명 포함

남행자 159명, 여행자 123명이 7월23일자로 마감된 제17기 행자교육원 입교지원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해 말 조계종 분규사태로 입교가 거부되었던 통도사 행자들도 제17기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27일 중앙종회가 통도사 행정제재 해제를 결의하고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통도사 행자들의 행자교육원 입교 허가를 결의함에 따라 교육원은 오는 8월17일 교육원회의를 거쳐 통도사 행자 20여명을 행자교육원에 입교시킬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승가학원 이사 8명 선임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고산)은 7월2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47차 이사회를 열고 성타(불국사 주지), 서주(소림사 주지), 명훈(금정사 주지)스님과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을 이사에 유임시키고 광복(도선사 주지), 성본(동국대교수), 원종(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스님과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을 새 이사에 선임했다.

김재경 기자

'전사법 개정안' 의원발의 협의

여·야 불자회 회장단

새정치국민회의연동회(회장 박상규의원) 자민련불자회(회장 박철언의원) 한나라당불자회(회장 함종한의원) 등 3개당 불자회 회장단은 6일 오전 7시30분 63빌딩 백미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강원교직자회 창립

초대회장에 지오스님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조계종 전국 16개 강원 교직자 20명은 7월30일 해인사에서 그간 비상설로 열리던 전국강원(승가대학)교직자회를 정식으로 창립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강원교직자회를 교육원에 정식 등록키로 하고 새 회칙도 제정했다. 또 초대회장에 해인사 강주 지오, 부회장에 송광사 강주 지운, 청암사 강주 지형스님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1면 '종회'서 이어짐

사면복권안 동의

■석남사 종립특별선원 지정

석남사의 요청에 따라 총무원에서 종회에 동의 요청을 했다. 지명, 세영, 정념 스님 등이 "봉암사 선원이 유일한 종립선원인데, 환경문제를 이유로 '종립'을 지정하면 다른 사찰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이 해결되면 종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원로의원 10명 추천

▲천운(광주 향림사) ▲청화(광주 정광사) ▲이두(청주 관음사) ▲혜정(법주사) ▲지관(경국사) ▲활안(송광사 천자암) ▲원명(대구 관음사) ▲고봉(해인사) ▲덕명(안적사) ▲대정(범어사)

■탄우스님 제명 부결

현응스님 등 36명의 종회의원 발의로 상정된 탄우스님 제명의 건은 표결 결과 제명 찬성 37표, 반대 28표로 부결됐다. 종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종회 재적의원 1/3의 발의와 2/3(현재 재적의원이 78명이므로 5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면복권 동의

총무원 호법부가 제출한 사면복권 5명, 사면 9명, 복권 2명의 동의 요청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호법부는 63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의 징계자 중 멀빈자를 제외한 68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실질심사를 해 최종 대상자 1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면 복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재적본사)

정광(조계사), 도홍(〃), 원정(〃), 보관(〃), 창인(백양사), 정암(수덕사), 수일(해인사), 종연(백양사), 승일(마곡사), 명선(조계사), 동파(백양사), 태진(신흥사), 연곡(봉선사), 법우(관음사), 성진(은해사), 종엽(화엄사)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이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중앙승가대학교는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여 자기화, 생활화, 대중화, 사회화, 민족화, 인류화 하기 위해 지난 79년 종단 유일의 승려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교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종단의 관심과 후원도 있었지만, 승가의 화합정신과 애교심에 불타는 9백여 동문스님과 재학생·교수 등 학교 관계자들의 원력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불교의 실태를 살펴보면 화합보다는 분열이, 포교보다는 자기화된 설법과 개인주의가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승가공동체의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에 있는 것이다.

올해로 중앙승가대학교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보현사, 영화사, 현 안암동 개운사로 옮겨 다니며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열악한 환경과 재정난 속에서 견디어 왔다. 그럼에도 종단이 혼란과 분열 속에 있을 때마다 본교는 종단의 안정을 위해 중심부에 서 있었다. 한때 극소수의 스님들이 본교의 세력을 등에 업고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종단을 위해 본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학사 이전을 미루고 견제하고 있는 종단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고산 총무원장(본교 이사장)스님은 김포학사 이전을 언론에 공포하여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라.

지금 본교가 추진하는 김포학사 이전은 교육불사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안암동 학사는 좁은 기숙사와 철문으로 학인들은 갇힌 공간 속에서 생활해 왔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수행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청정 수행풍토가 조성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은 동문스님들과 재학생 스님들의 부푼 가슴속에 21세기 한국불교 교육과 포교의 날개가 될 김포학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6월 30일 김포학사가 완공되었다.

한국불교 최대의 교육불사라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지금 고산 총무원장(본교 이사장)은 김포학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화된 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본교를 와해시키려는 갖가지 소문 또한 나돌고 있다.

고산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다. 그러나 본교의 동문·재학생 스님들은 총무원장 보다는 이사장 스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며 스님의 성의 있는 담변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을 보좌하는 몇몇 스님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의, 심의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대중적이고 승가적 모습으로 본교의 김포학사 이전을 다루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종단 현실이 어렵더라도 역대 어느 총무원장 스님이 하지 못한 교육불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길 바란다.

2. 김포학사 이전불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배격한다. 또한 김포학사 이전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지 않을 때에는 이 모든 책임은 총무원에 있으며 동문 재학생 모두 힘을 합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본교가 지금껏 숫한 도량을 찾아 다녔지만, 어느 본사 어느 스님이 종단 교육을 위해 선뜻 부지를 기증하겠다고 한적이 있는가.

김포학사로 반드시 본교가 이전해야 하며 그 외의 어떠한 논의도 배격할 것이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학사 이전이 이뤄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는 전적으로 총무원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한편 공공연히 흘러나오는 "김포학사 활용방안"이라는 터무니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스님들께 엄중 경고한다.

그리고 스님의 특정 신분과 친소를 이용하여 이전불사를 방해하는 불순한 언행을 일삼는 스님들이 있다면 9백여 동문과 재학생 스님들은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단호히 배격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3.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는 승가대 이전 마무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집단이기주의, 문중파벌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 현 종단의 상황이다. 그러나 조계종 최고의 의결기구인 중앙종회는 개인과 문중의 이익을 떠나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승가교육을 단순한 산업원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백년을 내다보는 원대하고 장기적인 불사로 인식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승가대 이전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4. 총무원은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사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라.

앞으로 미래불교는 다변화, 전문화, 정보화된 체계적인 불교로 다가올 것이기에 구체적인 실천과 방향제시가 필요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에 종단 교육 또한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화, 특성화를 방편으로 중생교화에 용맹정진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김포학사 이전은 필수적이다.

학인들 또한 학인의 본분사인 수행과 교육을 위해 오로지 승가공동체의 모범적인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본 중앙승가대학교는 개인의 것도 아니요, 문중의 것도 아닌 조계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모이는 교육도량이다.

지금까지의 요구는 집단이기주의도 아니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청년승가의 수행풍토 조성과 정체된 교육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탈피하여 부처님의 정신을 체득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총무원장 스님은 깊이 인식하여 승가교육의 모범적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43년 7월 일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 총동문회 운영협의회

"방치하면 분종"…초강수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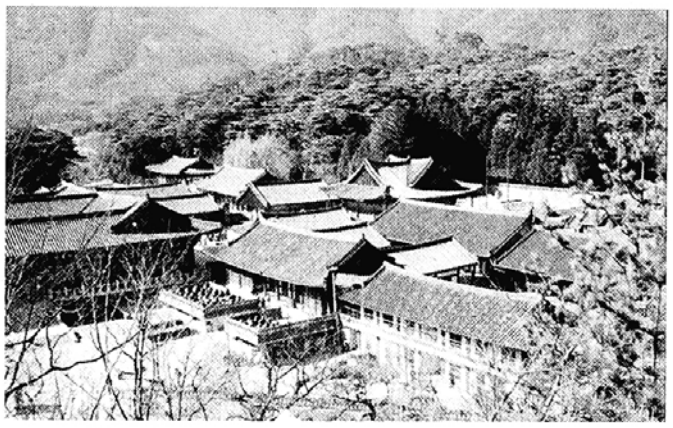
영축총림 해제 배경과 전망

문수사등에 정화회의 인사 발령 '계기'

통도사 "우리식으로"…갈등 새불씨 될듯

조계종 5대 총림의 하나인 통도사 영축총림(叢林) 해제와 문수사 관룡사 해남사 등 통도사 3개 말사의 직영사찰 지정에는 총무원의 태도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고산총무원장은 지난 3월 열렸던 139회 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총림 해제를 보류해달라고 종회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번 종회에서는 "종회의 결의에 따라 통도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통도사가 7월초 문수사 등 3개 사찰의 주지를 정화회의 관련 인사로 발령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것이며, 더 이상 통도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으며, 정화회의의 근거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총무원의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에다 대다수 종회의원들의 "현재대로 방치하면 분종으로 간다"는 인식이 총무원의 태도 변화와 겹쳐지며, 통도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림 해제·직영사찰 지정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26일 통도사 영축총림의 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사진은 통도사 전경.

총림을 해제하고 문수사 등의 직영사찰 지정 이후 총무원의 이에 따른 조치가 주목된다.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도사의 태도 변화, 즉 총림 해제에 따른 월하스님의 영향력 감소, 월하스님에 대한 반대그룹 형성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도사 일부에서는 주지 월파스님의 해임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재가불자 단체인 부산불교실천운동본부(본부장 안정운)가 29일 성명을 통해 "통도사가 수행의 장으로 돌아가 불보종찰의 본래 위상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도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이번에 직영사찰로 지정된 3개 사찰은 영축총림 부방장이었던 청하스님 문도가 관리하던 사찰로, 지난 해 조계종 사태 와중에 월하스님이 청하스님을 부방장에서 해임하고, 3개 사찰의 주지도 교체하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직영사찰로 지정되면 총무원이 주지 직무를 대리하는 관리인을 파견해 해당 사찰을 직접 운영한다.

총무원과 종회의 조치에 대해 통도사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이다. 월하스님은 "해제한다고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맘대로 하면 되는가"라며 "나름대로 방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된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또 27일 회의를 열고 월파스님을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부주지 진철스님이 통도사의 모든 실권을 갖고 종무를 관장토록 했다.

정화회의는 29일 성명을 내고 "향후 통도사를 종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화불사의 총본산으로 삼겠다"며 총무원의 조치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도사와 정화회의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총무원의 총림 해제·직영사찰 지정 조치가 자칫 조계종 사태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해제결의 종회표정

"해제결의 마음 무겁다"

대부분의 조계종 종회의원들은 "현재대로 방치하면 분종으로 간다"며 총림 해제에 찬성을 표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통도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통도사 교구 종회의원인 영배스님은 "종단사태의 여파로 총림을 해제한다면 종단의 부끄러움이다. 한 번 더 보류해달라"고 말했다. 혜창스님은 "총림을 해제하더라도 해제 의도를 성취할 수 있겠느냐?"며 표결에 기권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내가 총림 해제를 결의하는 목탁을 치는 마음이 무겁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총림이란 총림은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을 갖춘 종합 수행도량으로,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에서 지정한다.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스님이 주지를 임명하는 등 총림의 지도 감독권을 갖는다.

통도사 영축총림은 해인사 해인총림(1967년, 초대방장 성철), 송광사 조계총림(1969년, 초대방장 구산)에 이어 72년 총림으로 지정됐으며, 그 뒤 수덕사와 백양사가 각각 덕숭총림(1984년 초대방장 혜암)과 고불총림으로 지정됐다. 고불총림은 1947년 만암스님에 의해 개설됐으나, 한국전쟁으로 사찰이 소실되며 맥이 끊어졌다. 96년 서옹스님에 의해 총림으로 지정됐다. 영축총림 해제에 따라 조계종의 총림은 4개로 줄어들었다.

■사찰재정 투명화 향방

원론엔 찬성 실천 불투명

최근 조계사의 불사금 31억원을 포함한 2백억원이상 횡령혐의 고소사건, 불국사 재무스님 13억 횡령 잠적사건이 발생하면서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기위한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많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재가연대의 서명운동을 통한 사찰재정 투명화운동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반불자들도 교단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종단분규가 반복되는 것은 사찰재정 운영이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서명운동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의 반발도 만만치않게 나오고 있다. 7월 26일 열린 조계종 임시종회 회의장에서 40여명의 종회의원이 서명했으나 장윤 향적 스님 등 일부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재무부장 일철스님이 서명한 용지를 빼앗아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재가연대는 긴급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서명용지 반환을 공식요청해 놓고 있다. 이처럼 사찰재정공개를 두고 보이는 시각차이는 극단이라 할 수 있다.

사찰운영위법 강제규정 삽입 필요

사찰재정 투명화와 공개운용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재가연대는 94년 제정한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도층을 중심으로 스님들의 대부분은 공감대가 희박하고 일반사찰의 불자들도 사찰운영에 대해 관심이 낮은 실정이다 보니 실제 사찰공개운영이 되고 있는 사찰은 불과 열 곳 남짓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종법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예산회계법에 재정관리지침을 강화하고 본말사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 사찰운영위원회법에도 보고의무를 이행치 않는 사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 힘없는 신도회가 사찰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정과 개혁의 불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찰재정을 공개운영해야 한다는 해법은 이미 제시되었다. 공개운영의 모범사례가 특별나지 않고 한국불교의 일반적인 일로 자리매김 할 때 21세기 한국불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운동의 의의는 크다는 여론이다.

재가연대 정웅정사무처장은 "사찰재정 투명화와 공개운영은 그동안 '잿밥에만 눈이 멀어있다'는 세간의 지적과 비판을 불식시키고 삼보정재를 투명하게 사부대중이 운영하여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은 방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권에 연연하는 종단내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목어

죄대로 법대로

신창원씨는 의적인가. 길거리의 젊은이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한다. 외국언론이 그를 로빈 훗에 비유한 것도 그런 경향을 부추긴 듯하다. 그렇지만 의적으로서의 그의 구체적 행적은 거의 없다. 그는 주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절도를 했고, 그 중 1%도 안되는 돈을 사회자선단체에 기부했을 뿐이다.

그는 일개 범죄자고 탈옥수이다. 그런데도 그를 영웅시하는 세태에서 위태롭고 불길한 징조를 감지한다. 그 배면에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 단면이 있다. 날마다 불거지는 고위층의 부정과 비리는 이제 뉴스보기가 겁날 정도가 되었다. 서민들은 이 풍속도에 절망하여 세상이 뒤집히기를 은밀히 꿈꾼다. 기존의 제도와 체제가 완강하고 개혁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때 그 열망은 더욱 커진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마이크를 갖다대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부자들을 터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말에 멍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민주자본주의의 원리와 토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축적 과정은 물론이고 운용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뿌리깊다. 고급옷사건과 군면제, 경기은행로비에서 보듯 돈만 있으면 안될 일이 없다. 거꾸로 돈이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 신창원씨는 자신의 범죄와 탈주가 개인적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법 집행에서의 불공정성을 고발하면서 사회의 동의와 공감을 얻었다.

만일 구조적 문제라면 누구나 신창원씨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연기법의 진실이다. 무책임한 미화나 비난을 그만두고, 사회적 관행과 제도라는 인연의 그물을 손보아야 한다. 최소한 재판과 행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고, 인권이 존중되도록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혹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얼마 후에 또 다른 신창원씨가 되어 사회를 원망하며 범죄와 탈주를 거듭할 것이다.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본지 논설위원)

김포학사 완공은 했는데…

시공업체 공사대금 완납요구 시위

조계종 "계약외 비용 부담 불가"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공사를 완료한 (주)풍림산업 전흥규 부사장을 비롯한 직원 50여명이 7월 26~28일 3일간 조계종 제141회 임시중앙종회가 열린 서울 조계사 해탈문 앞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는등 김포학사 문제가 가시화 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풍림산업측은 승가대 김포학사 공사금이 최초 계약 당시 274억원 보다 85억원이 늘어나 3백59억원이 들어갔다면서, 조계종이 명확한 대안과 미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불방법을 밝히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 종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측은 현재 김포학사에 대한 현장 실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사결과를 토대로 공사대금을 최종 산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조계종측은 97년 8월 당시 계약상 금액인 274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풍림산업측은 물가상승률과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포함해 359억원이 총공사비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184억여원이나 소요될 총무원 청사 신축 등 조계종의 예산이 쥐어짜도 모자랄 판에 종단이 김포학사 공사대금을 순조롭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다.

이와관련 중앙종회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대책특위(위원장 종하)가 지난 7월15일 김포학사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종단 전체가 나서 토지 매각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의했지만 이번 종회가 유회되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부지 5만여평에 들어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전경.

해 김포학사 공사금 지급 문제는 당분간 오리무중에 빠질 전망이다.

조계종과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풍림산업측에 '계약대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중앙승가대학 학생회와 동문회에 김포학사로의 이전을 약속했지만 공사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자금난에 처한 풍림산업이 소송 등 강경수를 둘 경우 문제는 더욱 꼬일 공산이 크다.

극단적으로 총무원 신축공사 비용과 함께 종단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한 인수불능 사태마저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김포학사 이전 후의 학교 운영자금 조달방안, 중앙승가대 신입생의 계속되는 미달사태 등 산적한 문제도 안고 있어 이전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개연성도 있다. 김포학사 이전을 약속한 조계종 입장에서는 한동안 논의되어 온 동국대 병설론과 김포학사 일반인 수용론을 다시 대안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포학사 이전불사가 총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승가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저희 주식회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신 많은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대동소방입니다.
그 동안 저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시고,
심적으로 위안을 주신 불자님께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에 힘을 얻은
대동소방 임직원일동은 "일체유심조"의 사훈과
불심으로 화합하여 '97년 12월 IMF이후
거듭되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조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소방업계에서는 드물게 신기술개발과 수출에
주력하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대동소방은 불자님들과의 1년전 약속을
지키기위해 투자하신 금액에 년이율 20%를
더하여 상환하고자하오니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요.**
저희 대동소방이 거둔 열매를 불교발전과
불법홍포의 밑거름으로 회향할 것을 불자님께
다짐드립니다.

1999년 7월
대표이사 이남제외 임직원일동 올림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TEL:(02)2215-0723/FAX:(02)2246-8503

입 금 자 명 단

김정복	이종민	이철은	김진순	이효순	이희정	박동원	강성춘	이동희	강연미
최가순	함지순	이재선	조영식	영전시합	배필수	이기합	수능엄사	홍원사	한경규
고명옥	황혜지	김주형카1	장창례	김정순	최계숙	김정봉	천만지	윤정희	부산금성사
이순자	이건일	성기훈	이원웅	성합선	김양수	윤명옥	정경순	양기열	박사명
박현동	이종옥	조선옥	김향란	이종관	황선지	진남곤	김정옥	서영석	무아
배경희	임원숙	이인길	전성미	박영숙	이동순	권재술	신성업	임순규	이재영
원태권	임경분	신규갑	황인형	서운석	지점사	이분아	김병호	이복희	김진섭
박승운	김윤분	이경자	최용원	보룬사	허정옥	서윤석	이재홍	이분자	선객
배영숙	손순호	황창영	홍성민	김정호	김위수	전이순	오필구	이만승	창대기연
김경자	허선자	성정	허경	영명사	김강홍	서승희	박경희	이영미	반야선원
김인규	이경숙	장문지	청룡사정	정인섭	김수경	김성관	장재열	정승분	박정숙
김영환	최영희	이효숙	최성숙	정일여	김강웅	이석정	정진행	최재석	정석기자
이송원	이순자	허종범	해인사약수	정수환	감동원	최경락	성종	김성애	임영숙
전상섭	선학원	이동훈	김태윤	권희선	울산정통	영광도서	김주훈	지환터	박병곤
신희섭	박임순	천경남	이현숙	이군자	역곡포교우	임옥희	김명순	조은경	이재영
백영보	정태호	김상순	김금홍	이완규	진주천진	김명곤	문옥남	신봉희	이인한
정덕근	김미숙	장경심	박분두	이재숙	김봉희	오광수	신두현	김용남	화엄사
김귀순	김민판	신현종	안종순	허덕남	곽종국	정은희	지현자	송종화	김영순
박현동	김보리학	홍인희	최임지	지현스님	김동식	김주덕	이종태	신성욱	임우태
용화선원	이진우	홍인희	박영원	허주	진관스님	강순덕	이명숙	우주상	심유희
고순진	이승욱	이종현	문대식	조인걸	이경자	이봉순	이재순	김성욱	정해수
약사사	김삼범	강종혁	정원측스님	박연조	신정숙	김미명	구영자	박찬현	장종구
봉덕사	이순임	오혜주	윤봉님	조명숙	이천도	방미혜	지원희	서경자	장병윤
정동기	강용길	한경호	도재권	노희오	김창수	윤정연	박주형	동명스님	김종구
이수아	윤정자	맥암용회사	김신	이희이	김형진	오혜숙	보천사	김윤성	황정복
채정필	성보유리	윤인숙	이성윤	정계명	김광훈	박순자	지월스님	이승철	김명환
민인숙	조규동	서은희	구영미	김유화	임화순	이점심	방님순	이경근	정기주
봉현주	임학섭	김덕화	권정조행	박건석	이두진	장영찬	김은주	주간불교	김주석
김수연	전승철	장태영	덕인스님	채봉수	임명덕	장정해	맹길재	이순자	맨&위크
조은경	김숙자	정현애	남규용	강용운	김종연	나숙희	이현호	관음사혜선	주형민
박미혜	인임스님	정학수	박상필	이영숙	이진구	이재욱	이경애	국청사	윤수언
염명호	성륜스님	김수자	최인영	조차원보사	노건성	천성봉	유명숙	손혜순	김성현
최순자	혜국스님	김점숙	이태우	한영지	정인순	구자원	장순희	김광란	윤희문
김공임	서태은	연명순	청파은	박득채	인윤기	구본일	신동준	황운성	성해스님
민경원	우선자	정혜진	심복사	이원힐	문유미	구영미	지은혜	유병숙	현호스님
김순희	김옥희	명법사	김김자	이점순	김은희	이재욱	조호웅	도법문주	최수석
강인지	강명주	김분님	박희철전	김영주	하변식	안락행	조명숙	김순복	이경순
오세진	권기선	권영하	여영주	양재석	김민옥	이점숙	김미경	지신스님	정순화
김두경	박영수	권영순	정기영	이정희	한마음선원	황봉환	손경자	석동현	김춘언
배종옥	장정태	박김윤	박순자	김효성	이기남	허상수	관음사	노재성혜남	김점자
김길순	영월스님	조연숙	이기자	엄정자	내원사스님	윤명희	김지숙	양승옥	김의택
정동숙	조정현	이해경	관선스님	최성연	김정예	황윤길	최정숙	김수연	윤성모
김환숙	오양자	이태권	이정우	태인사	이덕기	민후임	윤혜애	신흥사	일북선
김성희	수풍	조은정	김정숙	지안스님	일욱빈	권영옹	흥륜사	박정만	
도충희	장영민	김옥순	역곡포교우	청호스님	백삼현	성엽스님	임순규	배종수	



초강력 미니소화기불자비

- 화학반응식 순간강력 소화기로 어린이나 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음.
- 분말 소화기처럼 흔들어 주거나 교체 할 필요기 없음.
- 에어졸 타입이므로 소화액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사용 가능.
- 석유, 가스, 휘발유, 고무 등의 위험한 불에 강하고 전기가 흐르는 중에도 사용 가능함.
- 디자인이 선뜻하여 차량이나 가정에 설치해도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구입 문의
080-215-0723

주식회사 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 사/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TEL (02)2215-0723 FAX (02)2246-8503
경주지사/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TEL (0561)772-0729 FAX (0561)772-3923
파주공장/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5리 406-1
TEL (0348)952-9652 FAX (0348)953-9653



◇어려운 이웃돕기로 국민훈장과 장관표창을 받은 덕수스님(앞줄 맨 오른쪽)과 각현스님(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포상식후 기념촬영했다.

덕수스님 국민훈장 석류장 받아

각현스님 복지장관표창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

16년동안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헌신해 온 덕수스님(부산 삼광사 주지)과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이 정부로부터 국민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영훈)가 7월 28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한 '99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덕수스님은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았으며, 각현스님은 장관표창을 받았다.

지난 83년부터 남몰래 가난한 이웃을 도와온 덕수스님은 지난 97년 5월 주지 부임이후 일주일에 한차례 재활원 고아원 양로원 나환자촌을 돌며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또 IMF외환위기로 실의에 빠진 실직자와 결식아동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무료예식장을 운영, 영세민 100쌍의 결혼식을 올려주고 91년부터 매월 한차례 노인경로잔치도 열고 있다.

각현스님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봉사와 무료점심공양, 노인재택서비스를 계속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지자체 무분별한 개발 저지"

'사찰환경수호 범불교대책위' 공동대표 여연스님



"한국적인 문화의 원천을 보이고 있는 곳이 사찰입니다. 그런만큼 사찰환경수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월 28일 결성식을 가진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대책위 공동대표 여연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최근 사찰수행환경이 지자체들의 개발계획에 의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종단적인 조직이 결성된 만큼 국회 법개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21세기에는 문화의 화합과 화해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기에 환경문제 해결은 문화의 원천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점을 깨달아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까지 사찰환경과 관련 주변훼손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찰내 불사들도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에 사찰환경보전국을 설립, 사찰환경 조사및 연구, 불교와 환경에 관한 국내외교류, 지원이 신속히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교차로

길상사 석가모니불 봉안



법정 서울 길상사 회주 스님은 11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석가모니불 봉안식을 거행한다. (02)3672-5945

모범 재소자 초청 위로



현성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장(중앙승가대 총장)은 7월26일 안양교도소 모범재소자 42명을 중앙승가대학교로 초청해 교사와 개운사를 소개하고 점심공양과 다과, 책 〈알기쉬운 불교〉를 보시했다.

무의탁 어르신 위안 행사



도영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금산사 주지)은 7월29일 복지관에서 대전 거주 노숙·무의탁노인들의 재활의지를 다지기 위한 '노숙·무의탁 어르신 위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북한동포돕기 주제 강연



법타 은해사 주지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8월2일 대구 경산시민회관에서 주최하는 북한동포돕기와 평화통일을 위한 제3차 전국순례법회에서 "북한동포돕기와 평화통일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백령도 해병부대 위문



석구 천태종 성륜사 주지는 7월 25, 26일 양일간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 제2여단 군법당 및 백령도 포병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로하고 위문품과 불사 후원금을 전달했다.

망운암 수계산림 대법회



성각 경남 남해 망운암 주지는 7월 30일 망운암 금강계단에서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했다.

선원사 학생회 수련대회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2일부터 4일까지 강원 양양 보리수마을 큰 법당에서 학생회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도덕성 회복 순회강연



종실 대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스님은 22일 청소년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도덕성 회복 순회강연'에서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 및 실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건강과 환경호르몬' 특강

강국희 성균관대학교 생명자원과학교수는 11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리는 대한불교진흥원 주최 제100회 다보문화강좌에서 '현대인의 건강과 환경호르몬'을 주제로 강연한다.

러 국립예술大서 석사학위



이정은 중앙합창단 반주자는 7월23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국립문화예술대학에서 'F·쇼팽의 스케르쪼에 대한 분석과 연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용타스님 조계사 열린강좌 강연 요약

"모든 것 마음에 달렸어요"



통사섭법회 지도법사로 유명한 용타스님(미국 삼보사 주지)이 7월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된 열린강연회에서 '내 안의 거울 닦기'란 주제로 강연했다. 3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강연회에서 용타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주제를 통해 삶의 성찰에 대한 지혜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강의 내용 요약. 〈편집자 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공부다. 느낌을 가진 인간은 모두 마음공부인(人)이다. 스님이 미워서 수련하기 싫다고 하는 한 보살이 있었다. 이유를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님이 자신의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됐음을 깨달았다. 이 보살은 매사 정확하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것이 많은 시아버지를 평소 두려워했던 것이다. 원인을 알고나니 보살은 수련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는 악마가 법을 전하더라도 악마이기 때문에 법을 듣지 않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법을 듣는 자세다. 진리를 찾는다면 법사가 누구든 상관없다. 진리는 항상 설해지고 있는 것이니 배우겠다는 의지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마음공부는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것이다.

마음공부 외에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루를 반드시 반성하라는 것이다. 숭산스님의 한 제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백여개의 항목을 체크하면서 하루 점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다채롭고 수시로 변하는 국면을 접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귀감삼아 점검표를 만들어보라. 점검표의 기준은 5계와 8정도, 6바라밀이 좋다. 불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회향하는 삶도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설파하셨다. 이것이 곧 회향이다. 회향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내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뒤에 하는 회향은 회향이 아니다. 얼마나 베풀고 사느냐는 얼마나 값진 삶을 사느냐와 같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탑골공원 결식노인과 실직자들을 위해 무료급식봉사에 나선 개그맨 김형곤씨와 조계사 청년회원들.

개그맨 김형곤 탑골공원 급식봉사

데뷔 20년 기념…조계사 청년회 동참

"여러분이 20년 동안 저에게 쏟아주신 사랑을 설렁탕 한 그릇으로 다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개그맨 김형곤씨가 데뷔 20년을 맞아 팬들의 사랑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7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계사청년회 보현부(부장 전준호)와 함께 탑골공원 건너편 새마을회관 경로식당에서 결식 노인과 실직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조계사청년회가 매월 4, 5째주 일요일 탑골공원에서 벌여오고 있는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해 직접 배식에 나선 김형곤씨는 이번 무료급식에 시가 3천5백원 상당의 냉동설렁탕 곽 1천개를 보시했다. 김형곤씨는 '공포의 쌍삼겹살'로 잘 알려진 외식업체 (주)이바네다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조계사청년회장을 역임한 이바네다 지정수 사장의 소개로 조계사청년회와 인연을 맺고 함께 무료급식에 나섰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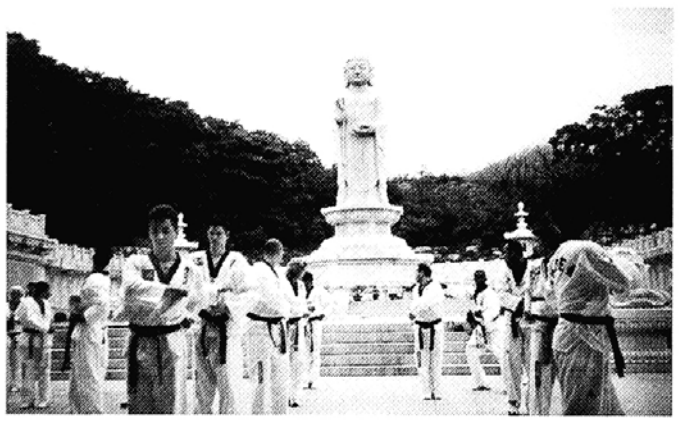
Focus

美 태권도 유단자들 사찰서 수련

"얍!" 기합소리와 함께 태권도 품세가 허공을 가른다.

7월27일 팔공산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대불 앞. 미국태권도협회 시카고분회(분회장 권덕근) 소속 23명의 유단자들이 방한해 동화사와 불국사에서 사찰수련 및 체험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좌선 시간을 갖고 태권도 품세의 원형을 간직한 석굴암 금강역사상을 둘러보는 등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정신적 뿌리를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7월23일 입국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고 7월30일 출국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재가연대 '중앙신도회 활동방향' 포럼

회장선출·운영 자율성 가져야



"중앙신도회는 조계종의 종지를 따르고 신행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운영과 사업, 회장 선출에 있어서까지 종단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정응정 사무처장〈사진〉은 7월26일 재가연대 7월 정기포럼에서 '중앙신도회의 올바른 활동방향 정립을 위하여'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 중앙신도회의 운영과 사업이 실패한 것은 창립과정과 회장선출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처장은 "중앙신도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신도회장 등 지도자들의 민주적 리더십 부족과 민주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신도조직의 풍토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총무원이 중앙신도회에 자율적 권한을 줄 때 신심과 원력이 있는 민주적인 인사가 신도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민주적 운영의 원칙 등을 중앙신도회의 운영 원칙으로 전제하고, 신도연합단체의 참여확대와 자율적인 중앙신도회장 선출, 재정운영비 확대, 신도교무금의 활용, 전국신도회와의 자연스런 통합 등을 제안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강원 학인이 의제를 반대하는 이유

옛 스님들 말씀에 "있는 법 없애지 말고, 새 법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원은 '승풍진작을 위하여 승가교육의 강화와 함께 위계와 위의가 엄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의제개혁은 너무 위계만을 강조하여 정작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교육원의 의제 시행령에 관해 계단위원회에서는 '옷은 생각만 있으면 어느 때고 바꾸어 입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복장의 차별화는 원래 취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오히려 출가인의 본분에 맞게 살도록 어떻게 수행력을 갖추어줄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제만 시행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종단의 발전과 승풍진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과 시대적 상황이 조화된 교육과 수행입니다.

그러나 교육원의 의제시행령은 승가의 위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헛되이 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있었던 '강원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학인대표들을 불러놓고 정작 학인들에게는 의견수렴을 위한 발언권을 주지 않고, 주최측에서 정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과연 대중의 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처님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정작 의제를 착용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위협적이며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과연 화합을 제일로 치는 승가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에 저희 학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단의 대소사에서부터 개인의 수행정진력에까지 수많은 번뇌와 고통을 안고 있으며, 출가의 본질적 이상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중수행처소와 전통적 수행방법에 대치되는 정책으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의 공의를 무시한 채 멋멋 관계자들에 의한 검증되지 아니한 정책으로 전체 학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원의 의제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의지에서 차별화된 의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출가정신에 위배되며, 전통 승단체제인 총림체제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단의 첫째덕목으로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이 차별화된 의제는 화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며, 총림은 선원·율원·강원의 수평적인 각원체제로 구성되어 왔는데 의제를 실시한다면, 율원(비구)-선원(비구,사미)-강원(사미)의 수직적 체제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여타 파급이 우려됩니다.

둘째, 전통강원의 위상 약화와 기반이 흔들립니다.

교육원 시행령대로 의제가 실시된다면 총림내에서 차별화된 의제에 의한 위화감으로 강원보다는 기초선원이나 동국대와 승가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속가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동대나 승가대로 편입학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강원학인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강사진의 위상이 약화될 것입니다.

세째, 비구(니)의 교학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본 교육기관을 마치고 구족계를 수지한 후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비구(니)는 강원이나 동국대, 승가대등의 진학이 어려울 것입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가 사미의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하지 않는다면 도반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화합을 저해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승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한국 불교 교학의 질적인 퇴보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째, 학인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과 대외 활동에서 신도들로부터 수행자로서의 신심과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총림과 본사급의 사찰에서는 거의가 사미인 학인들이 의식을 집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원 시행령에 의하여 의제가 강제로 시행될 경우, 학인들이 의식을 집전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일부 문제를 야기하는 승려가 있다고 하여, 학인들이 승가의 위의를 실추시킨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인데 다수의 학인들을 구속 내지는 통제한다는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전통강원의 특성상 통제된 공간에서의 생활로 실제 짧은 기간(방학기간 약 2개월 전후) 이외에는 4년동안 강원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학인들이 승가의 위의를 실추하고 다닌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여섯째, 승가의 위계를 세우기 위하여 의제개혁을 한다는데, 왜 비구(니)와 사미(니)의 의제만을 구분지으려 하는가?

의제의 시행은 승가를 세속적 권위주의(등급제, 계급제)에 물들게 하는 위험이 있으며, 꼭 필요하다면 왜 비구(니)와 사미(니) 간에만 의제의 구분이 필요한가. 우리승가에는 옛적부터 품계제도가 있는데 품계에 맞게 전체적으로 의제를 실시해야 교육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않겠는가. 그리고 승가의 의제를 개혁하고자함에 타종교 집단의 조직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일곱째, 강원학인들은 사미가사인 만의와 행전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무슨 구별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95년 개혁종단 출범이후 비구(니)와 사미(니)의 구분을 위하여 시행한 만의가사 착용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각 강원에서는 행전을 착용하므로 학인신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모양이 좋지 않으며 여러겹이 되어 습진 등의 각종 피부염의 부작용이 나타남에도 강제 실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 전통강원 학인 대중 일동은 의제실시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와 철회를 원합니다.

불기 2543년 7월 30일

동학사강원 범어사강원 법주사강원 백양사강원 봉녕사강원 불국사강원 삼 선강원 수덕사강원
송광사강원 쌍계사강원 운문사강원 직지사강원 청암사강원 통도사강원 해인사강원 화엄사강원 (가나다순)

전국 16개 전통강원 연합회 대중일동

우리 모임에선

불자가수회 하계수련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는 7월31일 경기도 마석 물고란유원지 수련원에서 임원진 및 정규 회원을 비롯 후원회원, 특별회원들과 함께 친목을 겸한 하계 수련회를 가졌다. (02)713-2905

무량회 염주·단주 증정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매달 생일을 맞은 회원과 회원 가족들에게 108 염주와 단주 증정운동을 벌인다. 또한 무량회는 오는 9월, 8주년 기념법회 때 창립이래 초청법사들의 법문을 풀어쓴 〈법문집 1〉을 보시하기 위해 녹음테이프 풀이작업에 들어갔다. (02)401-7584

하불동 생명농업 체험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시샵 정지문)는 13~15일 실상사에서 '생명농업 체험 하계 수련회'를 연다.

하이텔불동은 불법의 진리를 묻고 답하는 것 이외에 실상사 농장에서 노작활동을 직접 해 보면서 흙의 생명력과 우리의 먹거리를 살피고,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의 생명을 살리는 농촌현장을 체험토록 할 방침이다.

심우회 21사단 장병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25일 양구 21사단 신교대에서 불자 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2백50여 명의 장병들에게 합장주와 떡, 음료수 등을 보시했다. 또 같은 날 2사단 신교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로하고 보시품을 전달했다. (02)529-3861

"약사보살이 되자" 서원

한일병원 불자회 창립
의료진등 30여명 회원



◇한국전력의 12번째 불자회인 한일병원불자회가 7월23일 각계 직장직능 불교회의 축하 속에 창립법회를 가졌다.

전국 11곳의 지역 불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불자회에 또 하나의 불자회가 결성됐다. 한국전력 부속 한일병원 불자 의료진 및 행정사무직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한일병원 반야회가 창립된 것.

한일병원 반야회(회장 이영숙 · 검진관리팀 대리)는 7월23일 병원 강당에서 병원 불자회원과 환자를 비롯 본사 반야회, 경희의료원·국립경찰병원·중앙병원 불자회, 가수불자회, 세무사불자회, 감사원불자회 대표단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회장인사, 박병무 한일병원장과 정원용 본사반야회 명예회장(재무관리 처장)의 축사, 용주사 정락스님의 법어, 정근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반야회원들은 약사보살의 원력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신행을 다져 전법에 앞장설 것을 발원했다.

이영숙 회장은 "불자회 출범의 기쁨 못지 않게 62년의 역사를 가진 한일병원에 이제서야 불자회를 창립하게 돼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초발심의 자세로 법도에 어긋남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락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는 부처님의 안목으로 중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종교이다"고 설명하고 "각자의 마음에서 행복을 찾고, 자리이타의 삶을 사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불교의 례를 통해 불교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한일은행반야회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 강당에서 환자들과 함께하는 정기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력불자회는 오는 10월 직지사에서 5백여 명의 한전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2개 불자회 연합법회를 봉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2)901-3069 김민숙(성형외과)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원주 '운불' 창립 1돌 기념법회



원주 호출택시 운전불자들의 모임 원주운전기사불자연등회(회장 최준영)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원주운전기사불자연등회는 7월25일 원주불교회관에서 30여명의 회원과 가족을 비롯 원주불교회관 관장 일휴스님, 리선행 법사, 성불합창단 등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최준영 회장은 "육바라밀의 보시행을 바탕으로 한 전법사의 자세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부처님 말씀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법어를 한 리선행지도법사는 "경전에 의지해 공부하고 행으로써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거리의 포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원주운불련은 창립 이후 법회활동 외에도 원주일대 사찰에서 법딩수리, 길 닦기, 잡초뽑기 등의 자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불우노인 일일관광도 실시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성동구치소 재소자 35명 오계 받고 '제2인생' 출발

재소자 35명이 불제자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다.

성동구치소는 7월23일 법당에서 동작구불교연합회 회장 혜철스님과 종교위원 박희서 전수의 주관으로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체 80여 명의 불자재소자들 중 35명의 재소자가 5계를 수지했다. 혜철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율은 등불과 같으니 계를 근본으로 삼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며 "모범수가 돼 자유의 몸으로서 사회의 훌륭한 봉사자가 되고 제2건국의 유능한 역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맑고 향기' 재활원 방문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흥교스님)은 7월21일 천마재활원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천마재활원을 방문하는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오전에는 이불 빨래하기, 방 소독하기, 복도 청소 등을, 오후에는 원생들의 야외학습을 돕는 보호자가 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인다. 특히 야외학습 보호자 활동은 원생들의 사회적응, 사회성 계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당 대종사 일대기 '불법은…' 출판회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 일대기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 출판기념법회가 7월2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진각종 각해 총인, 성초 통리원장,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 손제석 위덕대 총장,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이인제 새정치국민회의 당고문, 신계륜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법륜스님 BBS 백일법문 회향

불교방송과 정토회는 7월23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법륜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을 비롯해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법륜스님은 "지금 우리 앞에 불어닥친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붕괴 등 현대문명의 위기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불자들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28사단 군법당 두리정사 개원

연천 28사단 268 포병대대 1포대 두리정사(군법사 유명선) 법당 개원 및 부처님 점안식이 7월 25일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법철 포병대대장을 비롯 장병 50여 명과 효진정사 주지 도명스님, 군불교진흥회 부회장 혜명법사, 진여원 이경숙 원장, 금강메아리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도명스님은 법어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로 군복무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우진 명예기자〉



조계사 불우시설에 '자비의 쌀' 전달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7월27일 대웅전 앞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화엄동산(여성실직자 무료급식소), 파랑새나눔터(결식아동 지원), 종로구청, 자양사회복지관 등에 전달된 쌀은 7월17일 조계사 신도들이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한 '자비의 쌀독'에 모은 것이다. 조계사는 앞으로도 계속해 '자비의 쌀 나누기' 운동을 펼친다.

탐방 한빛은행 불자회

IMF딛고 다시 밝힌 '자비의 등'



◇IMF의 위기로 해산될뻔 했던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불자모임이 한빛은행불자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진은 지난 3월 창립법회 장면.

前한일·상업은 불자 재회
소년가장·양로원등 후원

IMF의 어둡고 긴 터널을 불심으로 뭉쳐 이겨내고 재탄생된 불자모임이 있다. 舊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합병사 한빛은행불자회(회장 소병식 분당지점장)가 그것이다.

한빛은행불자회는 지난 3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을 증명법사로 한빛은행 불자들과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닻을 올렸다. 불자회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한빛은행 영업 2부 건물 5층에서 정기법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또 노원구청에서 추천받은 소년소녀가장 김두환(중 1)과 김혜원(초 6) 남매에게 매월 후원금 6만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비양로원과 소쩍새마을에 매월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자비실천행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단 불자회로서는 드물게 소식지 〈한빛법고〉를 제작, 배포해 불자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포교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불자회가 단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주효했다. 집행부는 법회일정에서부터 신행프로그램 개발, 재정관리 및 확보, 회원관리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겨 회원들에게 신뢰와 호응을 받고 있다.

현동관 총무부장은 "회원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는 불자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배가운동으로 법회 참석률을 높일 방침인 한빛은행불자회는 올해 안으로 '포켓용 독송집'을 발행,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소병식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불심 하나로 뭉쳐 창립된 불자회인만큼 화합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불법을 밝히는데 노력할 것이다"며 "직장의 발전과 함께 내외에 모범이 되는 불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성 명 서

제12대 중앙종회의원들의 종책 모임인 일여회와 청림회, 그리고 작금의 중앙종회 운영에 우려를 갖고 있는 다수종회의원들은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의 회기에 불참을 결의 한 바, 종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一. 중앙종회를 우롱하는 탄우스님은 즉각 중앙종회의원직을 사퇴하라.

一. 총무원은 종단의 주요 공직을 겸직케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주요 종무원에 임용하는 일을 즉각 시정하라.

一. 동국학원 이사 후보로 선정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후보를 사퇴하고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동국대학교를 중흥시킬 학덕과 원력을 갖춘 중진스님들을 후보로 택하되 문중, 본사, 출연 연고등을 고려하여 여법하게 이사후보를 선정하라.

一. 우리는 이상의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대중여론을 바탕으로 중앙종회에서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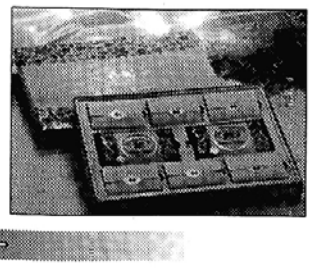
불기 2543(1999)년 7월

일여회, 청림회 중앙종회의원
및 위 뜻에 찬동하는 다수의 중앙종회의원 일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요.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동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수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탐착 않는다면 거리낄게 뭔가

이렇게 들었다 — 사찰재정 투명화

최근 조계사, 불국사 등의 삼보정재 유실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한번 사찰재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재가연대는 사찰재정 투명화와 사찰운영에 사부대중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삼보정재는 주지등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써도되는 재물이 아니다. 불교계 전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교육과 포교등 공익에 쓰여져야 한다. 투명한 재정관리로 더 이상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스님과 신도 모두 의식을 바꿔야 한다. 사찰재정투명화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경전의 말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너희들 비구는 계(戒)에 머무를 수 있게 되거든 마땅히 오근(五根)을 제어함으로써 방일(放逸)하여 오욕(五欲)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마치 소 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감시함으로써 소가 멋대로 날뛰어 남의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오근을 내버려둔다면, 비단 오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없이 번져 가서, 제어하려야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사나운 말을 고삐로 견제하지 않을 경우, 말 쪽에서 도리어 사람을 끌고 가 구멍에 빠뜨리는 것 같으니라." 〈유교경〉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 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항상 분소의(糞掃衣)를 걸치고 한 개뿐인 깨어진 발우를 지녀서, 나무 열매나 오이 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면, 그는 부처님네의 칭찬하는 바가 된다. 〈제법집요경〉

▨차라리 큰 불구덩이에 들어갈지언정 탐욕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대승계경〉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가 되어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몸을 따라 주지 않는다. 〈생경〉

▨분수넘은 탐욕보다 두려운 것 없고, 궁핍보다 더 큰 배고픔 없다. 가난을 탓하면서 베풀어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의 두려움은 금생에나 내생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 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뜨지 못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죽더라도 태어나는 곳은 서로 다르리라. 〈별역 잡아함경〉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숫타니파타〉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틈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따위의 보배를 깨진 기왓장처럼 보며, 비단옷을 헌 누더기 같이 보고, 삼천대천세계를 한 알의 겨자씨같이 본다. 열반을 아침저녁으로 깨어있는 것과 같이 보고, 평등을 참다운 경지로 보며, 교화 펴는 일은 사철 푸른 나무와 같이 본다. 〈사십이장경〉

▨수행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똑바른 줄과 같아야 한다고 했으며, 바른 마음은 곧 도량이다라고 하셨다. 이 몸에 탐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낄게 무엇인가. 〈선가귀감〉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해방시키라. 그리고 존재하라. 누구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욱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숫타니파타〉

열린마당

조계사 성역화 공청회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은 지난 2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한국건축역사학회와 한국박물관건축학회에 의뢰해 기초연구에 들어갔다. 7월 27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성역화 사업은 분규로 얼룩진 조계종의 이미지를 씻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청정한 승가상을 확립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의 발표문을 싣고,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에 대한 여론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의견수렴 못했다

발표 끝나자 청중 자리떠 토론 무산
"실무소위도 열지않고 공청회" 불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공청회가 7월2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그러나 예정했던 토론회가 청중 부족으로 무산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파행진행됐다.

조계종총무원 주최, 한국건축역사학회와 한국박물관건축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고산 총무원장의 법어와 종회의장 법등스님의 축사에 이어 '성역화 사업의 필요성(일철 총무원 재무부장)' '조계사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박언곤 홍익대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성역화 사업을 위한 기본전제와 총무원 청사 신축 기본계획 제안(서상우 국민대교수, 한국박물관건축학회 회장)' 발표로 진행됐다.

3인의 발표 후 자유토론을 벌여 사부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발표가 끝난 후 대부분의 청중들이 자리를 떠 토론회는 무산됐다. 공청회에는 고산 총무원장과 법등 종회의장, 월서 호계원장, 불교신문사장 영담스님, 총무원 부장스님들과 재가종무원, 조계사 주변의 불교단체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나 토론회를 시작할 즈음에는 재무부장 일철, 호법부장 종고, 기획국장 정도, 종회의원 운달스님과 재가종무원 및 재가단체 실무자 10여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재가단체의 한 실무자는 "청사 신축을 비롯한 조계사 성역화 계획이 지난 2월부터 진행됐는데, 실무소위원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이제 와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사 성역화를 위한 전체적인 구상의 일환으로 청사 신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계사의 한 신도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이라고 이름붙였지만, 조감도를 보면 조계사 신행공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청사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걸맞게 계획단계부터 원로의원들과 조계사,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조계사 신도, 재가신행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청회에서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성스러움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는 도량이라면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총본산이라는 징의는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며 "조계사 성역화 사업의 첫번째인 청사 건립을 위한 오늘의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의 고견이 단비처럼 내려 성역화의 씨앗이 풍성하게 결실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축사에서 "종단 입법부를 대표하여 원대한 불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서는 종도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7월27일 열린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산스님이 법어를 하는 모습.

조계사 성역화 공청회 발표문 요지

"청정승가상 확립사업"

일철 〈조계종 재무부장〉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는 총무원장 고산스님 취임 이래 '초발심 회복'으로 돌아가 청정한 승가상을 확립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올해 발표한 종단의 7대 기조사업의 하나인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조계사 경내 환경 개선과 가람 배치-상징적 신행 공간 △총무원 청사 신축 계획-종합적인 행정, 업무 지역 △불교중앙박물관을 비롯한 문예회관, 불교회관 건립 계획-문예, 역사 지역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사업은 조계종의 교세와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청사의 신축 계획과 조계사 환경 개선을 연구 범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계획인 불교중앙박물관을 비롯한 문예회관과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도 포함하게 된다.

박언곤·서상우 두 교수의 연구결과는 향후 실시설계에 반영될 기본계획자료로 활용된다. 보다 상세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대웅전 중심 공간배치"

박언곤 〈홍익대 교수〉

현재 조계사 경내에는 대웅전과 덕왕전, 종루, 탑, 총무원이 있다. 조계사 당우와 조형물의 배치를 상단, 중단, 하단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대웅전과 덕왕전, 탑과 종루를 상단으로 구성했다. 대웅전은 북쪽에 배치시키고 탑을 그 앞에 두었으며, 덕왕전은 아미타불을 모셨으므로 서방정토를 의미하는 서쪽에 배치시키고, 종루는 대웅전 앞 서쪽에 두었다. 중단에는 지상 1층, 지하 1층의 전각을 두는데, 지상층에는 천불전, 지하층에는 지장전을 두되, 남쪽을 향해 배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천왕문은 사찰 성역의 외호역할을 하므로 신중단인 하단에 배치한다. 총무원이나 승방, 강당, 객사는 불보살단의 외곽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고, 승방과 객사는 일주문과 천왕문 근처 덕왕전 뒷편에 두어 하단에 스님들의 공간을 형성하여 불보살의 공간을 둘러싸도록 계획하였다. 강당은 대웅전의 뒤쪽, 즉 북쪽에 두어 대웅전과 강당, 총무원이 일직선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대사회활동 중심처로"

서상우 〈국민대 교수〉

조계종 본부(청사)는 △교육 포교 행정 문화의 중심이자 한국불교의 총본산 △수행도량으로서의 상징성 △불교의 대 사회적 활동의 중심처 △국내 외인의 순례 및 관광명소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실천하는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종단의 직영사찰인 조계사는 누구나 쉽게 찾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따라서 조계사는 종단의 중심사찰답게 정비되어 성역화하는 내적 역할, 시민의 휴식처로서 제공되는 외적 역할의 수행이 요구된다. 또 인사동과 더불어 역사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도심의 오아시스가 되야 하며, 장기계획에 의한 불교복합문예공간은 불교 관련 역사와 문화예술을 보급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계획을 원활히 실천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위한 정책과 전담자가 필요하며, 사업비 마련과 신도들의 불사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목탁소리

힘받은 불교TV특위

김주일 〈취재2부 기자〉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은 7월 23일 조계종 중앙종회 btn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위위원장과 문화부장에게 종단의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의지를 얻어낸 셈이다. 4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8차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열어온 특위는 그동안 불교TV의 경영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에만 치중해 왔기에 불교TV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것이냐는 원성을 사왔다. 물론 중앙종회에 속해 있는 특위로서는 상법상 불교TV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30여명의 이사중 16명이 조계종 스님인 것과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불교TV를 강건너 불보듯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불자들의 목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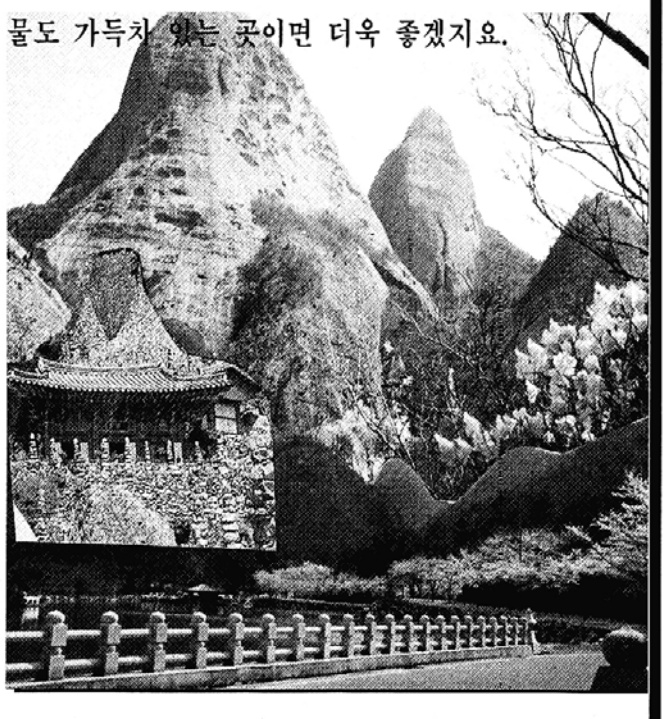
현재 불교TV의 경영 악화는 갈데까지 간 상태다. 지난 5월 허문도사장이 취임해 국민은행에서 성업공사로 넘어온 22억1천만원의 악성부채를 2009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성업공사측과 절충해 간신히 부도 위기는 넘겼지만 해결해야 될 부채는 산재해 있다.

우선 금호전기에 밀린 임대료 6억 1천만원을 8월말까지 갚지 않으면 당장 거리로 나앉아야할 위급한 상황이다. 또 매달 지급해야 하는 분배망 사용료 8천만원도 현재의 재정 수입으로선 지불하기 어렵다. 하나은행과 동원파이낸스에 지급해야할 악성부채 28억원도 이미 만기일을 넘긴 상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불교TV로선 앞으로 1~2개월이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 종단은 그동안 보여왔던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btn 특위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자 추천을 비롯 후원법회 활성화, 재정 수입사업 확대 등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허문도사장도 역시 취임할 때 밝힌 2개월이내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ji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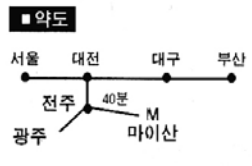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 탑영제 방생 —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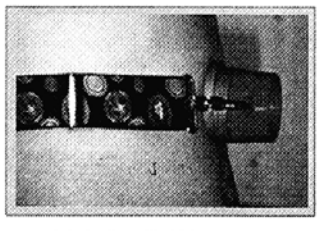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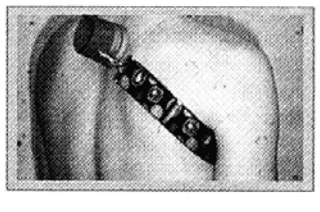
■약도


신개발품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김시연스님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불교연극 두편 무대에 선다

'아노마'로 더위 씻고 '철안붓다'로 가을맞이

불교를 소재로 한 연극이 준비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갑다. 침체된 불교 연극계, 하나 나오기도 가뭄에 콩나듯 하는 불교연극계에 두편의 불교 소재 연극이 준비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한 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할 '아노마'와 오는 9월 서울 연극제에 올려질 '철안 붓다'가 그것.

국립극단(단장 정상철)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마련해 온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연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98 창작희곡 공모 당선작인 '아노마'(송미숙작, 황동근연출)를 9~14일 국립극장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연극 '아노마'는 근세 선불교를 중흥시켰던 경허스님의 득도와 기행 과정을 말기 암 환자인 한 연극배우의 마지막 연기를 통해 조명한 작품이다. '아노마'는 싯달타 태자가 출가를 결심하고 성을 빠져나와 밤새껏 말을 달려 다다른 강(江)의 이름. 싯달타는 출가후 처음 만난 강의 이름이 '숭고하다'는 의미를 갖고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강을 건넌후 스스로 삭발함으로써 인간이 갖고있는 번뇌와 고통을 끊는 비장함을 보인다. 즉 '아노마'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첫 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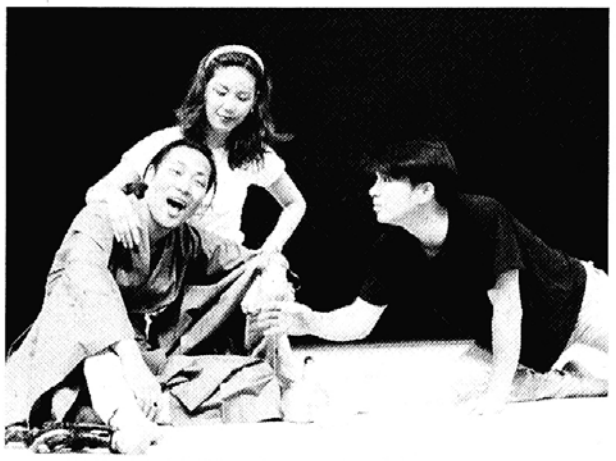
이 연극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한다. 연극인 부부 성환과 미우 그리고 정담스님. 남편의 암 선고에 괴로워 하는 미우가 정담스님을 찾아가 출가를 원하지만 스님은 고통을 피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한편 말기 암환자로 3개월의 시한부 삶을 남겨둔 성환은 경허스님역을 맡아 마지막 투혼을 불사른다. 결국 총연습날 성환은 경허스님을 이해하며 스님의 삶을 따라 '아노마'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성환의 부인 미우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안고 출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연극에서 줄음을 이기기 위해 턱에 송곳을 댄채 수행하는 모습과 오도 후 첫 법회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 법문 하는 장면 등 경허선사의 전설적인 모습은 관객들에게 흥미를 자아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햄릿' 등 고전 문학류의 무게있는 고전을 주로 발표하고 있는 극단 유시어터(대표 유인촌)는 10월8일부터 17일까지 전용극장에서 '철안 붓다'를 공연한다. 이 연극은 30대의 주목받는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조광화씨가 유시어터의 상임연출자로서 처음 내놓는 작품. 특히 연극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최근 인류사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인간 복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99 서울연극제에 출품하는 '철안 붓다'의 무대는 3000년상의 먼 미래. 석가모니의 생애중 사문유관을 통한 출가, 항마 성도, 석가족의 멸망을 미래 세계로 옮겨 재구성했다. 개체의 수명 연장과 종족의 세력 확장을 위해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내지만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은 결국 인류의 종말을 불러 오게 한다는 내용의 '철안 붓다'는 부처님이 설한 윤회의 법칙속에서만이 생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출가 조광화씨는 "티벳의 지혜로운 수행자들은 평소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고양시킨다"며 "인간의 편의를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고 복제인간을 만들 기술까지 지니게 됐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공생적 연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연출 의도를 털어놨다. 10월8일 공연을 앞둔 '철안붓다'는 현재 탤런트 유인촌씨를 비롯한 출연자 캐스팅을 마치고 24일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02)3444-065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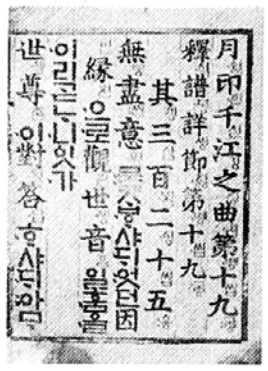
◇8월과 10월 잇달아 불교연극 두편이 무대에 올려져 연극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사진은 연극 '아노마'의 리허설 장면.

아노마 경허스님 득도·기행 조명 9~14일 국립극장 소극장

철안붓다 인간복제의 종말 연출 극단 유시어터 전용극장서

월인석보 제19권 초간본 발견

한글 변천사 연구자료 고령 가야대 소장



◇〈월인석보〉 초간본 제19권의 첫장. '월인천강지곡' 3백25번째 곡이 수록됐다.

1459년 세조가 간행한 우리나라 첫 국역대장경 〈월인석보〉 가운데 제19권 초간본이 최초로 발견, 불교·서지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박물관 개관을 준비 중인 경북 고령 가야대(총장 이경희)의 소장 자료 정리에 참여했던 남권희교수(경북대·문화재전문위원)에 의해 발견됐다.

〈월인석보〉 제19권은 가로 22.5㎝ 세로 32.8㎝ 총 125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중 제6장이 없고 몇장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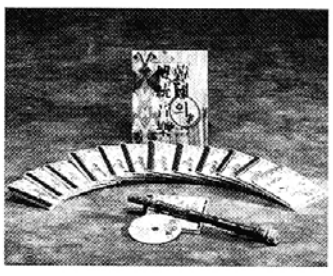
제19권을 현대어로 번역중인 가야대 서용규 교수(국어국문학)는 "제19권에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16수가 수록되어 있고 '가라사대'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어휘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글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월인석보〉는 1459년 세조가 돌아가신 부모와 요절한 덕종의 극락왕생을 빌기위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수정·합편해 만든 것으로 당시 한글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보상절'은 세종이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빌기위해 아들인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편찬케 한 부처님일대기로 여기에는 지장경 아미타경 법화경 약사경의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또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해 '한개의 달이 일천강에 비치듯 부처님의 법이 시방세계에 두루 미친다'는 의미를 담아 몸소 지은 일종의 찬불가사다.

현재까지 월인석보는 초·중간본 18권만이 발견됐으며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에따라 가야대는 문화재청에 보물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범패·민요·단가등 '전통음악' CD 출반

국악보급진흥회(회장 김호성)는 최근 범패 및 회심곡 등 불교음악과 민요, 단가 등 전통 국악을 수록한 CD 40장을 내놓았다. 안비취, 김소희 등 당대 명창과 국내 유수 국악인들의 공연 현장을 찾아가 명연주와 절창을 수록한 이번 음반은 크게 아악(6CD), 민속악(6CD), 성악(28CD)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아악은 합주·별주·독주, 민속악은 합주·독주·산조, 성악은 범패·정가·회심곡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악보급진흥회는 "올해 안에 찬불가를 비롯해 범패 교성곡 등 불교 음악을 전문으로 담은 음반도 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격은 35만원. (02)735-0309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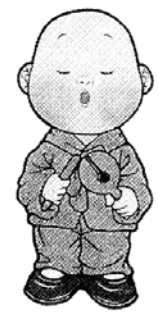
◇한승구씨의 '구도여행 99'.

한승구씨 '구도여행 99展'

부산 부일갤러리 40여점 전시

전통을 기본으로 현대 불교미술의 전수자를 표방해온 한승구씨가 8월2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부일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한씨의 이번 전시회는 네 번째 개인전으로 '구도여행'을 주제로 한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작가는 "인간이 위대하다는 사실은 여느 생명체 보다도 높은 정신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또한 그 때문에 고뇌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다"면서 구도행이 출가자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051)461-4558



◇선우동자



◇선심이

선우 불교캐릭터 5종 개발

불교용품 제작업체인 '선우'(대표 박영민)는 불교의 대중화와 청소년, 어린이 포교를 위해 불교 캐릭터 5종을 개발했다.

우리에게 친근한 토속적인 새싹불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선우동자'와 '선심이' 캐릭터는 목탁과 염주 그리고 연등을 든 동자승과 소녀를 표현한 것. '불교를 홍보하고 신심을 키울 수 있는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우동자는 새싹불자에게 친구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선심이는 익살스럽고 조금은 엉뚱한 모습으로 각각 표현됐다. 이 캐릭터는 8월 전후해 T-셔츠를 비롯한 풍선, 인형, 문구류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선우' 대표 박영민씨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스님의 따뜻한 불성을 표현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불교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불교의 현대적 이미지를 포괄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998-7930

오종욱 기자

문화 단신

문화재硏 30주년 기념사업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7일 특별기획전, 국제학술좌담회 등 30주년 기념사업을 발표했다.

'문화재연구 30년-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3일동안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특별기획전은 유적조사 연구, 미술공예연구, 예능민속연구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11월 17일부터 1주일동안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국제학술좌담회에는 일본·중국·러시아 학자들을 초청, '21세기와 문화재연구'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광주박물관 8월 임시휴관

국립광주박물관은 불교미술실 및 수장고 등이 들어 설 별관신축 마무리 공사로 이달말까지 한달동안 임시 휴관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각종 공사를 11월중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별관 신축 개관기념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 등을 선보이는 '불교미술품' 전과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함허스님 茶詩碑 정수사에 세운다

한국차문화협회(회장 이귀례)는 9월 18일 강화 정수사에 조선시대의 고승 함허득통 스님(1376~1433)의 차시비를 세운다.

함허득통 스님은 아름다운 차시(茶詩)를 많이 남긴 스님. 조선 초 어찰이었던 대자사를 떠나, 맑은 물이 솟은 곳에 정수사를 세우고 수행과 다도에 정성을 기울렸다. 이후 함허득통스님은 공덕산, 운악산 등 여러 산에서 수행한 뒤, 1433년 문경 봉암산에서 열반했다.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회장은 "오는 가을 정수사에 건립될 시비에 함허당 어록에서 발췌한 시를 새겨서 후학들의 거울로 삼겠다"고 말했다. (02)701-0475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인원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10명		
중국어과	2년	■주간1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통신20명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불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8월 13(금)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8월 13일까지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국립한학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석사·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의예과	5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양생강복학과	5년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약학과	4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제약학과	4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약리학과	5년	◇ 건강진단서 1통
침구학과	5년	◇ 보증서 1통
추나학과	3년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간호학과	2년	◇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0, 제약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주 소 : 中國 南京 韓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불교저널' 창간호 나왔다



새 불교 종합잡지 월간 〈불교저널〉이 선보였다.

8월호로 창간된 〈불교저널〉에는 특집으로 '미래의 과학은 불교의 동반자인가 적인가'를 제목으로 인간복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불교의 관점에서 본 인간복제(권기종·동국대 교수), 인간복제 문제와 불교의 입장(호진스님·동국대교수), 인간복제의 윤리적 부당성(이용훈·수원 가톨릭대 총장), 인간복제와 자연(생명)의 본성(이정배·감신대 교수), 대자연의 법칙에 거스르지 않는 삶의 방식(김원신·원광대 교수) 등 각 종교계의 관점을 수록하고 있다.

총 2백40쪽의 〈불교저널〉은 지구촌 불교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 창간호에도 '프랑스에 부는 불교바람', '무엇이 태국불교를 괴롭히는가', '티벳 두사람의 판첸라마'를 비롯 파괴된 티벳사원 등을 화보로 소개하고 있다. 또 21세기 인류가 처할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미래사회와 불교'란 주제의 리영희교수와 정병조교수 석학대담을, 8·15 기념논단으로 일제하의 불교계의 광복운동 등을 비중있게 싣고 있다.

이밖에도 1932년 〈불교〉지 7월호에 실린 〈회심(回心)〉을 현대문으로 개작한 단편소설 '꿈'을 비롯 희곡, 영화, 연극 등 불교문학 부문과 신간안내, 스승예찬 등 신행을 계도하는 기사 등을 골고루 싣고 있다. 〈값 7천원〉

인터뷰 '불교저널' 박경훈 편집인

"21세기 불교 이끄는 열린잡지"



"〈불교저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따라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려는 이에게는 각성을 촉구할 것이다."

불교신문, 조선일보, 법보신문 등에서 활동하면서 신문의 틀을 다지고 오랫동안 역경(譯經)을 해 온 박경훈 편집인은 〈불교저널〉 창간에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

박경훈씨는 "근대이후 불교계 잡지는 많았지만 종합잡지는 전무했다"며 "시야를 넓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열린 잡지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씨는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지구촌 불교소식을 지면에 대폭 할애할 방침이다.

詩僧의 문체로 푼 宗門第一書

불립문자(不立文字), 선은 문자나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러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선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교적에 못지 않다. 오히려 '문자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벽암록〉 〈종경록〉 〈경덕전등록〉 〈조당집〉 〈무문관〉 〈선문염송〉이 대표적인 선서이다.

신간 〈벽암록〉은 오현스님(백담사 무금선원 회주)이 원문을 번역하고 사족(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우선 〈벽암록〉이 어떤 책인지부터 살펴보자.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로 꼽히고 있다. 이 책의 저본은 설두중현(908~1052)이 선문의 1천7백가지 공안 가운데 100개의 선화를 가려뽑아 송(頌)을 붙인 〈송고백칙〉. 이 책은 원오극근(1063~1135)이 수시(受示)와 착어(着語) 평창(評唱)을 덧붙여 〈벽암록〉을 만들면서 부터 최고의 선서로 평가받게 됐다. 책명이 된 '벽암(碧巖)'은 원오선사가 머물던 영천원 방장실의 편액에서 따온 것이다. 이 책은 최초 간행 이후 수많은 선승들에게 애독되자 선의 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해종고(1089~1163)가 판본 자체를 불사르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이 분서(焚書)사건은 이 책을 더욱 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오현스님 역해 '벽암록'

원문 뜻 살리며
문학적 해설붙여
선사들의 화두
고스란히 전달



이 책이 비록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깨달음의 세계에 근접해 있음을 반증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벽암록〉이 '종문제일서' '선시의 백미'로 평가받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시인이자 수행자인 오현스님이 동문서답식의 선화를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사족이다. 최근 출판가엔 관련 서적이 출간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당시 선의 체취와 시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벽암록〉 원문을 두번씩이나 사경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속살까지 이야기하듯 풀어가는 오현스님 특유의 사족은 빼어나다. 가령 제19칙 '구지의 손가락 한개'는 한송이의 꽃속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한 시인의 시를, 제35칙 '앞에도 셋셋 뒤에도 셋셋'의 경우 루소의 〈참회록〉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등 각 칙마다 역대 고승들의 기상천외한 일화를 현대인의 생활과 가장 근접하게 이끌어 따뜻한 인간애마저 풍긴다. 또 각 칙마다 등장하는 선사들의 행장까지도 자세히 수록해 이해의 폭을 넓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 책은 저자 특유의 풍부한 문학적 사족을 통해 선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뿐 아니라 화두를 참구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에겐 이 책이 선을 모르는 이들이 문자에 몰입케 할지도 모르는, 부질없이 저지른 허물이라 여기는 모양이다. 그래서 서문에서 오현스님은 "나의 사족은 쓸데없는 '사족'에 불과하다. 원오의 수시와 설두가 간추린 본칙 그리고 송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며 "눈밝은 거북이 사냥꾼에게 내 목숨을 내놓은 바이다"라고 적고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이우상씨의 육아소설 '아빠, 해님집은 어디야'



"하은아, 하얗게 널려 있던 눈꽃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음~. 풀들이 배가 고파 먹어버렸나 봐"

96년 불교문학상 공모에서 장편소설이 당선됐던 작가 이우상씨가 육아소설 〈아빠, 해님 집은 어디야〉를 내놓았다. 딸 하은이가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순간 순간의 경이로운 상황을 포착한 글모음이다. 이 책은 평범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8살까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의 빛과 그늘 속을 오가며 겪은 사랑이야기를 담은 대화체 육아소설이다. '아이에게 배운 19가지 행복, 아이에게 배운 19가지 지혜' 등 38편의 일화 속에는 진솔한 삶의 행복과 지혜가 녹아 있다. 〈동쪽나라 刊, 값 6천원〉

동국대 역경원 '석가보' 등 3권 출간

동국대 역경원에서 〈석가보 外〉 〈불모대공작명왕경 外〉 〈어제연화심륜회문게송〉 등 3권의 한글대장경이 나왔다.

〈석가보〉는 5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전기이다. 먼저 석가족의 시조와 계보를 서술하고, 탄생에서 득도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죽림정사와 기원정사의 조성 연기, 탑과 불상의 조성 연기, 석가모니 열반과 다비이야기 등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불모대공작명왕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위성 제다 숲에 있을 때, 독사에 물린 길상비구를 위하여 아난에게 대공작명왕다라니를 설하여 길상비구를 구했다는 공작명왕 다라니의 공덕을 설한 내용이다. 〈어제연화심륜회문게송〉은 송나라 태종이 만년에 불교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지은 게송들을 모은 것. 심자정회문(心字正廻文)·침자정회문(侵字正廻文)·침자도회문(侵字倒廻文) 등 4자 4구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국역경원 刊, 값 각권 1만5천원〉

강원 사집교재 4권 완간

승가대학(강원) 사집과 교재가 통일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 교재편찬위원회는 지난해 〈도서〉와 〈절요〉를 펴낸데 이어 〈서장〉과 〈선요〉를 출간함으로써 사집과 기본교재 4권이 완간됐다. 사집과 교재 편찬 목적은 강원마다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형태와 토씨가 다른 점을 통일하기 위한 것. 교재의 특징은 기존 교재의 오(誤)·탈(脫)·이자(異字)등을 바로잡았으며, 각 교과마다 고본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이본 목록을 첨부했다. 또 각 교재마다 상세한 주를 달아 초학자부터 전공자에 이르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값 서장 2만2천원, 선요 1만2천원〉

새로나온 책



▲파문= 세상이 혼탁하면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부처님. 이 책은 지금이 미륵부처님이 나타날 시기로 판단하여 어지럽고 중심이 없는 현대인들을 정도의 길로 이끌어 주고자 쓴 책이다. 화두를 통한 깨침에 대하여, 인간의 고뇌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으로 문제점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김태준. 〈부다가야 刊, 값 9천5백원〉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다음 세기에 가장 주목받게될 것으로 알려진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포괄적이고 명료하게 이해시키는 책. 저자 문창옥은 화이트헤드철학 전반에 대한 철두철미한 이해에 기반하여 자신의 소화된 언어로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전모를 파헤친다.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화이트헤드철학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동나무 刊, 값 9천8백원〉



▲부처님께= 전국 불교학생회 포교지로 21년동안 매주 발행되고 있는 '법보'지에 발행인 정완석씨가 쓴 편지 모음집. 1983년 2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모두 200가지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포교하자'라는 포교에 대한 편지부터 저자가 청소년포교현장에서 느낀 단상들을 적고 있다. 부록으로 관음예문과 법보발행 약사가 수록됐다. 〈우리 刊,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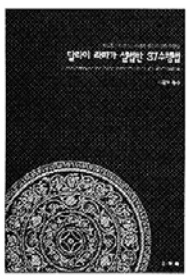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민황	정우사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정	동쪽나라
3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창작시대
4	예불문과 반야심경	무비	불일
5	거지성자	전재성	선재
6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여시아문
7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찬주	해들누리
8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9	안으로의 여행	송기원	문이당
10	스님은 황금을 메고…	김영만	다림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이창호 옮김

근기별 보살의 37수행법 제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살이 닦아야 할 마음가짐과 수행을 설명한 책.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37수행법〉은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1974년 보드가야에서 티베트 불교수행의 입문서 〈보살의 37수행법〉을 3일동안 설법한 내용이다. 첫날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낮은 근기의 수행, 둘째날은 중간 근기를 지닌 불자들에게 필요한 수행, 셋째날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남을 위한 삶을 사는 높은 단계의 수행을 설했다.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서이자 수행서이다. 〈정우사 刊, 값 6천원〉

화제의 책

이은윤의 화두이야기 이은윤 지음

새 시대 이끌 사상적 대안 찾기



새 시대를 이끌 사상적 대안은 무엇인가. 신간 〈이은윤의 화두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책. 현대인이 가장 고뇌하는 자아상실의 문제와 자아와 자아를 둘러싼 환경을 주된 테마로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지한 테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1부 인간의 본래 모습, 2부 자연의 섭리 등 28개 선문답으로 구성. 1부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란 어떤 것이며, 참된 진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2부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 평상심을 따라 살며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만 새로운 천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 刊, 값 8천원〉

화제의 책

천수경 천명일 지음

천수경의 깊은 뜻 알면 믿음 확고



"독송집에 있는 〈천수경〉만 외우면 되는 줄 알고 경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경문을 주의깊게 보는 순간 나의 어리석음에 깜짝 놀랐다."

부산불교대학에서 〈천수경〉 강의 부탁을 받고 신비로운 경임을 알게됐다는 천명일씨(부산 설원장)가 천수경문의 저변에 깔려 있는 불심을 설명한 〈천수경〉을 펴냈다. 저자는 〈천수경〉을 굳건한 믿음 하나로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의 경이라고 말한다.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원전에 대한 내용만 적고 있다. 특히 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삼배(三拜)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지혜의 나무 刊, 값 8천원〉

1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우리조상 전도발원 후손들의 보은공덕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 672-2448

2 奉 일시 : 8월 25일 (음 7월 15일, 수요일) 行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
한국불교법륜종 보현정사 ☎ 276-1730

3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조상님 공경하고 어버이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금성산 다보사 ☎ 334-4201

4 막대구멍 5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라
사랑하고 연민하심 한결같고 끊임없네
다정한 아기에게 먹이는라 당신은 안자fr고
쓴것은 삼키면서 찡그린적 한번없네.
- 부모은중경中 -

어머님의 크신 은혜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의 높은 은혜 하늘에다 비기리까
하늘 은혜 땅의 은혜 아무리 크다해도
어버이의 큰 은혜에 견줄 수 없어라.
- 부모은중경中 -

◉ 홍보용 (1번~3번)
길거리, 절입구
(90Cm×6m)
1장당 40,000원

◉ 장엄용 (4번~5번)
법당외벽, 절입구
(90Cm×2m)
1장당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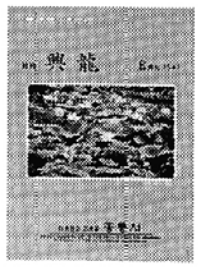
불교서원
전화 (062) 226-3056, 전송 (062) 226-5056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93-6

어버이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 어른되니 그 분 이미 세상에 없네.

8月 맞춤사보 (특집) 백중영가천도법회

우리 절 편집실처럼 스님의 뜻을 헤아려, 필수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가격으로 사보(월간, 격월간, 계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신도교육과 포교, 행사안내와 신도사업체 홍보, 사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등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사보제작 5년 역사를 지닌 불교서원과 만나십시오.



8월호내용 특집(1)백중(우란분절)과 영가천도
특집(2)불교에서 바라본 효도와 조상공경
특집(3)조상천도기도로 다시 찾은 가정의 평화

사보(1) 20쪽, 표지칼라
기본 (100부) 10만원, 추가 100부당 4만5천~5만5천원
사보(2) 8쪽, 흑백인쇄
기본(100부) 6만원, 추가 100부당 2만8천~3만5천원
※ 사찰 전용지면(4쪽)에 스님설법, 행사안내, 신도원고, 신도사업체 후원광고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개량형 영가위패(1장에 15영가 위패)
각종 현수막(행사안내,부처님 말씀 등),책상용 명패(주지,사무장)
상패(임명패,감사패), 상장, 수계증, 사찰기, 조의기 등도
주문제작, 통신판매 합니다.

※ 주문입금계좌:[농협 613-01-092143 예금주 : 선우], 입금시 사찰명을 꼭 기입바랍니다.

영가를 천도드릴 때
염송하는 각종 "왕생기도발원문집"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왕생기도와 천도재

(구)『무상법문집』 증보판 4×6배판, 값 3,500원

왜 그리고 어떻게 천도기도를 드려야 하며
실제로 기도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각종 왕생기도문(자신의 앞길을 닦는 사람이 올리는 극락왕생기도, 상가조문시, 낙태아천도재, 49재 등 천도재에 올리는 왕생기도)과 영가천도의 바른 이해와 인연공덕, 그리고 천도기도체험기는 사찰에서 필요한 왕생기도 신행지침서(백중, 49재 법공양판)가 될 것입니다.

※법공양을 원하시는 분은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오니 연락바랍니다.
※사찰에서 법공양판 제작시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불교서원은 불교서점(전회주문 통신판매, 법공양 할인판매)와
불교전문인쇄, 출판사(7년 역사)입니다

불교서원 전화 (062) 226-3056 전송 (062) 226-5056

'불교저널' 창간호 주요내용

유럽 특히 불교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프랑스의 불교현황은 어떠한가. 승정이 뇌물수수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태국 불교계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복제, 과연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적 연기사상의 구현인가 반연기적 재앙인가.

월간 〈불교저널〉 창간호가 특집으로 마련한 프랑스에 부는 불교바람과 태국불교계의 위기, 인간복제에 대한 불교의 입장 등을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프랑스에 부는 불교바람

'불교의 현대성과 그 가치에 매혹되는 프랑스인들'을 기고한 프레데릭 르느와르(철학자)는 "프랑스 불교신자는 대략 30세~45세의 도시에 사는 고학력 자여서 간부급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며 "프랑스 불교협회와 내무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프랑스 불교신자는 60만명으로 이중 절반이 프랑스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세이상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5%에 해당하는 2백만명이 '불교'라고 답했고 15%인 6백만명이 불교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에는 수백 개의 선불교센터와 티벳불교관련 명상센터가 있다. 르느와르는 불교가 유럽 특히 프랑스인에게 매력있게 보이는 이유로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일신 사상과는 전혀 다른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위기에 빠진 태국불교

최근 몇 년간 태국불교 승정 담마차요가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스캔들에 휩싸이는 등 태국불교계가 돈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태국에서 출가한지 10년이 넘은 미국인 승려 산티카로는 담마차요 스님에 관한 추문은 태국승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지만 대다수 불자들은 사태의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태국승가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간섭, 봉건제도, 관료화, 원로스님들의 여성차별, 힘있는 자의 권위주의와 고참스님들의 굴종, 조직력의 결여,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제도, 황금만능주의,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직매매 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런 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은 시골의 한 귀퉁이에서 불교계의 이러한 문제들과 과감히 맞부딪치고 있는 진보된 스님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담마차요의 엄청난 재산과 비행들에 관한 논쟁은 급속한 산업화와 갑작스런 경제 붕괴로 흔들리고 있는 태국불교계에 정신적인 위기를 불러왔다. 지금 태국불교는 기성불교와 새롭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신진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간복제, 불교의 입장

호진스님(동국대 교수)은 "불교는 인간복제 문제 앞에서 표면상으로는 다른 종교에서보다 덜 당황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다만 불교의 핵심사상인 윤회와 업사상이 인간복제 이론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스님은 행한대로 그 결과를 받는 업의 논리가 유전자조작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타자의 뜻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고 수정될 수 있어 업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업의 존립근거가 없어지면 그 영향은 윤회사상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까지 미친다. 종교나 철학은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설명과 이론·윤리·가치관 등을 개발하거나 시대에 순종하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호진스님은 "불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소재를 찾는 것인데 아직 문제의 심각성 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불교관련 논문 주제 다양

동국대 정신문화원 98년 후기 석·박사 논문 분석

논리학·정신건강·영화·장묘제도등 다뤄

동국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1998년 후기 불교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경향은 교리·철학은 물론 논리학, 청소년 정신건강, 불교음악, 영화, 장묘제도에 이르기까지 주제의 폭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환경요인과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각진스님(증앙승가대 교수)의 논문은 요즘 한창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요인을 만들어주어야 하는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각진스님은 불교등 종교계는 시설사상 인적자원 등을 청소년을 위해 활용해야 하고 청소년 복지를 위한 대통령직속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정책은 21세기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중요과제는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 청소년 전체를 위한 복지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화하는 청소년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분석과 복지지원 실태분석을 토대로 한 복지지원정책이 실시되도록 정부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최우선 국가전략으로 수립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진스님


◇박범훈교수


◇서명석씨

'선문답의 탈근대 교육적 독해'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명석씨는 근대교육의 허구적 실상을 날카롭게 꼬집으면서 이를 넘어서는 교육의 담론으로 선문답을 주목했다. 내용중심주의에 사로잡힌 근대교육을 극복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선문답을 내세운 것이다. 서씨는 "선은 문답의 형태를 갖추면서 교육의 장르로 성립되었기에 교육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근대교육은 마음 밖의 공부영역으로(理學), 선문답은 마음 안의 공부 영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心學).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이학과 심학의 대대적 통합일 수 밖에 없다"고 잘못된 근대교육 바로세우기를 제안했다.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를 고찰한 박범훈 교수(중앙대)의 논문은 불교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불교음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른 불교음악의 변천과정과 한국화를 약보까지 곁들어 정리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박사 〈동국대학교〉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환경요인과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각진스님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박범훈 △현대지의의 원동지관 연구-오지연 △불교논리학의 성립과 전용 연구-김치온 △승조의 연구-김주경 △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체계에 관한 연구-권경임 △경허·만공의 선사상 연구-덕숭산문 형성을 중심으로-태진스님 △고대 중국불상 장신구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전창범 △인도 중국 한국의 고대보살복식에 관한 연구-최영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선문답의 탈근대 교육적 독해-서명석 △균여의 화엄일승의 연구-근기론을 중심으로-김천학

▲석사 〈동국대학교〉 △도작의 정토사상 연구-〈안락집〉을 중심으로-이해선 △근대 일본불교의 한국내 활동과 그 영향-김윤정 △불타의 사념처관 연구-김쥬디 △〈대승기신론〉의 불생불멸관 연구-김옥란 △간화선의 무자공안 연구-김정숙 △선과 상담심리치료의 비교 연구-유미영 △유식사상의 식개념 고찰-유식30송을 중심으로-하영진 △디그나가의 직접지각과 자기인식에 대한 연구-〈집량론〉 〈직접지각장〉을 중심으로-배재형 △'선의 미학'으로 살펴본 한국영화 미학-'만다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중심으로-이윤희 △조계종 전통강원의 교육체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교과목 형성과정을 중심으로-이성수 △균여의 화엄사상 연구-조은규 △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와 화해, 일치를 위한 연구-다석 유영모의 교다원주의 사상을 중심으로-방상복 △도선국사의 선사상 연구-박상만 △불교 아동복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윤경 △경찰관 총기 오·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불교의 자비사상 구현을 위한 일고-이희경 △한국 장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이상호 △〈법화경〉의 복지사상 연구-류순백 △국보 196호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의 일연구-표지 화변상도를 중심으로-조경실 △만해 시의 '님'에 대한 연구-불교사상을 중심으로-지거스님

영역 '원효전서' 내년 2월 발간

국제원효학회, '금강삼매경론' 등 5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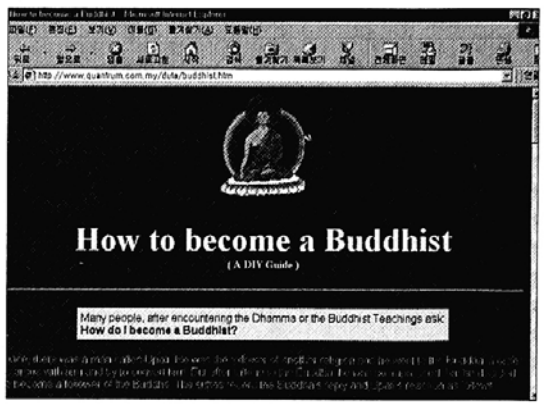
텍스트 분류방식과 한국어 영자 표기법 등을 통일해 영역한 〈원효전서〉 영역본 5권이 내년 2월 발간된다.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동국대총장)는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뉴욕 스토니브룩대에서 송석구 총장(동국대), 김용표 교수(동국대), 로버트 버스웰 교수(UCL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전서 영역 편집자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종 편집규정과 영역 예규를 접검했다.

이번에 결정된 편집안을 골자로 번역과 편집이 진행 중인 영역본 〈원효전서〉는 1권에 〈금강삼매경론〉, 2권에 〈대승기신론회본〉, 3권에 〈이장의〉 〈중변분별론소〉 〈판비량론〉 〈십문화쟁론〉, 4권에 〈열반종요〉 〈대혜도경종교〉 〈법화종요〉 〈화엄경소〉 〈본업경소〉 〈해심밀경소〉, 5권에 〈무량수경종요〉 〈유심안락도〉 〈불설아미타경소〉 〈미륵상생경종요〉 등으로 구성된다. 번역 작업에는 로버트 버스웰 교수 박성배 교수 찰스 뮬러 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다.

9회 가산 학술상 공모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제9회 가산학술상을 22일까지 공모한다. 대상은 박사학위소지자로 불교학 및 관련 연구자에 한한다. 중장기 연구계획서 발표논문 및 저술 각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추천서 2부 등이 필요하다. 학술상 수상자는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위촉되는 동시에 학술프로젝트 및 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다. 또 연구비 지급과 더불어 불교대사전편찬 및 가산학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02) 765-9602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자가 되는 길

서양인의 발심·귀의·수행 엿보기

영역본 금강경·명상음악 등 소개

동·서양인의 '불교귀의'와 '수행'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국계 미국인 로버트 유반(49)이 개설한 '불자가 되는 길(How to become a Buddhist)'은 서양인의 발심과 귀의 그리고 수행을 엿볼 수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유반은 불자의 첫 길을 '귀의'로 설명해 놓고, 'DIY'(Do It Yourself·'스스로 하라') 메뉴를 개설해 놓았다. 이 메뉴에서는 〈아함경〉에서 '불자의 의미'에 대해 우팔리가 부처님에게 묻고, 불자의 미덕을 깨친다는 내용을 영역한 글을 읽을 수 있다. 또 서양인의 초발심과 불·법·승에 귀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사성제'와 '팔정도'를 불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는 '공부하기'라는 메뉴도 개설돼있는데, 여기에는 '현명한 질문과 대답' '불자의 믿음이라는 것' '재가불자를 위한 경전 강독' 등 초심자의 신심을 다지는 글들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내면으로' 등 기성 불자들에게 유익한 글도 추천하고 있으며, 명상법을 소개하는 '상좌부불교 수행'도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남방의 고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스리 담마난다(Ven. Sri Dhammanda) 스님이 쓴 '불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스님의 법문 가운데 일반 수행자가 꼭 체득해야 할 덕목들을 모아 놓은 글. 영원한 불법, 인류를 위한 도덕, 삶과 문화, 존재의 한계, 분별심과 꿈 등 총 17장으로 구성됐다.

또 '재가불자를 위한 경전 강독'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이하 금강경)의 영역본을 읽을 수 있다. 유반은 이 메뉴에서 〈금강경〉이 6조 혜능 이래로 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떠오른 배경과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혜능(慧能)이 어느날 〈금강경〉을 읽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대목에서 홀연히 깨달았다는 일화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유반은 또 '십우도' 메뉴도 개설해 놓았다. 십우도는 1953년 미국의 드볼스 출판사에서 첫 발간한 이래, 미국인 불자들에게 발심, 귀의 그리고 수행의 전형적인 여정으로 간주돼고 있다. 이 메뉴에서 제공하는 '십우도'는 12세기경 중국의 가관스님이 화폭에 담고 그 경계를 설명한 것을, 미국의 판화가 P.렙스가 번역한 것.

팔리어를 배우고 불교 및 명상음악을 듣거나 화두를 들 수 있는 메뉴도 개설해 놓았다. '음악' 메뉴에서는 총 20여곡의 음악이 소개되는데, 불교음악에 관심있는 불자 네티즌들이 방문해 붐직하다. 또 〈법구경〉 원문 강독을 토대로 팔리어의 어휘, 문법, 어구 등을 익힐 수 있다. '화두' 메뉴에는 중국의 14세기 임제종 스님들의 대중적인 화두였던 '황소가 의양간을 등지다'를 비롯 10여개 화두를 동시대 불자네티즌에게 띄워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이트 주소는 http://www.quantrum.com.my/duta/buddhist.htm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9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인식 틀 깨야 새 세상 열려

대승기신론 (中)

경전 속의 禪 사상 29

글쓴이

박 태 원
〈울산대 철학과교수〉

거친 마음 다스리는 수행정보 제공
"깨달음은 신비체험 아니다" 밝혀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혹은 '경험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보거나' '경험했다'고 말할 때, 사실상 우리는 내 밖에 있는 대상(객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혹은 실제로 있는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간에, 우리는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기 있는 책상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책상의 모양으로 들어와 자리잡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마음 안에 포착된 것들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 마음 작용이라는 커텐 너머에 있는 것들과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다. 저 광막한 우주의 별들을 헤아릴 때에도 찰나지간에 우주적 스케일로 확장되는 마음 자리를 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마음에 갇혀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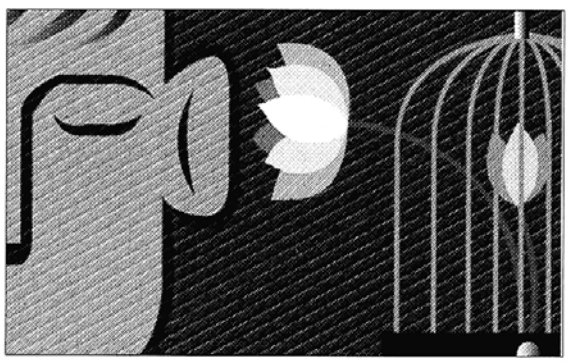
불교의 마음 법문은 이런 통찰을 배경에 두고 있다. 수행자들이 자신의 참선 체험을 이론으로 표현해 낸 유식(唯識)이라는 불교사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대한 이와 같은 통찰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대승기신론은 기본적으로 이 유식적(唯識的) 혜안의 맥락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탈과 관련하여 소상한 수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삼세육추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 대강은 이렇다.

진실에서 어긋난 마음(不覺)으로 인해 우선 세 가지 마음 상태가 뒤따른다. 무지로 인해 마음이 출렁거려 업(業)이 시작되는 단계(無明業相)·출렁거린 마음이 '보는 자'로 자리잡는 단계(能見相)·'보는 자'로 인해 '보이는 것들'이 자리잡는 단계(境界相)가 그것이며, 이것이 세 가지 미세한 단계들(三細)이다. 이어 여섯 가지 거친 마음 상태가 꼬리를 문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마음이 '좋다' 든가 '좋지 않다'라는 분별을 일으키는 단계(智相)·그 분별심으로 인해 좋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고 좋지 않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느끼는 마음이 이어지는 단계(相續相)·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마음이 달라붙는 단계(執取相)·그 집착때문에 즐겁거나 괴로움을 주는 것들에 붙여진 이름에 해당하는 그 어떤 불변의 것이 실제로 있다고 여겨 이름따라 분별하는 단계(計名字相)·분별된 이름을 좇아나가 이 이름 저 이름에 집착하면서 진실을 등진 갖가지 행위를 하는 단계(起業相)·그 행위들로 인해 초래된 불안과 혼란과 고통에 휘말려 자유와 평안을 상실한 단계(業繫苦相)가 그것이다. 이러한 삼세육추설이 깨달음의 소식과 관련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참선하여 깨달음을 연다는 것은 일종의 '인식 혁명'을 이룩하는 측면을 지닌다. "우리 마음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요리하는 틀 혹은 버릇이 본능처럼 자리잡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세계 해석의 틀이나 버릇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그 틀이나 버릇은 사물의 진실을 근본적으로 왜곡시켜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간의 삶을 영망으로 만들고 있다." - 삼세육추는 그 인식의 틀 혹은 버릇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훈이 마련된다. 참선하여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인식 왜곡의 틀을 깨뜨리고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일이다. 마음과 삶을 진실로부터 유리시켜 온갖 혼란과 고통의 노예로 이끌어 가는 그 완고한 인식의 버릇을 말끔하게 바로잡는 혁명적 전환이 바로 깨달음이다. 강고한 집착과 끝없이 번지는 탐욕과 부정(否定)으로 관계맺던 이 세상이, 그 때는 전혀 새로운 관계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그 새로운 관계의 내용을 압축하여 '지혜와 자비'라 한다.

기신론은 삼세육추설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듯 하다. '깨달음은 그 어떤 신비 체험 상태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진실을 왜곡하던 인식의 선입 틀 혹은 버릇을 근본적으로 교정하여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전개하는 사람 - 그가 옳게 깨달은 자다.'

과 학 산 책 바로보기



고정돼 보이는 몸 매순간 변화
세포 1초마다 6조개씩 재생
뼈 석달 胃 5일 간 6주마다 바뀌어

우리들은 고정된 모습을 고집하면서 스스로를 얽어맨다. 선사들은 우리들에게 순간 순간 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이 어렵게만 들리는 것은 아마도 우리들의 생각이 고정된 틀에 잡혀 있어 순간 순간의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무엇이 고정되어 있고 무엇이 변화하는 것인가? 이 차이는 얼핏 보기에는 명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몸을 살펴보자. 우리 몸에서 고정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특별히 어제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머리카락, 얼굴 생김새, 눈의 모양 등은 어제와 같아 보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름살과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늙은 자신의 모습에 한숨을 내쉰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실제로는 서서히 늙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다. 그래서 매일 보는 가족들은 가족원들의 변화에 오히려 무감각할 때가 많다.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더 세밀히 살펴보자.

과학자들은 각 세포에서 매 초마다 6조개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분명히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겉모습의 내면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외부로부터 신선한 칼슘 분자가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들어가도에 따라 피, 피부, 혹은 다른 세포의 일부분이 된다. 칼슘은 이와 같이 교체된다. 고정된 모습으로 보이는 뼈도 매 3달마다 위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용도에 맞는 뼈의 모습을 유지한다. 피부는 한 달에 한번 새롭게 교체되고 위 내벽은 매 5일마다 교체되며 간은 매 6주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의 눈에는 이들 기관들이 매순간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 연말에 이르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98%의 원자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고정된 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늘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우리들이 주변을 인식하는 바에 따라서 가공된다. 우리가 고정되게 보면 고정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고정되게 보지 않으면 늘 신선한 것으로 다가온다. 우리들은 경험을 통해서 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삶이 생기있고 즐겁다는 것을 안다. 어차피 정보는 우리들의 인식에 의해서 가공되므로 우리들이 인식을 바꾸면 정보가 작용하는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인식의 차이가 실제로 우리 몸에 얼마나 무섭게 작용하고 있는가는 쉽게 알 수 있다.

'조기 은퇴 죽음(Early Retirement Death)'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은퇴 전에는 건강하던 사람일지라도 정년퇴직 후 몇 년 사이에 심장마비와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말한다. 노인들이 은퇴 후 사회에서 격리되는 곳에서와는 달리 사회 구조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또한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휴식에서 일터로 돌아오는 월요일이라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연에는 정년퇴직이나 월요일이 없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인데 우리들은 그 만들어진 개념에 얽매이고 이 얽매임이 신체에 직접적인 결과로 누구나 싫어하는 죽음을 가져오기도 한다.

고정되게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많은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바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조원희〈본사 전락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0)

진리의 향기 ②

지금 현재 깨어 있으라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 환상은 망념
현실 바로 볼때 탐욕의 해악 벗어나

부처님은 우리 스스로 몸과 마음을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이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과(因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단지 마음에 유념하고 챙겨라와 같이 무미건조한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

우리가 부처님의 본질적인 뜻을 제대로 사유한다면 그 말에 담겨있는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명상수행을 시작해서 끝내기까지 단 한번도 마음을 놓지 않았는가? 명상을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서도 초발심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도대체 마음챙김은 무엇이며, 그것이 담고 있을 가치는 또 무엇인가?

마하부아 스님은 법이란 현상 자체이며 불법의 수행이란 어떤 방법으로든 이 현상의 본성과 특색을 파악하고, 지금 처해있는 이 세계, 즉 우리 몸과 마음의 본성과 특색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공부라고 말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로 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리도 여기에 있다. 마음과 몸, 귀, 눈 등으로 바로 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현재에 마음을 집중해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여기' '지금' '현재' 등에서 유·무정물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자비를 실천하는 계기도 맞게될 것이다. 경이로움의 세계이며 깨달음의 세계이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카지노에는 "당신이 이겨야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마음챙김도 바로 이같은 경구를 가지고 있다. '마음챙김'에서 미래의 환상과 과거의 추억은 불필요한 요소일 뿐이다.

마음챙김은 집착·탐욕·해악 등을 없애주고, 매 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현재'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얻으려는 삿된 생각을 품는다. 명상으로는 신비하고 기괴한 체험을 결코 할 수 없으며,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환각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영국의 귀족이 있었다. 그가 환각제를 먹는 것은 남다른 체험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와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로는 환각제에 손대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이유를 묻자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여행하며 동·식물들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내가 경험하고자 했던 경이감 혹은 신비감은 삶 속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험의 본체에 담겨있었다"고 대답했다.

그 귀족은 주변의 변화를 하나도 놓지 않고 보고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음챙김을 게을리하지 않는 수행관,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관을 보여준 것이다. 명상은 한 토막의 통나무에 비할 수 있다. 통나무의 한쪽 끝을 통찰과 관찰(慧)이라 한다면 다른 한쪽은 고요와 집중(定)이다. 통나무를 들어 올리면 양쪽 끝은 동시에 올라온다. 오로지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막히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해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15년간 성보 453점 도난당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발간

95%가 비지정문화재
절반이상 경북지역서
밤 11시~새벽 4시 도둑 극성
성보안전관제시스템 필요



◇송광사 16조사진영중 '혜감국사'(보물 제1043호, 1780년 작, 1995년 1월 도난).



◇선암사 '33조사도'(미지정, 18세기 작, 도난일시 미상).



◇선암사 '화산대사승탑등물상'(전남문화재자료 제42호, 1966년 2월 도난).

지극한 불심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예와 정성으로 만든 성보문화재는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면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건한 종교적 경배의 대상이면서 민족의 정신적 자산이며 국가적 보물인 성보문화재가 관리·보존에 소홀한 탓에 한해 평균 30점 가까이 사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펴낸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이하 백서)에 따르면 지난 8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총 316건 453점. 이중에는 보물 6점, 지방유형문화재 7점, 지방문화재자료 9점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준다.

15년간 도난당한 성보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한 이 백서는 사찰·지역·교구별로 색인을 두어 검색의 편의를 도모했고, 개개 문화재마다 소재지, 도난일시·경위, 시대, 크기, 재질, 사진 등을 게재해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 도난성보의 60%가 불화

도난당한 성보문화재의 유형을 보면 불교회화가 186건 275폭으로 가장 많으며, 불교조각이 61건 109구, 탑과 18건, 기타 5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송광사 16국사진영(보물 제1043호), 무량사 금동아미타불좌상(충남유형문화재 제100호)등 지정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지만, 도난당한 대부분의 유물(94.8%)은 비록 지정은 안됐지만 지정문화재 못지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난 건수의 60%를 웃도는 불화의 경우 국제적인 경매장에서 고가로 경매되고, 가볍고 부피가 적어 도난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북 111건으로 전체 약 50%를 차지하고 전남 60건, 경남 36건, 전북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난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전문 절도범들에 의해 한 지역이 집중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88년 4월부터 몇 달동안 전라도 지역의 금산사, 삼곡사, 흥복사, 운주사, 천은사, 도갑사, 내소사 등이 차례로 성보문화재를 도난당했다. 전문 도난범들에게 한번 목표가 된 지역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계절별로는 약천후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 시간별로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8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에는 태풍 또는 장마로 비가 몹시 많이 내리는 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등을 범행 일자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찰에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개를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폭우 소리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백서에 수록된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조계종 총무원의 문화부와 호법부 그리고 문화재청에 신고된 것만을 파악한 것으로, 적잖은 오차를 안고 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은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난된 성보문화재는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보 도난 건수는 91년 48건을 최고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올 상반기 들어서만 12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성보문화재는 도난의 위험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난방지 대책 절실

성보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조계종이 문화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8일 조계종 교구본사 호법국장회의에서 주지스님들이 사찰을 비울 때 발생한 경우가 50% 이상이며 출타시 대중 및 소임자들의 도난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호법부는 성보문화재를 도난당한 사찰의 주지스님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보호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웬만한 사찰은 도난방지, 화재방지, CCTV시스템 등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 조계종 총무원이 강원도 S사찰에 대한 성보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했을 때, 당사찰 주지스님은 도난방지시스템이 어느 곳에 설치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또 작동방법을 모르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경비인원도 없었고, 시스템은 작동불능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백서를 발간한 데 이어, 본사 단위에서 성보문화재를 관리하는 성보안전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공신력과 전국망이 가설된 보안업체를 공개입찰, 각 지역 사찰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를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97년부터 본사별로 성보실태파악에 착수해 온 조계종 총무원은 해인사와 월정사 본·말사의 성보 전산화작업을 끝낸 데 이어 통도사 등 4개 본사의 성보문화재실태 조사작업을 이미 완료, 성보문화재의 빈번한 도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문화재 전문 털이범들의 범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대담해지는 반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당국의 대비책도 개선돼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백서에서 범인들은 비지정문화재를 집중적으로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나타났다. 비지정문화재가 비교적 관리도 소홀할 뿐더러 처벌도 약한 점을 노린 셈이다. 현행법은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신고 이후 공소시효 5년만 넘기면 뒤탈없이 매매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비지정 사찰문화재에 대한 국가 및 시도문화재 지정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인터뷰 '도난백서' 펴낸 양산스님

"도난성보 회수에 도움되길"



"검·경찰청, 각 지역 관공서에서 보내달라는 주문이 쇄도합니다. 이를 계기로 도난당한 성보를 다소라도 찾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양산스님은 "방금 경찰청에서 백서 5백여권을 기증해 줄 것을 의뢰했다"며 "이 백서가 전국의 문화재 담당 형사들에게 숙지되어 도난당한 불교문화재의 불법유통을 막고 도난범 검거를 위한 수사자료로 활용된다면 발간의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스님은 "지금의 문화재보호법이 미약해 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할 정도로 성보문화재 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며 "성보문화재 근절을 위해 관련법이 하루빨리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단 자구책으로 '불교문화유산보존연구원'(가칭)을 설립, 성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스님은 소중한 성보를 도난·훼손으로부터 보호·관리·전시할 수 있는 성보박물관이 본사마다 건립돼야 한다며 더 많은 성보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중근 기자



◇백련사 '철조아미타불좌상'(보물 제994호, 고려시대 작, 1989년 12월 도난).



◇대원사 '승탑'(전남유형문화재 제36호, 고려시대 작, 1984년 4월 도난).



◇무량사 '청동내합 및 동제보살문원판과 동경'(충남유형문화재 제100호, 신라말, 1989년 7월 도난).



◇기림사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보물 제969호, 고려시대 작, 1993년 12월 도난).



◇홍성 신경리 마애석불은 지방양식이 강하게 나타난 통일신라 불상이다.

마애불을 찾아서

홍성 신경리 석불

굽타불상 착의법과 유사
통일신라 불상연구 자료

충남 홍성군 신경리에 있는 보물 355호인 이 마애불의 몸의는 통견의인데 가슴의 옷깃이 분명하지만 목주위로 돌고있어서 굽타불상 착의법과 유사하다. 옷주름은 무릎까지 전신에 걸쳐 U자형으로 표현하였고 무릎밑에 군의를 세로선으로 나타냈지만 불분명하게 처리되었다. 광배는 바위를 파면서 불상을 만들 때 불상주위를 깊게 새겨 감실형의 주형 거신광을 형성하였으나 뚜렷하지 않다. 이처럼 이 불상은 자연스러운 신라식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방양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불상옆면에 새겨진 조성기에 따르면 통일신라후기인 소성왕 1년(799년) 4월에 조성된 작품이다. 작가(원조법사) 발원자 등도 기재돼 있어 통일신라 하대 불상연구에 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 불상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 있는 용봉사 신경리 마애석불의 편년 설정에도 결정적 자료로 평가된다.

글·사진=불지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카드 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종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형문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2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대현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진신 달마도를 고급 로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글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팩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⑤

敦漸兩門 是千聖軌轍也
돈점양문 시천성궤철야
則從上諸聖 莫不先悟後修
즉종상제성 막불선오후수
因修乃證 所言神通變化
인수내증 소언신통변화
依悟而修 漸熏所現
의오이수 점훈소현
非謂悟時 卽發現也
비위오시 즉발현야

그러므로 이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나갔고, 그 닦음에 의해 증득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대가 말한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고 차츰 익혀야 나타나는 것이지 깨달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如經云 理卽頓悟 乘悟併消
여경운 이즉돈오 승오병소
事非頓除 因次第盡 故主峰

作懸崖之想 自生退屈
작현애지상 자생퇴굴
斷佛種性者 不爲不多矣 旣自未明
단불종성자 불위불다의 기자미명
亦未信他人 有解悟處 見無神通者
역미신타인 유해오처 견무신통자
乃生輕慢 欺賢誑聖 良可悲哉
내생경만 기현광성 양가비재

경에 이르기를 "이치로는 돈오(頓悟:단번에 뛰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하여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로 없어진다"하였다. 그러므로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나가는 뜻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시기를 "얼어 있는 연못이 순전히 물인줄 알지마는 햇빛을 받아야 녹고, 범부가 곧 부처인줄을 알지마는 법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 물이 흘러야 바야흐로 그 물에 씻는 보람이 나타나고, 망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신령

망상 사라지면 광명의 작용 생기니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차츰 익혀야

사비돈제 인차제진 고주봉
深明先悟後修之義曰 譬氷池而全水
심명선오후수지의왈 식빙지이전수
借陽氣以鎔消 悟凡夫而卽佛
차양기이용소 오범부이즉불
資法力以薰修 氷消卽水流潤
자법력이훈수 빙소즉수유윤
方呈觀條之功 妄盡則心靈通 應現通光
방정개척지공 망진즉심영통 응현통광
之用 是知事上神通變化
지용 시지사상신통변화
非一日之能成 乃漸熏而發現也
비일일지능성 내점훈이발현야
況事上神通 於達人分上
황사상신통 어달인분상
猶爲妖怪之事 亦是聖末邊事
유위요괴지사 역시성말변사
雖或現之 不可要用
수혹현지 불가요용
今時迷凝蔽 妄謂一念悟時 卽隨現無
금시미치배 망위일념오시 즉수현무
量妙用 神通變化 若作是解
량묘용 신통변화 약작시해
所謂不知先後 亦不分本末也
소위부지선후 역불분본말야
旣不知先後本末 欲求佛道 如將方木
기부지선후본말 욕구불도 여장방목
逗圓孔也 豈非大錯 旣不知方便故
두원공야 기비대착 기부지방편고

하게 통하여 신통과 광명의 작용이 나타난다"하였다.

그러므로 사실상 신통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 익히고 닦아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실상의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사하고 괴이한 일이고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혹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즉시 한량 없는 묘한 작용과 신통변화를 나타낸다"하고 있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이른바 선후를 알지 못하고 본말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미 선후와 본말을 알지 못하고 불도를 구하려 한다면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끼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미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절벽을 바라보는 듯한 생각을 내어 스스로 포기하여 부처의 종성(種性)을 끊는 이가 적지 않다. 이미 스스로가 밝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깨달음까지도 믿지 않고, 신통이 없는 이를 보고는 곧 업신여긴다. 이것은 성현을 속이는 일이니 참으로 슬프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참회로 '나' 바로 세워

혜웅스님 〈관음종 종정〉



약력
- 1928년 충남 천안生
- 1955년 강원도 강선사 입산
- 1959년 태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61년 대교과 수료
- 1962년 천안 보열사 창건
- 1985년 대한불교학술운영위원장
- 1989년 대한불교 관음종 원로원장
- 1999년 7월8일 대한불교 관음종 제5세 종정으로 추대
- 현재 천안 보열사 주석

요즈음엔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정치고 사회고 경제고 어느 한편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시피 할 정도니 모두가 불안한 마음들일 겁니다. 이런 원인은 국가가, 국민이 주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 국민들은 그저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주체성을 상실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떠들어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못했어요. 그 진짜 이유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서 이지요. 그것은 바로 주체성 상실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얼마나 제각각입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은 사대주의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대주의는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으로 불교가 산으로 숨어들어간 때입니다. 숭유억불정책은 당시 조정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 택한 사상이 아니라 중국 사대주의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라의 철학이자 모든 백성의 의지처였던 불교가 억압당했다는 것은 주체성을 억압당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제치하 36년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친일파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주체성이고 자존심이고 다 집어던지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 일본의 탓이 있지만 이처럼 주체성 없는 우리 백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예요.

이후 우리는 6.25전쟁을 치르고 미군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권이 있었습니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체성은 이때 또 다시 상실됐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에 걸친 주체성 상실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인 것을 빼놓고는 모두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전까지 이어져 오던 불교정신이 한동안 끊어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시대 탓만 할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 어려운 시대에 용기를 내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불교가 기독교보다 흥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가 먼저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내가 불교에 입문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이런 시대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27세에 출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고귀한 길로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불교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뒤틀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정직하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돈있고 소위 말하는 줄있는 사람이 출세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알아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은사스님 말씀 평생 화두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상실감만 커갈 뿐이었어요. 근면과 성실을 생활신조로 삼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는 일마다 낭패만 보았지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적 상황때문인지 아니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닿는대로 떠돌다가 춘천 봉의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엔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첫눈에 보기에도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임을 느끼게 했던 그런 분이었지요. 나는 그 스님에게 그동안 겪어왔던 갈등에 대한 심중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는 잘 찾아왔다며, 세상의 이치를 알려면 좋은 스님 밑에서 공부해야 한다며 당시 강촌에 있는 강선사를 찾아가 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로 강선사로 향했습니다.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강선사로 찾아가자 한 스님께서 수행중에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관음종의 창종주이신 태허스님이셨습니다. 스님께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저는 잘 안되는 일을 잘되게 하는 방법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방법을 찾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서입니다"하며 간곡히 매달렸더니 마침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나는 스님으로부터 피나는 수행의 채찍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춘천에 불교행사가 있어 은사스님께서 거기에 가서 일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혼탁하고, 스님들조차도 이들을 제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돌아와서 은사스님께 절을 내려가겠다며 하직인사를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주소 :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시간
05	00 아침예불 (승가대 스님)		05
	45 바른음 바른고 (이병학ANN)		
06	00 교계뉴스 (정수연ANN)		06
	05 산신공부 (연초스님)		
	25 고승역사 (구인 外)		
	35 교리강좌 (허정정사)		
	55 신행365일 (김용덕)		
07	00 뉴스 (정수연)		07
	10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입니다 1부	05 일요교양강좌(교양제작팀)	
	BBS 캠페인 (박정원ANN)		
08	00 BBS뉴스정찰(모노닝/정수연ANN) (08:25-08:30 (L)	00 법고회 주비(보교제작팀)	08
	10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입니다2부 (L)	20 사찰순례(최은경ANN)	
	1분묵교정식 (이선희ANN)		
09	00 뉴스 (박홍식ANN)		09
	05 서현선의선율 (진명스님) / (그) 기독한만남(도형스님)		
10	00 뉴스 (이하정ANN)		10
	05 자비의 산회 (최은경ANN/해거스님 外)	00 라디오 법회(이병학ANN)	
	55 반야심경(주해만) (성수스님)		
	기상정보 (정미경REP)		
11	00 뉴스 (박정원ANN)		11
	10 행복스튜디오 활정원입니다	05	
12	00 정오종합뉴스 (박정원/이현정ANN) (12:15-12:20 L)		12
	20 최영준의 팩판가요 1부	10	
13	00 뉴스 (박홍식ANN)		13
	05 최영준의 팩판가요 2부		
14	00 뉴스 (이병학ANN)		14
	10 퀴즈 대상경 (이난찬 정수연ANN)	05 우리가락의 장기(송재선)	
	50 고승연찬(재) (구인 外)		
15	00 뉴스 (최은경ANN)		15
	05 BBS생활상담실(이하정ANN/권순만外) (L)	05 김촌찾아서 (이병학ANN)	
	1분묵교정식 (이선희ANN)		
16	00 뉴스 (이병학ANN)		16
	10 음악의마을 (박정원ANN) (L)	05	
17	00 뉴스 (최은경ANN) (L)	00 장명의시간 (이하정ANN)	17
	10 부명을 밝히고 (이병학ANN)	20 일요초대석 (김혜정)	
	BBS 캠페인 (박정원ANN)		
18	00 저녁예불 (승가대 스님)		18
	15 정연주의 정보 가이드		
19	00 BBS저녁종합뉴스(이병학/최은경ANN-보도팀)		19
	25 부동산 경제 (이정대)	10 음바니농산(지율스님)	
	55 우리들의 찬불가 (가정민가합창단)		
20	00 교계뉴스 (이선희ANN)		20
	05 김명조의 다시는 고정은노래		
21	00 뉴스 (이선희ANN)		21
	10 신행365일(재)) (김용덕)		
	15 경전공부(재) (연초스님)		
	35 반야심경(원문) (성수스님)		
	40 교리강좌(재) (허정정사)		
22	00 교계뉴스 (이선희ANN)		22
	05 명희음악실 (박홍식ANN)		
23	00 뉴스 (이선희NN)		23
	05 현대인을 위한 계난증의 강좌1부(법류스님)	05 그리운동물하나1부(김정희)	
24	00 현대인을 위한 계난증의 강좌2부(법류스님)	00 그리운동물하나2부(김정희)	24
	45 천수경 (송광식 스님)		
01	00 한밤의 명상 (이선희ANN)		01
	55 사홍서원 (합창단)		

큰스님 수행한담

주체적 인생 가꾸세요"

"스님이 열심히 수행하면 신도들도 배워 열심히 살고 결국 세상이 불국토 됩니다"



◇87년 불광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양국불교교류에 기여했다는 뜻의 감사패를 받는 혜웅스님(왼쪽).

세상은 정진하는 도량이나 마찬가지
최선 다하면 후회없는 결과 나오는 법

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은사스님께서 갑자기 들고 계시던 주장자로 나를 후려치셨습니다. 까닭도 모르고 얻어맞았지만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연유를 물으려 하니 스님께서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놈아, 너는 허상을 보고 다녔을 뿐이야. 왜 진리를 보지 못하느냐!"하시며 호된 꾸지람을 내리셨습니다. 스님의 이 한마디에 불교에 입문한 후 처음으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침묵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진을 마치고 나서 강원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테니 열심히 공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간 스님 밑에서 대교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교리는 머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진짜 내가 찾던 '길'을 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이것을 아셨는지 절 근처에 있는 폭포 옆에 움막을 하나 지어주시더니 이곳에서 3년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나를 '중다운 중'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게지요.

움막에서의 3년 수행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루 두 끼, 볶은 쌀을 먹고 냇가로 가서 물을 먹는 일 외에는 온종일 참선수행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낼 즈음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력도 소진돼 말할 기운조차도 잃었을 정도니 행동하는 것만 사람이지 몰골은 그야말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궁극의 깨달음도 내게는 멀게만 느껴진 것도 더 이상 수행해 보아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을 부채질했습니다. 움막에서 내려와 은사스님께 더는 못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한참을 골똘히 쳐다보시더니 호된 꾸지람 대신 차분하신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면 누가 몇십년을 장좌불와 해가며 수행을 하겠느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라. 하지만 너는 두려움없이 시작을 했으니 반쯤 온 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참고 정진해 보아라. 그러면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것이야"라고요.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깨치겠노라고 산문에 들어선 사람이 겨우 1년을 못견뎌 포기하겠다고 말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움막으로 돌아가 수행정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차례 더 움막을 내려 온 적이 있지만 그때도 은사스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3년을 마치고 내려오던 날 은사스님께서는 신도들을 모아놓고 제자가 3년 천일기도 회향을 한다고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직접 불공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그 불공이 끝난 직후 곧바로 쓰러져 3일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스님께서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내게 "아무 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것도 깨닫은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너는 분명 부처님을 보았고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3년간 수행을 마치고 내려오면서도 나는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고생을 했으면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회향식 불공때 정신질환을 앓던 한 보살이 법회가 끝나기 전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후 얼마간 치료 후 다나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마침내 내가 수행한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부처님 법을 열심히 따르면 소원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후학들에게 은사스님의 가르침이신 '의법불의인'을 그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스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대로 나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지금도 불공과 도량석을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빠뜨리지 않지요. 경전은 많기는 하지만 그 뜻은 모두 한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선(善)을 지향하고 있듯이 부처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향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법화사상을 불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스승이신 태허스님께서도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삼으셨는데, 법화사상의 핵심은 바로 '개시오입(開示悟入)'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열고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십여시(十如是)'입니다. 이것은 여시상(相) 여시성(性) 여시체(體) 여시력(力) 여시작(作) 여시인(因) 여시연(緣) 여시과(果) 여시보(報) 여시본말(本末)의 열가지 인연법을 담은 것인데, 중생의 모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십여시'와 '개시오입'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사는데 아무 걸림이 없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음종에 발을 들여놓고, 법화사상을 좇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이치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한 가지 큰 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비구로 태어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다한 수행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번뇌라면 번뇌죠. 산문에 들어선지 그토록 오랜시간이 지났으면서도 아직도 번뇌를 죽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주위에서 아무리 큰스님이라고 불러도 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쩝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고 주위에서 말하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스님의 본분인데 어디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도들에게 법문할 때도 혼신을 다해 합니다. 그것도 곧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신도들도 열심히 살테고 그러면 이 세상이 불국토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정진하는 도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루 일을 저녁에 꼭 참회하고 남에게 피해 준 것은 없는지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각자 모두가 이렇게 하다보면 잃어버린 우리의 주체성도 저절로 찾게 되고, 그러면 모두가 바라는 정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이 신념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내 삶의 몫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자들도 각자 자신의 신념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후회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박 준 영 〈SBS기획편성본부장〉

20년전 해인사 금강굴서의 이틀밤
'인생이 뭔가' 진지하게 생각한 계기

할머님이 나와 형제들 생일 때나 바람 올리는 날(?)이면 정화수 떠 놓고 지성으로 비는 모습을 보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처님께 보살님께 심지어 용왕님께 "우짜든 우리 새끼들 명길고 복 많이 받게 해 달라"고 비는 모습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도 같이 떠올려 진다. 대개 우리나라는 토속신앙과 불교적 배경을 지니고 자란 사람들이 많다. 나처럼 말이다.

6.25 전쟁 와중 그 어렵던 중학시절, 나는 삼촌을 따라 예배당에 갔다. 꾸벅꾸벅 졸다가 구호품, 그것도 서양사람이 입던 옷가지 한 두개를 타 온 적이 있지만 흥미가 없어 더 이상 교회에 가질 않았다. 아마 내 안에는 불성이 자라고 있었던 모양이다.

고등학교 3학년때는 고시 공부한다고 여름방학에 뜻도 모르는 법학 서적을 둘러메고 공민선생 권유에 못 이겨 절로 갔다. 경남 고성 문수암이라고, 다도해의 절경이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의 작은 암자였다. 거기서 행자 보조 비슷한 노릇도 했다. 물 떠오고 청소하면서 동국대학 출신의 말 수가 적은 행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앞으로 꼭 하고 싶고 사회에 이루어 놓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고시공부,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큰 뜻도 있지만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해 가문을 빛내는 그런 뜻이 더 강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앞으로 하고싶은 일을 생각하게 되자 고시공부는 때려치우고 〈반야심경〉을 외웠다. 경전을 외우면서 의심이 나면 스님께 달려가 여쭤보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되었다. 당시 수학 공식 풀듯 손에 잡히는 해답이 아니면 흥미가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여름 한철 최고의 절경에 위치한 고즈넉한 산사에서 보냈다는 기억밖에 없다. 하지만 불교와의 인연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져 갔다.

그 후 사는게 바쁘다는 핑계에다 현실과의 야합과 안일로 또는 일상을 제법 열심히 엮어 나간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종교를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그 사이에도 절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경관이나 문화재 구경하는 관광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지난 90년, 대구 KBS 총국장 시절 처음으로 정초 휴가를 받았다. 그 때 주위사람의 주선으로 해인사 금강굴에서 이틀밤을 보내게 되었다. 새벽 밤하늘의 별, 싸늘한 공기, 산야를 뒤덮은 흰눈, 범종소리와 목탁소리에 묻은 염불소리, 바람소리에 취해 세상에 이런 자연의 오케스트라가 어디 있을까 싶었다. 그 후 나는 자주 절에 가게 되었다. 절의 분위기에 젖어 들다보니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덧 오십고개,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아무래도 덜 남았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열심히 살고 일상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래도 더 가치있는 일에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고 싶었고, 뒤늦게 인생이 뭔가 하는 의문이 몰려 올 때도 있었다. 그 나이쯤 되면 누구나 한 두번씩은 갖는 의문일 테지만 고교 3학년 때 문수암에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요즘은 건축중인 일산 여래사의 지하 2층에 임시로 모신 법당을 찾아 부처님께 거의 매일 아침 삼배를 드린다. 이런 기도를 한다. "관세음보살,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남을 이롭게 하고 살겠습니다. 대자대비의 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그렇더라도 제 힘이 약하니 저에게 지혜와 그 지혜를 실천할 힘, 용기를 주십시오." 새벽예불이 끝나면 정발산을 오르며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제법 큰 소리로 읊조린다.

나는 수행생활로 불교와 자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시를 더 쓰고 싶다.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과 하나되고 부처님 만났어요"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 현장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본사가 주최하고 선재이벤트(실장 이성훈)가 진행한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22일~24일 2박3일간 신륵사, 용주사, 에버랜드 일대에서 열렸다. 씨랜드 화재참사 이후 어린이캠프에 대한 사회적 불신속에서도 168명의 어린이불자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 어린이불자들은 우리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층 성숙한 불자로 태어나는 소중하고 신나는 한마당을 펼쳤다. 〈편집자 주〉

22일 오전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속에 하나둘씩 모여든 어린이불자들은 흰색과 초록색의 부다피아 티셔츠를 갈아입으며, 조계종총무원 1층 회관에 자리를 잡았고 배웅하는 부모님을 뒤로한채 2박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부다피아 캠프의 제1 목적지는 경기도 여주 신륵사. 빗줄기도 잠시 멈춘 신륵사 구룡루에서 어린이 불자들이 주지 세영스님의 불교문화 역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린이들은 수첩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의 이름을 적어가며 불교문화에 심취했다.

비가내리는 목아박물관을 떠나 오후 8시 용주사에 도착한 어린이불자들은 충북 음성 광명선원의 청거스님과 안양 한마음선원 혜나스님의 '마음이 보여요!' 법문시간과 만났다.

"어린이불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이든 태울 수 있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고, 성내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든 마음을 용광로에 넣어 녹입시다. 그 훈련을 이번 캠프기간동안에 하는 겁니다."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불자로서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하는지 이번 캠프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23일 새벽 5시 일찍 잠을 깬 어린이불자들은 아침예불로 캠프 둘째날을 시작했다. 용주사 공양간 보살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아침을 먹고 펼쳐진 불교레크리에이션과 게임대회.

"부처님 머리는 포도알…." 재미있는 노랫말과 조민정 지도교사의 재미있는 율동지도에 모두들 몸을 흔들며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어 문수와 보현으로 팀을 나눠 협동심과 체력을 겨루는 게임이 시작됐다. 사탕 장대에 홀라후프 던져 골인하기, 호루라기소리에 맞춰 줄다리기가 이어질때 마다 "문수, 이겨라!" "보현, 화이팅!" 서로 질세라 응원소리를 드높였고, 한경기 한경기 승패가 갈릴때마다 "우와아아!!! 이겼다, 또 이겼다"며 환호성을 질러대며 모두가 즐거워 했다.

새싹불자 168명 몸과 마음 갈고 닦아
법문 듣고 예불체험…불교문화 만끽
각종 놀이 · 게임 즐기며 협동심 길러

"모든 자연과 문화재는 바로 우리의 스승이자 생명입니다. 어린이불자여러분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에!"

주지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향한 목아박물관에서 어린이불자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의 특성과 우수성을 실감했다.

목아박물관 박찬수관장이 직접 나와 어린이불자들에게 목아박물관에서 건설중인 큰말씀의 집(대장전), 한얼울는집(개천궁), 마음의 문(사천왕문) 등 전통건축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보물 제684호로 지정된 용문사 은장대를 실측재현한 큰말씀의 집에서 어린이불자들은 직접 윤장대를 돌리는 체험을 하며, 불교문화재 속에 담겨있는 큰 가르침을 저마다 가슴속에 새겼다.

또 박찬수씨가 목불을 재현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은 '부처가 되고싶은 나무' 영화를 보며, 어린이들은 또한번 감탄사를 연발했다. 박물관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불상과 보살상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부다피아 어린이들에 둘러싸인 목아박물관 박찬수관장이 우리나라 목조건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전날 거세게 내리던 비도 멈추고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어린이불자들은 그렇게도 고대했던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에 도착했다. 바다처럼 푸른 수영장 물에 온몸을 담그고 넘실대는 파도와 함께 부다피아의 여름을 만끽했다.

마지막날인 24일 오전 에버랜드 퍼스티벌 월드에서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고, 이틀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반별 장기자랑시간이 펼쳐졌다. 웃통을 벗어던지며 몸매를 과시하고, 새로 배운 찬불가를 목청껏 부르며, 만자가 그려진 우산을 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어린이불자들은 어느새 아기부처님처럼 미소짓고 있었다.

무더위와 모기, 자신의 인내심과 2박3일간 겨뤄온 어린이불자들은 내년에 보다 더 즐겁고 신나는 부다피아 여름캠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영차 영차 보현이겨라 문수이겨라" 줄다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불자들.



◇22일 조계종 총무원 1층 회관에서의 입재식.



◇여주 신륵사 구룡루에서 주지 세영스님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어린이 불자.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에서의 즐거운 물놀이시간.



◇ '이 보살님 이름은 무엇까?' 목아박물관에서 열심히 메모하며 불교조각의 우수성을 감상했다.



◇반별장기자랑시간, 2박3일간 튼튼해진 알통을 선보이고 있다.



◇반별 장기자랑에서 우승한 용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본사 최정희 편집국장.

인 터 뷰



박성준

"절이 무척 아름다와"

처음 와 본 한국 절이 너무 아름답구요,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정말 신나고 즐거웠어요. 미국 시카고 웨스트부룩엘리멘터리스쿨 4학년인데 여름방학을 맞아서 엄마랑 동생이랑 한국에 왔어요. 엄마가 꼭 가봐야 한다고 나 혼자 캠프에 보내줬어요.

5살때 미국에 가서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내년엔 동생과 함께 부다피아캠프에 참가하고 싶어요. 잊지못할 추억이 될거예요.

〈미국 시카고 웨스트부룩엘리멘터리스쿨 4〉



쌍둥이 이성규 · 창규

"친구 많아 신났어요"

매년 절에서 실시하는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하다가 이번에 신문을 본 어머니가 부다피아 어린이캠프에 보내주셨어요.

절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많아서 신나요. 특히 신륵사와 목아박물관에서 불교문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울수 있었던 것과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에 간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밥도 집에서 먹는 것처럼 참 맛있었어요.

〈문산 문산초등학교 6〉



장보윤 · 정현주 · 양수임

"내년에도 또 왔으면"

우리절(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스님이 보내주셔서 멀리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다피아 캠프에 왔어요. 설레는 마음에 참가한 캠프가 처음에는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힘들었지만 차츰 적응이 됐어요. 서울말도 많이 배우구요.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 퍼스티벌 월드, 레이저쇼, 장기자랑, 신륵사, 용주사, 목아박물관 모두 모두 잊지 못할거예요. 내년에도 부처님 나라에서 또 만날수 있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관했어요.

〈제주 남광초등5 · 화북초등4 · 부속초등6〉

캠프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이 마음에 있다는 걸 알게 돼
이웃 돕고 부모님 말씀 잘 듣겠어요

○…불교에 대해 내가 모르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년 또 내후년이 되어서도 이 부다피아캠프에 계속 와서 불교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을 것이다. 김태건 〈서울 서교초등학교6〉

○…스님 말씀도 재미있고, 캐리비안베이수영장에서도 신나게 놀았다. 레이져쇼의 광 하는 소리는 무서웠지만 신기했다.

허강록 〈광명시 안서초등학교1〉

○…불교를 믿지만 불교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번 캠프에서 스님들의 말씀을 통해 불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전미화 〈서울 대도초등학교5〉

○…작년보다 올해는 더 새롭고 재미있었다. 조금 힘든 것도 있었지만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내년에도 부다피아캠프를 열면 꼭 다시한번 부처님이 된 친구들을 보고싶다. 박정은 〈경기도 안양시 남초등학교4〉

○…신륵사 주지 세영스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재대로 알지못했던 반야심경도 확실히 알게 됐다.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정말 재미있었다. 박선영 〈서울 마포초등학교4〉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씨랜드 사건때문에 캠프파이어를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

정희정 〈경기도 하남시 동부초등학교6〉

○…부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부다피아 캠프에와서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오승아 〈서울 대현초등학교4〉

○…캐리비안베이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미끄럼틀도 타고…생각만해도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벌써 캠프가 끝나다니 아쉬울 따름이다. 우리가 캠프를 무사히 마칠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과 곰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박정인 〈중평초등학교6〉

○…참 재미있고, 유익한 캠프였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캠프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다. 부다피아 화이팅! 불교화이팅! 부처님화이팅!

연은정 〈중평초등학교6〉

○…부다피아캠프에서 이웃을 도와주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공부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겠다고 느꼈다.

이보성 〈남양주시 금곡초등학교3〉

○… '마음이 보여요' 시간이 너무 좋았다. '마음을 믿어라'는 청거, 혜나스님의 말씀대로 이젠 마음을 믿어야겠다. 시간이없어 와우정사를 다 보지도 못하고 와서 아쉬웠다.

김보겸 〈연촌초등학교4〉

○…목아박물관에 가서 조상들의 뛰어난 건축기술과 그곳 원장님이 만든 여러가지 불상을 보았다. 나무로 여러가지 불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기했다.

김지승 〈안양 평촌초등학교5〉

후원 조계종포교원 · 진각종 통리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신륵사 · 목아불교박물관

협찬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불교조각원 · (재)보덕학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공부하여 기쁨 맛보면 삶은 苦 아니다

생활속에 다가오는 모든 경계 공부재료
꿈과 생시 둘아니니 나쁜꿈도 돌려놓길

'어려울때 본래모습 찾으라' 뜻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큰스님께 인사를 통신으로 올려 부끄럽기 그지없으며,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현대그룹사의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중견간부로서 10여년 넘게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인지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못 따라하는 저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서울 봉은사, 구룡사를 자주 다니면서 심신을 닦으면서 가르침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신행자입니다. 집은 안양 평촌에 이사 온지가 약 8년이 넘고 한마음선원에는 자주 지나다니지만 사실은 10여번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와 처와 함께 자주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마음 요전〉또는 법문하실 때 어려울 때 본래의 모습을 찾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하견 되는지 궁금하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큰스님을 직접 한번 뵙고싶어 나름대로 참석하였지만 번번히 스크린을 통하여 뵙지 실지로 못뵙고… 실례가 안되면 직접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조퇴하고 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찮은 중생의 무례한 청입니다. 안되면 독일가실 때 공항에 가서 뵙는 것이 좋을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옥체 건강하옵시고 해외 잘 다녀오십시오.

답 옛 선지식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없으면 공부하려는 생각이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부딪쳐 오는 경계들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바라지만 그런 고통이 없다면 어찌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오히려 생각으로 더 고통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개구리가 개울을 건너는데 폭이 좁은 개울이라면 멀리 뛸 필요가 없지만, 폭이 넓은 개울이라면 최선을 다해 껑충 뛰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루하루가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이 그날이 그날이라면 얼마나 지루하고 발전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얼마만큼 만족을 느끼고 또 모든 경계를 공부의 재료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 불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열 개를 가졌어도 열한개를 원한다면 불행한거고, 하나를 가졌어도 그 하나에 감사한다면 백개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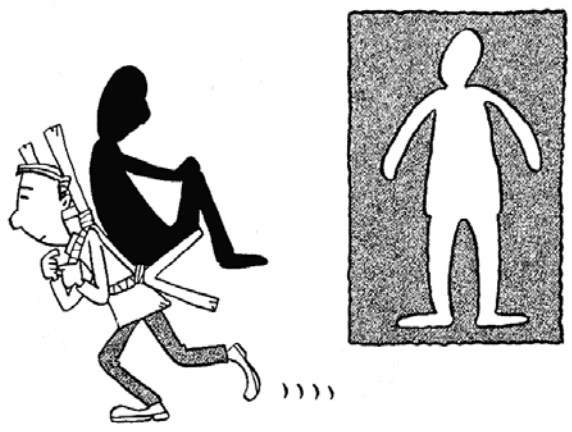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바로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달린거죠. 오히려 어려울 때 믿음이 생기고 불행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에 의해서 공부도

열개를 가졌어도
열한개를 원한다면
불행한 거고
하나를 가졌어도
만족한다면
백개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겁니다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한 생각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겁니다.

꿈에 물려고 덤비던 돼지가…

문 어제는 꿈을 꾸었는데 몸집이 큰 돼지 한 마리와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돼지를 건드리자 화가 난 돼지가 물어 죽이려는 듯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돼지의 주둥이는 특이하게 X자 모양으로 빨이 나 있었는데 저와 아들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주위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어 돼지의 주둥이에 찔러보았지만 여지없이 막대기는 잘려 나가기를 두 차례 했고, 돼지 주인에게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했으나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아들은 튀어 나갔고 저만 막 돼지 입에 물리기 직전 "엄마!, 너와 나는 둘이 아니야!"라고 말하자, 물려고 덤벼들던 돼지주둥이에 어떤 글씨가 보이는가 싶더니 돼지는 사라지고 꿈을 깨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꿈과 큰스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꿈속에 나타났던 돼지, 저, 아들, 막대기 등 일체가 내 속에서 나왔기에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본자리에서는 꿈을 통하여 둘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요. 또한 그 꿈이나 이렇게 큰스님께 드리는 현실도 똑같이 주인공의 나툼이고 둘이 아니기에 이런 꿈과 같은 현실로 나투어 주고 있는 근본자리로 중심이 잡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섰을 때 일체가 평등하게 보인다는 큰스님의 말씀과 같다고 여겨지는데 올바른 생각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큰스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림 · 최주현

답 그것이 우리가 나기 이전에 모르고 살던 습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시에도 자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꿈에도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 모습을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에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모르지만 본처 자리에서는 그냥 다 알고,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나 꿈에 본 모습이나 여러 개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가 화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그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생시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현실 생활에서도 공부를 하게 하지만 꿈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꿈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끄달리는 거예요, 설사 꿈을 나쁘게 꾸었다 해도 좋게 생각하고 돌려놓아야 합니다.

독일법회 잘 회향하시길…

문 큰스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법체 청안하신지요? 도반으로부터 독일에 법문하시러 가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멀고 가깝고가 없다고 하지만, 그 머나먼 곳까지 가셔서 수많은 인연들이 어두움에서 벗어나 밝은 광명의 세계로 나가게 해주심에 더욱 고개가 숙여지고 목이 메입니다. 스님께서 저희들 가까이 계셔서 언제나 든든하고 가슴 가득 행복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신 스승님, 법회 원만히 회향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답 그래요, 여러분도 잘 지내기 바래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구요. 그리고 늘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죠.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걸 안다면 멀고 가깝고도 없고 오늘 내일도 없는 거죠.

이모님이 무당생활 합니다.

문 저의 이모님께서는 무당(무속인)입니다.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시다가 내림굿을 하여 무당이 되셨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도 일년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굿을 하십니다. 저도 굿하는 곳에 많이 참석해 보아서, 이모님께서 힘든 일을 하시고, 이모님의 생활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굿을 하는 게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굿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도록이면 굿을 하지 않고, 불법에, 주인공자리에 밀고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모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여쭙니다.

답 그게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타의에서 오는 영계성, 또 한가지는 자신에서 생기는 영계성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자체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아무개다' 하고 말이 나와서 자기한테 들리죠. 그렇게 하면 아무개인 줄만 알고 거기에다가 정성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무당노릇을 하는 거는, 그건 공부에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죠,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말고 거기 모셔 놓은 영령을 주인공자리에다 흡수시키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본인이 없애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에 흡수해서 둘이 아니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미친 사람과 성한 사람이 둘이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두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하구서 관하는 데다가 흡수한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알고 나면 영가도 그렇게 살 리가 없죠, 살려고 하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은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집이 있습디다, 그건 그냥 뒀어요, 먹고살아야 하니까, 자식들을 키워야 하니까, 그러나 그 자식들이 다 커서, 시집보내고 장가들이고 그럴 때가 되면 문제가 될까봐 그 후에는 스스로 그만두게끔 마음을 내쿴죠, 그리고 어떤 집은 생활도 괜찮은데 자식들한테 누가 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누적이 돼서 윤회가 돼서 다시 돌아서 이 다음에 그 자식들이 애를 낳아도 또 그런 지경이 흐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간 무서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집들은 다 끊으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주위사람들도 이 도리를 공부해 나가면서 서서히 녹여 나간다면 본인은 물론 자손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겁니다.

삶은 苦인데 살아야 하는 이유

문 불경에 삶은 고라고 하는데 그래도 인간은 살아야 할 의미가 있을까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허공에 코드 꽂고 불 들어오길 기다리랴.

해 달라고 하면 벌써 둘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빌어 본들 공덕이 없다. 수만 냥을 내고 불을 켜도 만약 그것이 기복이라면 공덕이 하나도 없고 불을 켠 일도 없다.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을 내가 지어 먹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깡통 들고 다니면서 도와 달라고 해 보았자 채워지지 않는다. 수억겁을 거쳐 이날까지 나를 끌고 온 주인공의 뜻을 배신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답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육신은 의사와 병원에 의지하고, 가난은 남의 도움에 기대어 해결하려 하고, 운명은 사주 관상쟁이에게 묻고,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옷이 날개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이 내 몸이 될 수는 없듯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방책이라도 나 아닌 곳에서 찾은 것은 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자신 속에서 병원을, 의사를, 해결책과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밖으로 돌면 무한한 내면의 해결책을 끌어 내지 못한다. 극락이란 힘겹게 찾아가는 곳이 아니다. 극락이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한다. 부모, 친구, 친척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돈·권력·명예·학벌·젊음 따위를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다. 그러한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할것이고 가령 의사나 약사처럼 벙에 대해서 더 잘 알기도 할 것이나 모름지기 밖의 것들에 의지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이다. 남이 물 한바가지를 줬으면 그 물을 먹는 동안에 또 물을 퍼야 할 텐데 남이 준것만 먹으면 곧 빈 바가지가 된다. 내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떠 먹을 수 있으면 항성 든든하고 당당할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지 항상 배고프다고 애원하며 남의 집 머슴 노릇만 할 것인가.

관세음 보살! 하고 부르면 벌써 밖으로 모시는 마음이 된다. 그러기에 주인공! 하고 안으로 들이대라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시여! 여여하고 원만해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다 비출 수 있고 여여하게 능력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으로 하라.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타력 신앙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광대 무변한 인간의 가능성을, 법신으로서의 부처 이룰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더할 수 없는 고등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저 높은 하늘' 이란 어디쯤인가. 북극성이나 삼태성에 사는 생명체들이 보기에는 지구 쪽이 '저 높은 하늘' 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쪽을 보고 '하늘 높은 곳에 하느님이 계셔서 우주를 지배한다' 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듯이 말이다.

우주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자리 아닌 곳이 없으니 법당에 있으나 변소에 앉아 있으나 내가 그 곳에 있기에 참 나가 같이 있고 부처님도 함께 계신 것이다. 그럼에도 주인공 자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돌면서 '더 좋은 기도처가 없나, 더 좋은 스님은 안계신가.' 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법당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법당 안에 항상 불이 켜 있고 항상 부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다.

허공에 코드를 꽂아 놓고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려느냐? 타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고 하지 않는가. 참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 모른다 하니까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내 몸에 불은 불부터 꺼야 부모의 묵은 빚도 갚고 뿌려놓은 자식들도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리를 공부할 생각은 않고 기복으로 돌아 귀신 놀음이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 자신만 귀신이 되고 말면 좋겠는데 자식들까지 귀신 노릇을 하게 하니 딱한 일이다. 이곳 저곳 장소 따지고 이종교 저 종교 이름 가리고 한다면 전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어떻게 감득할 수 있겠는가. 이 신 저 신 찾다가는 이 신, 저 신, 내 신까지 잃어버린다.

종교란 이름이다.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니 종교를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다. 인간들이 제각각 마음먹기를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일 뿐 하느님이 싸우라고 시킨 것도, 예수가 싸우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부처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알라신이 그렇게 시켰을 리도 없다. 인간들이 그렇게 해 놓고 공연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뿐이다.

협찬 :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신이 변하면 모든대상 다르게 보여

☞ 15면에서 계속

답 이런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뿐만 아니죠.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지금이라고도 생각하지도 마시고 잘 파악해서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훈련대장으로서의 권위가 당당하게 왕의 신임을 받고 무관으로서 조금도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나빠서 권력은 있으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경솔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재산을 많이 뺏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효도를 안하고 형제간에도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서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가려고 길을 지나다가 어느 스님 한 분이 절 지을 돈을 짊어지고는 끙끙하고 올라가는데 도둑들이 덤벼서 스님을 죽이고 그 돈을 뺏을려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스님을 살리고 돈을 되찾아 스님에게 주면서 후미진데 이렇게 혼자 다니시지 말라고 그러고는 말을 타고 다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올라가서 절을 잘 지었죠. 자기 생전에 그거 한 가지밖엔 잘한 게 없어요. 자기가 나중에 늙어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도 그냥이나 놔뒀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죽은 자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돼지들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하는 요 소릴 잘 들어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였다고 해서 원망을 안 했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 그렇고 자기가 무기력하니깐 그렇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렸으면 산돼지로도 되지 않았을텐데, 이건 앙심을 먹곤 그냥 잔뜩 칼을 가니까 산돼지밖에 될 수가 없거든. 한쪽은 그렇게 됐고 한쪽은 독사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아,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오 백년을 지내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라. 또 그냥 그 소굴에 들어가면 업식으로 되어있는 거니까, 촉각이나 시각적으로나 하지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심안의 눈이 있어야 보지. 그러니 이게 독사 뱀이 돌이 사랑을 하는지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흉악한지 독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선 그 속에서 또 낳게 되고, 또 되 뱀이 되고, 죽으면 또 뱀이 되고 잡혀 먹히고 쫓기고 그냥 밟혀 죽이고, 찢겨 죽이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식이 찢겨지면 에미나 에비가 그냥 독을 품고선 쫓아다니고 하다보면 자식은 죽고 이렇게 애를 말리면서 살기를 오백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는 새끼들을 오물조물 낳아 놓고는 다복하게 참 음식을 먹는데, 웬걸 산돼지들이 땅을 파헤치면서 약초 뿌리를 파먹느라고 그냥 막 파헤치는 동안에 그게 모두 벗겨졌단 말야. 그게 원수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를 갈고 짓밟고 죽이고 잘 만났다 하면서 전부 죽이는 거죠. 전부 죽이고 나니까는 이 독사 즉 남편이 자식, 부인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서 떠억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혀! 살 길이 없나 하고 휘적휘적 가다가 이번에는 살모사 굴로 들어갔어요 또. 그게 우연히가 아니죠. 그건 자기가 한 것대로의 길을 받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안에서 다 업식으로 만나서 업보로 인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데 나쁜 데로만 끌고 가는 거죠. 그래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서 참 살모사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장가를 들었어요. 살모사 속에 들어가서는 장가를 들어서 자식들을 낳아놓고 귀엽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롱도 잘 부리고 좋거든. 그런데 어느날 부인이 새끼들을 낳아서 오물조물 그러는데 부인을 새끼들이 다 먹거든…. 먹고 자라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말예요. 자기 부인이 목 줄기의 독을 팍 없애는데 그게 마취나 한가지지. 그것을 딱 빼버리고 드러누워 있으니까 그냥 새끼들이 너도나도 뜯어먹는데, 그렇게 뜯어먹는 광경. 뼉다귀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었는데 뼉다귀는 뼉다귀대로 개미떼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가져가는 광경. 그거를 다 보고 난 뒤에 그 남편은 너무 허무한 거죠.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슬슬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풀섶에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소리를 그 스님께서 들으신거죠. 벌써 오 백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오 백년이 지내도록 그렇게 뱀 생활을 한 거지. 그러니 그 소굴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죠. 이거 그냥 얘기로만 알아들어서는 안돼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뱀뿐이 아녜요. 어떤 것이 쥐새끼로 들어갔다면 쥐새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쥐새끼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스님이 열반을 하셔서 참, 도를 통하시고서 도솔천의 연화장불이 돼가지고 터억 보니까, 아 그 뱀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야. 왜냐하면 그때 살려준 그 고마움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지. 참회를 하고 생에 대해서 이제서야 허무감을 느끼니….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인제 들린 거지.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얼른 들렸을텐데 그 전에는 아주 좋기만 했으니까. 그러니 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공부 공부하지만 공부라는 이름도 쓸데없는 소리같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 애처로운 일들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애처로운 것은 여러분이 산 사람, 산 물질만 봐서 그렇지 물질을 보는 데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어서 그 애처로운 영령들은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당기는 그 마음, 세상에는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길래,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길래,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길래 그렇게들 인연줄이 질기고 질겨서 그 애처로움을 불들고, 그걸 놨으면 좋겠는데 그걸 불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면 삶이 고(苦)지만 마음 공부를 하여 벗어나면 오히려 삶은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공부하면서 변화하는 자신을 느꼈을 때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삶은 고가 아님을 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하여 모든 상대도 달리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일상이 공부재료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 **욕망·집착 아닌 도반으로서 동반자로서 나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을 하세요**

좋아하는 여성문제로 고민

문 이러한 질문을 여기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7세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한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일종의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녀도 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대방보다 너무나 빨리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현하였고 그녀는 저를 부담스러워 하여 현재 서로 당분간 만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한테 자기를 잊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면서 주위에선 그녀가 장녀라서 더 그럴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그녀는 3녀의 장녀이고 저는 1남1녀의 외아들입니다.

그녀를 만나지 않는 기간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공부하였고 그러던 중에 그녀를 생각하는 내 자신이 애욕이며, 그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가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떨치려고도 애를 썼고, 잊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출가하지 않고 사는 이상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의 감정을 싹틔우고 결혼도 하여야 할텐데 일종의 집착이나 애욕이 없으면 어찌 그런 과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제 자신의 지금 감정이 현재 사랑인지 집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녀에게 한번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야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군요. 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두 마음이 동시에 저에게 존재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래요. 두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세상 남녀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얕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욕망이나 집착을 가진 그런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도리를 알고 있다면 더더욱 도반으로서 동반자로서 나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을 하세요. 값싼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대장부다운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맡기고 다가가기 바래요.

믿음이 생기니 당당하고 겸손해집니다

관했더니 뇌종양수술 잘돼

문 언제나 저희와 한마음 한자리하시는 큰스님께 감사 올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저번에 뇌종양 수술을 받은 친구 처남이야기를 올리며 올바르게 관을 하는지 질문을 올렸는데… 수술을 받은 그분이 3주만에 거의 완치되어 오늘 퇴원을 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환자분이 수술 받기 전날 제가 큰스님 법어를 들려주니 무척 감명 깊어 했으며 그 환자분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제 친구도 수술도중과 수술 후 계속 큰스님 법어집을 읽으며 간절히 관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편안히 그리고 간절히 해야하며 매달리는 마음을 놓으라고 배운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신기했고 배운게 많았습니다. 어찌 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모두를 당당하게 했고 겸손하게 했습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내면 세계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것을 너무 감사드리며 어찌 뿌리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답 우리는 모두 따로 따로가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모두가 나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 뿌리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양식으로 하여 더 열심히 정진하세요.

뿌리깊은 죄 의식에 시달려요

문 안녕하십니까? 오래 전부터 '주소'를 메모해 놓고 '편지를 해야지' 하면서도 미루다가 오늘에야 이 글을 씁니다. 굳이 용기를 낼 필요는 못 느꼈지만 실수하지 않고 좋은 인연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심정에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서른 여덟의 나이로 영어의 돋이 된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생의 죄인'이라는 뿌리깊은 죄의식과 고질병적인 자학, 그 생각의 습관과 자학의 쾌락에서 벗어나고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고자 마음먹고 있지만 그 의지는 나약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기도하며 발원해보지만 그 실천의 힘은 너무 미약합니다. 저는 참된 사람으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풍기며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골수에 박힌 죄의식, 평생가도 복 받지 못할 거라는 이 자학의 뿌리를 끊기에는 지금 저의 힘은 너무나 보잘 것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감히 기다리겠습니다.

답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과거에 악이든 선이든 또는 크든 작든, 잘못됐든 잘됐든 살인을 했든 또 남을 살렸든 그 인과가 뭉쳐서 몸에, 지금 몸 속에 들은 그 생명들이 전부 그 의식들입니다. 그 의식들이 뭉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았다고 보는 거지, 그러고 우리가 태어난 거지, 그게 아니었더라면은 태어날 수도 없는 거죠. 엄마 아빠의 뼈를 빌고 살을 빌은 그 몸뚱이의 과거가 모두 인과로 담아져 가지고 내 몸뚱이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한마음으로, 내면의 세계에도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니까 그 한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배인이 돼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 내는 거, 마음 내기 이전 이렇게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그 여러 마음들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럼으로써 세포 하나 하나가 순화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순응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지수화풍이 거기 대두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물이 없이 돌아가며 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어리석다고 볼 수 있겠고,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뜻이 한데 합쳐 우주전체가 삼라만상 대천세계로 두루하시니 그것을 비로 비유하셨어요. 비가 내려서 수증기가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려서 그 깊은 물 속에 모든 물이 한데 합쳐서 수증기로 오르고 내리면서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산천초목도 풀 한 포기도 빼놓지 않고 다 두루 그 물을 주실 때에, 그 물이 저 독사한테 들어가면 독사가 돼버리고 선지식한테 들어가면 선지식이 돼버려.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렇게 똑같건만도 그 물방울을 집어먹는 부분에 의해서 독사의 피가 되고, 선지식의 피가 되고 소의 피가 되고 저 풀 포기의 피가 되고 천차만별로 그렇게 두루 화한단 말입니다. 그 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니와 그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부처님께선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중생들을 건질 때 물방울처럼 빗방울처럼 누구누구를 막론해 놓고 어디든지 적셔 주듯이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게 두루 해서 적셔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강도가 되면 그 칼이 강도가 되는 겁니다. 강도로 써지죠. 근데 그 칼이 말입니다.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좋게 다뤄지는 칼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묶여져서 옴쭉을 못하는 사람의 끈을 잘라주는 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이고 악이고 모두 우리들의 마음에 달린 거지…. 그러고 선이고 악이고 우리들이 행하는데 달려 있지 딴 데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독사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아닌 줄 알고 그 마음을 녹인다면 독은 없어집니다. 깊은 이 뜻을 얼마나 해야만 알아들겠는지는 모르지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성이 수 억겁을 통해서 형성되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진화시켜서 이렇게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이라구요.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모르시죠. 꼭 알아야 돼요. 못났든지 잘났든지 말이에요. 한 생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두 주어진 모습, 주어진 삶음, 주어진 어려움 이런 거를 누구에게 항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몰랐을 때 모두 그렇게 잘못 행한 것이 더 많지 잘 행한 것이 더 많습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정수에 정수봉이 있는데 그 정수봉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라구요.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가 한 것대로 들어가면은 바로 앞서 한 건 없어진다구요. 아주 쉽게 가르치는 얘기죠. 관하면은 거기에 입력되면서 앞서의 입력은 자꾸자꾸 없어지니까 소멸되는 거죠, 어떠한 문제든지. 하다못해 살인을 했다 하더래도 그것이 없어지죠. 왜 없어지냐? 바로 그 당시에, 관하는 그 당시에 살인을 하는 사람을 건져주니깐 그냥 없어지면서 건져지는 거예요. 무명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이 마음공부라는 게 참 위대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다가 되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보림해서 그 어떤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다 바다에 물 흘러 들어가듯이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다 정화가 된다는 거죠. 알고 있죠.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는 걸.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깐 세세히 알고 보면, 그게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오물이나 세균 덩어리 모두 그런 거죠. 그런 거면 정화를 했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 물을 먹고사는 거죠. 나무가 크면 큰 대로 먹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산에 걷다보면 조그마한 떡잎파리 하나가 나와서 나불나불 거리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 생긴 대로 먹어요. 그래서 평등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깐 나는 중생이 돼서 모른다, 나는 지은 죄가 많다, 나는 괴롭다 이렇게만 하고 주저앉았질 말고 나는 더하고 덜함도 없는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고 닥치는 대로 할 것이고 닥치는 대로 걸을 것이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투철하다면 지나가다가 남들도 건질 수 있고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 보면 관해 주어 그냥 그 사람 괜찮아질 거고, 나는 때로는 너무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내버려두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버려 둬도 그 길을 터득을 하게끔 두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너그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공심으로써 공체로써 공용을 하시라 이겁니다. 공용으로 공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사는 게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공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작게 보시면 몸체 속에서도 공생하고 있죠. 그러고 공체죠. 내가 봤다고 내가 혼자 볼 수 있나요? 생명들이 다 뒷받침을 해주니깐 보는 거죠. 한군데만 무너져도 그냥 쓰러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깐 이거는 현재의 일이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에 지금 그렇단 얘기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가는 길에 물러서지 않고 뚜벅뚜벅 갈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 대처해 나가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육체로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걸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데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악성 세균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서 주둔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하게끔 돼있는 게 모두 공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둘 아니게 대처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롭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는 건 각자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걸 알겠죠?

영어의 몸이라고는 하나 그곳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착실하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길 바래요.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을 변화시켜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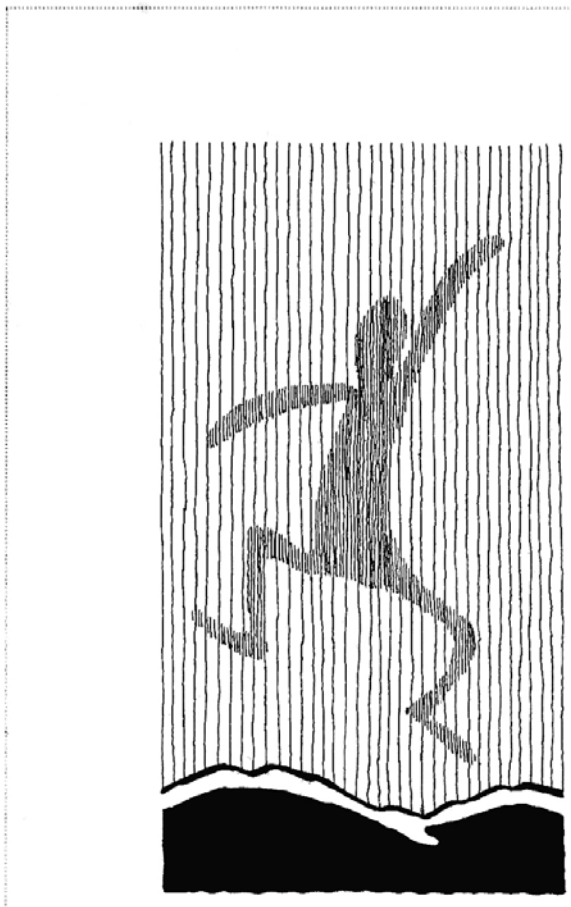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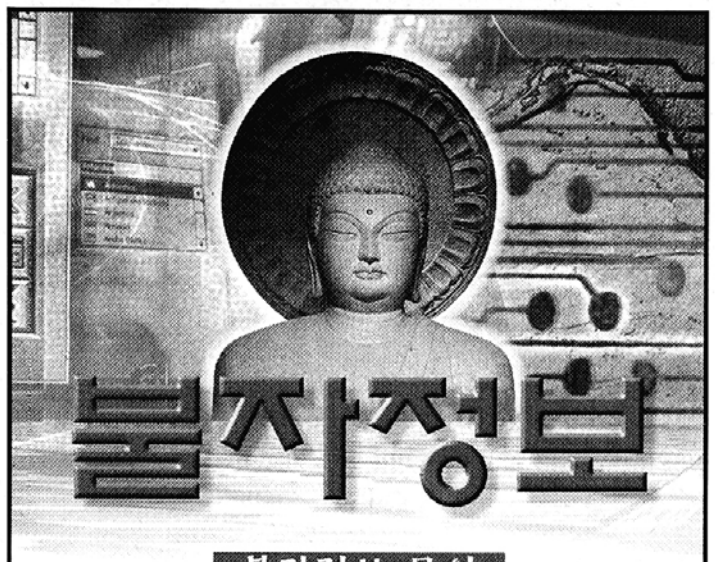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과거 미래에 매이지 말고 자기변화 시키길
상대방 편하고 행복하게 해야 진정한 사랑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갑상선 · 간질
당뇨완치
한국불교태고종 **세운정사**
주지 한진성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
전화 0671)626-4984
팩스 0671)626-4980

강좌

수맥파 (나쁜기운) **차단**
1. 수맥찾기 강좌(신비의 추 L-로드)
2.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종일 온몸이 나른 하신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등.
3. 수맥 차단제 판매
4. 활동 공간의 기 균형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0108

氣明緣起 정신 마음기 연구소
이번에 기명처자 禪 정신 마음기연구소에서는 정신과 마음과 기 그리고 禪과 삶에 대해서 생에 다한 거대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016.753.4459
정신과 마음, 그리고 기, 禪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신 분은
이번에 참석하시어 가차없이 토론에 가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 3만오천원
◆장소 = 추후연락(서울 인사동쪽에서)
◆접속 = 한미은행.108.51471-277 신정미
※ 참가하시는 모든분께 특별한 氣 안수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일시 = 1999. 8月8일 오후 2시 02)897-7731,02)897-7731
토론에 접수하신 분들은 필히 전화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016.754.4459 016.754.4459
일생에서 필요한 禪의 기운과 강한 氣의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氣明緣起禪 정신 마음기
정신적인 고통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生滅,有形,무게부피有
2.견성; 봉래아 볼 수 없는 ?을?이 본다.
3.?을 보아 병과 운명을 고친다.
4.만성난치병/금연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구인

구 직
50대 독신입니다.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또는
야간 경비직으로 처사겸
일하고 싶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대형면허이
며 지방 사찰도 좋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찰은 저렴
한 보시로 봉사하겠습니다.
0351)826-1152
주간에 전화 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요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0417)554-7986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1)
9715-4366

신심있고 솜씨가 좋은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숙식가능한 보살님
◆나이: 50세 전후
032)
348-6603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한국불교 태고종 귀중
◇사찰명 : **천불암**
◇주 지 : **이전희**(법명 이지환)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숙곡리 605-2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7. 26.

탈 종 공 고
선 학 원 귀중
◇사찰명 : **청강사**
◇주 지 : **혜 광**
◇소재지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7.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 / 011)381-8157

전통 불교 의식 모집
관음시식 도량게
복청게 초게향
◆교육기간 ◆
3개월(개인지도 가능)
0351)865-4893
011)661-9119

· 기운보강 · 스트레스해소 · 노화방지
· 면역성강화 · 질병예방 · 순환기장애에…
대체역학적 자연치유!
난치병 치료에 신비!
옥
玉山家®
(02)777-0105

귄 달마스님
◆사주: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출세 문자 비법
◆관상: 빈부 귀천 학당
◆풍수: 자손 창성 번영
◆부적: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02)999-4804
051)418-4804 **달마사**

사람을 찾습니다

◆ 성명: 윤정숙(윤정림) ◆
주민번호:500215-2042419
강남구 도곡동 934-10 역삼우성아파트 2동 705호
42세가량으로 보이며 키는 163cm,
체중 60kg,충청도 말씨,얼굴 갸름한편
현재 공양주로 있을 것으로 예상
윤정숙씨 아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사례금: 3백만원)
011)217-7468
(주 02-521-6587/ 야 02-3463-5770)

달·마·보·급·처
0346)575-2323

수맥차단
차량운행
이사,삼재
3회의 물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달마 가훈 보급 선양회
죽림사 무불스님 작품

수맥차단
삼재소멸
소원성취
◆입금처 :
주택은행
572802-01
-054659
예금주 박석구
051)361-6662

간 병 신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불심깊은 불자간병인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전 화 : 02)363-7884
팩 스 :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귄 알림 귄
철학관 수강생
모집
과목: **육효점, 평생사주,**
일년신수, 궁합 기타
▶적중 100% - 전과목 3주완성
02)962-9871
자비원 석산

사찰불사 후원하실 분
불사에 직접 참여하실 단체 · 개인
증고 포크레인, 건축자재, 배
- 기증이나 후원하실 분 -
(강수위관계로 필히 문의)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각동리
불교요양원 다불원
0373)372-1930
018)305-7661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1,500평(국유지)
◇요사 : 20평 ◇법당 : 20평
◇가액 : 1억 2천만원(급매)
◇가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약740평, 임야250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 입식미륵불, 해수관음상
◆ 특징:주차장 및 조경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대작불사에 적합한 포교 및 기도도량입니다.
※ **포교당(안산시 주택가)** ※
40평(관세음,지장) 방2개 및 주방(현대식시설)
가액 5,000(질충가능, 시설권리 없음)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도 영월군** ◆대지 : 700평
◆법당 : 40평(후불,칠성,신중탱화)/ 주지실
◆요사 : 방7칸 / 산신각
◆가액 : 1억 5천만원
※전국에 소재한 사찰, 포교원, 사찰부지 급히 구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성실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찰을 양도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즉시 좋은인연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남 남해 봉화리**
◆부지 7필지, 대지 및 임야 준농림
약 4만 5천평, 주택 2동 ,
현재 유실수 농장임.
◆특징: 경관수려, 약수有, 사찰
수련원 및 실버타운, 납골당 .
절터 최적지임.
◆가격: 11억 2천만원
011)551-3535
0591)758-7370

연수원 및 사찰부지(급)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특징 : 홍천강 유원지 및
대명리조트 10분거리
서울에서 40분거리, 숲속의 분지
약2500평(토목공사완료)
◆가액 : 2억5천만원
한라공인중개사 0343)386-6444
016)212-0988

사 찰 안 내
◇위치: 서울
◇법당: 25평 ◇요사: 10평
◇부지: 500평
◇가액: 3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무한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
◆평수 : 약 2500평
◆특징 : 고성읍서 10분거리,
약사전 법당안에 석간수가 흐르며
약수물 유명, 경관수려, 불사에
필요조건 구비, 주차장 완비
◆가액 : 4억 (절충가능)
0556)674-7598/0556)674-0392

사찰 안내
◆ 군산월명공원내
◆ 법당 20평
◆ 요사채 38평
◆ 최저가 가격절충
◆ 급한사정으로 전세가함
062)224-2851
011)633-2851

사찰 안내
◆ 위치:**경기 이천 장호원**
(서울대 약 1시간대)
◆대지 약 437평,대광전 27평(사무실 포함), 법전 요사 15평, 요사 43평
◆가액 : **답사후 가격절충**
(급한 사정으로 양도함)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도면 열람가(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서울50분대),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연수원등 타로도 적합
0336)643-9051/012)925-6118

사찰 안내
◆위치 : **경기 파주**
◆대지 273평,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방6, 주방3, 욕실3,
화장실3, 주차장 완비
◆특징: 산세좋고 물좋고 기도도량
으로 좋습니다.(운영하실스님께 양도)
◆가격: 4억 2천(답사후 결정)
0348)952-7905

사찰부지 안내
곤지암 근처 사찰명당
◆위치 : 경기 광주 태화산 입구
◆부지 1500평(토목공사완료)
◆서울에서 40분거리, 교통편리,
태화산 입구, 산세가 좋고
계곡물이 좋은 수양도량
032)466-4867/011)9775-4867

사찰(급)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대지 65평, 임법당, 건평 100평
(위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가격: 3억 5천만원
◆특징: 주차시설 완비, 전철역에서
2분거리, 주위에 아파트 5천세대
10월 입주-포교당으로 손색이 없음.
02)3391-4845/02)3391-4848
011)752-484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
◆ 스님 이민 관계로 급히 양도
◆ 신도 다수, 비구니스님 환영,
도심지의 유일한 암자
◆가액 : 권리금 4천만원
(보증금 없음)
011)245-5467

연수원 및 사찰부지
◆위치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곡리 산 69-2
◆면적 : 28,000평
(0336)632-5973
(0547)439-0942
※오후 8시 이후통화가능

토굴 암자
◆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덕유산자락 산골짜기 마을 맨끝
◆평수 : 250평, 황토방 4평 1,
임법당 겸 요사채 1, 종교용지
로 등록(종교행사에 용이)
◆황토방-불떼면 3일간 따뜻 .
몸 불편하신분께 좋습니다.
◆시설완벽
◆가액 : 약 5천만원(절충가능)
011)842-3525

포교당 안내
◆위치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 종합상가앞
◆평수 : 80평(삼존불, 신중단,
영단, 인등, 방4개, 공양간,
수세식 세면장)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천
◆특징 : 입주 즉시법회가능하며, 상가
및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포교최적지임.
0331)236-3169

사찰 안내
◆위치 : **공주시 (마곡사 근처)**
◆대지 200평, 요사채 40평,
법당 17평, 조경시설 완비
◆특징: 교통편리,주위에 전원주택
터미널에서 7분거리
◆가격: 9천 5백만원
0416)841-4780

사찰 및 실버타운 부지
◆위치 : 밀양시
◆면적 : 1.준농림 1만8천평
2.대지 1천평 상대농지 8천평
◆특기 : 4차선 도로확장 및 시외버스
정류소 개설, 전원 주택지 적합
0527)351-1008
011)596-5028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 7층 석탑에 관해 관심 있는 분
문의(스님에 한함)

절터 안내
◆위치 : 경북 김천시 감문면
송북2리 85번지
◆대지 437평, 건평 237평(가옥1채)
0547)439-0942
0547)430-0049
※ 절터로 최적지임

사 찰 안 내
◆ 위치 : 포천군 소재
◆ 부지 600평, 법당 25평,
요사채 90평
◆산세 좋음.
◆가액 : 답사후 절충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근교
◆부지 500평, 법당 12평,
요사채 30평
◆가액 : 답사후 절충
02)561-7791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이문동 대로변2층 40평**
◆방4, 입법당
◆가격: 보증금 500만원-55만원
(이런 싼곳은 없슴)
◆무속인, 철학 기타
자비원 02)962-9871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 1리 75번지
◆준농림지 : 1,800평 (대지200평)
◆건물 : 25평
◆가액 : 1억
0564)733-5366
011)655-3883

사찰 안내
◆위치: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등기필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옆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 011)671-5161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 011)885-2876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생활 이르면 연말부터 결혼식·회갑연·상가(喪家) 등에서도 종이컵·나무젓가락 등 1회용 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재래시장을 비롯한 매장면적 10평 미만의 모든 업소와 약국·서점도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공짜로 나눠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추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수도요금 최고 10.8% 오를듯

9월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이 지역에 따라 최고 10.8%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t당 1백16원인 광역상수도 요금을 1백52원으로 31%, 댐용수는 t당 16원에서 22원으로 40%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t당 1백73원에서 1백92원으로 10.8%, 경기 10.4%, 서울 3.8%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휴가철 착신전환 서비스

통신 휴가를 떠나 집을 비운 사이에도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착신통화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번없이 먼저 100을 눌러 특수서비스를 접수한 후 사용 때 '*+88+착신희망번호+#'를 순서대로 눌러주면 된다.

전화 한통화로 창업정보

창업 전화로 창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700 전화서비스'가 개설됐다. 이 서비스는 12일부터 실시됐으며, '700-3304'(미래유통정보연구소)로 걸면 총 8개 항목으로 창업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 정보는 최신 국내외 창업속보를 비롯해 창업적성검사, 국내 유망업종 소개, 자금규모별 소개, 창업강좌 소개 등이다.

고졸인턴사원 지원연령 확대

취업 노동부는 최근 지금까지 실업계고 또는 일반계고 작업과정 졸업자(18~19세)만 지원할 수 있었던 고졸 인턴사원 지원자격을 '만 24세 이하의 고졸학력 소지자'로 확대했다. 인턴사원 희망고졸자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는 노동부 고학력대책팀 (02)500-5646

20분전까지 요금 전액 환불

영화 앞으로 영화표를 산 사람들은 상영 시작 20분전에는 요금 전액을, 그 이후부터 상영 시작전까지는 절반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말 영화관람 표준약관 승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보급키로 했다.

'신창원 신드롬' 사회부패 반증

뇌물·부조리·추태 등 지배층에 대한 반발 '연민의 정' 까지 보여

'신창원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개월의 탈주기간중 숨겨있던 '비밀과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 없다. 연일 계속된 신창원의 범죄행각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내심으로 탄성을 지르고 통쾌감과 동시에 연민의 정까지 나타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신창원의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신창원 신드롬은 사람들이 그의 범죄행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비리, 모순, 추태 등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PC통신에 '신창원 동호회'가 생기고 중학교 1학년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신창원은 좋은 사람이며, 검거돼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것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이에 대해 박찬웅교수(동국대 사회학)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느껴온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지배층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며 "신창원 신드롬은 우리 사회의 계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창원의 범죄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층이 그만큼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병리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사회학자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는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지배규정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그가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아원을 돕는 등 착한 일을 하는 자신의 또다른 모습과 불우했던 과거로 세인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이해와 동정심을 유도했다. 결국 그는 '범죄스타' 의식을 갖고 사회문제를 내세워 자기합리화를 꾀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심교수는 "신창원 신드롬을 극복하는 길은 사회병리현상을 제거하는 진정한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박납진 원장(익산신경정신과)은 정신과 전문의답게 신창원의 행각을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영웅심리'의 표현으로 분석했다. 박원장은 "신창원의 일기장에 나타난 '전쟁선포'와 같은 말은 자신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응징함으로써 자신을 '영웅'으로 포장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는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동정을 받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과대망상은 영웅심리로 발전하고 그 영웅심리는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세 전문가 모두는 '신창원 신드롬'이 우리 사회가 부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회병폐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신창원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그린벨트 해제반대 서명 7월 2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27개 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회원들이 시민들로부터 그린벨트 해제반대를 위한 가두서명을 받고 있다.

해마다 카드로 버리는 돈 60억

해마다 버려지는 카드를 돈으로 환산하면 60억원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현재 국내에 유통중인 신용카드는 대략 4천3백만장에 달한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추산. 국민 1명당 1개꼴로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 한해 동안 새로 찍혀 나온 카드 수만도 무려 700여만장. 하지만 이중 30~40%는 6개월 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로 분류된다. 해마다 최소 200만장의 카드가 버려지거나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카드 1장을 제작하는 데 드는 원가는 300원 가량. 여기에 식별번호 등을 넣는 오퍼레이팅 비용과 인건비, 발송비 등을 포함하면 2,500~3,000원에 달한다. 결국 매년 60억원이 버려진다는 얘기다.

고객들도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카드업체와 제휴은행의 과다한 고객유치 경쟁이 사실상 주된 원인이다.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지금, 돈 아껴 저축하라고 권장하는 은행들부터 스스로 절약의 정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회원 7천만명의 중국 법륜공 邪敎인가 수련단체인가

최근 정부당국으로부터 '불교에 부속된 사교(附佛邪敎)' 또는 '민간사교'라는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의 법륜공(法輪攻)은 실제로 부불사교인가.

법륜공은 기공수련의 한 단체로 현재 약 7천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륜공은 지난 4월 한 잡지가 법륜공 수련으로 정신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군중을 무력으로 해산시킨 중국당국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당국은 법륜공을 사교로 규정하고 엄중 감시에 나섰고, 법륜공의 지도자인 이홍지는 "불공정한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법륜공은 불교용어인 법륜과 전법륜 등을 말하고 가부좌를 한 수행법 등이 '부불사교'라는 비난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홍지는 "법륜공은 종교가 아니다. 심성을 닦는 수련단체일 뿐이다"라며 다른 기공단체와 마찬가지의 정당한 대접을 촉구하고 있다.

시론

녹색이 주는 혜택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력한 개발독재 정권 아래서 80년대 초반까지 그린벨트는 감히 입에 오르내릴수 없는 성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린벨트의 경계선은 이웃을 나누고 심지어 대지 한가운데를 지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냉가슴만 앓아야 했을 뿐 변변한 말한마디 할 수 없었다.

이 금기의 그린벨트제도는 서울지역의 팽창을 막기위해 71년 박정희 정부가 영국의 그린벨트와 일본의 근교지대제를 본따 처음으로 공식 지정한데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총 여덟차례에 걸쳐 전국의 5.4%에 이르는 14개 권역을 그린벨트로 편입시켰다.

지난 28년간 지정된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둘로 나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장점과 거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골자다. 이런 쟁점을 뒤로 하고 정부는 급박하게 7월 22일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은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제한다. 춘천-진주권은 해제하되, 한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체지정할 예정이며 이 해제권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환경평가를 거쳐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경우는 그린벨트제도가 존속되지만, 부분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기준은 역시 지자체의 환경평가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 "그린벨트 해제 무책임한 선택 환경파괴 불보듯"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서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누릴 혜택을 현세대가 환경파괴로 없애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환경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상수원을 끼고 있는 춘천-진주-전주권으로 각각 팔당호와 낙동강 수계를 오염시키고, 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한 통영의 경우는 국립공원의 파괴가 당연하리라는 점이다. 또 일부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 주민에 대해서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거주민에 대한 재산권보호는 그린벨트해제가 아닌 보상이나 다른 측면에서 해결하는게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7월 22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정해진 후에도 그린벨트 제도를 둘러싼 위의 공방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은 이런 첨예한 대립의 양 끝에 '정부 Vs 주민+환경단체'가 있는게 아니라 정부가 슬쩍 빠지고 '주민 Vs 환경단체'가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그린벨트 문제는 자칫 잘못 보면, 구역내 주민과 환경단체 사이의 논란쯤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커진 이유는, 28년동안 정부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데 있다는 점이다. 28년간 쌓일대로 쌓인 주민의 분노는 '재산권보호'를 위한 정부조치를 요구하기보다 '그린벨트전면해제'라는 보다 강경한 요구를 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로서는 28년간 커진 주민의 요구를 감당하기에 벅찼고 결국 '그린벨트 해제'라는 가장 무책임한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으리라. 정부의 무책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2일 발표한 해제안에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권역과 기준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환경평가'라는 미명하에 지자체에 슬쩍 넘기고 만다. 이는 해제에 따른 대규모 민원과 위험부담을 정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표를 의식한 일선 지자체가 주민들의 해제압력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넓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합동조사의 공개 제안을 환영하며

조계사 전임 재산관리인 진병열(법명 : 현근)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횡령한 금액이 253억원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금액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의 장부와 조계사 명의 및 한 명의 (조계사 공용으로 사용된) 조계사 신용협동조합 통장 거래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횡령 금액은 조계사 명의와 위 개인 통장에서 거래된 시중은행 거래내역과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원천 횡령한 금액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3년이 아니라 전 재산관리인 진병열이 재임한 기간인 12년의 재산관리내역을 조사하면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 횡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횡령금액을 확정한 근거는 전 소임자들이 작성한 장부와 거래한 통장, 여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전임소임자나 그 누가 와서 확인하고자 해도 공개할 것이다.

불기 2543(1999)년 7월 29일 전 조계사 총무 (박정균, 법명 : 선광 또는 적설)가 교계 기자들을 초청해서 전 조계사 재산관리인을 비롯한 14명을 형사고소한 내용이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수용한다.

조계사 전임 재산관리인 진병열의 횡령금액 합동조사 제안

1. 기 간 : 불기 2543년 8월 5일 ~ 9월 5일
2.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3. 장 소 : 조계사 종무소 내 회의실
4. 참여자 : 중앙종회 의원 2명, 총무원 집행부 2명, 전 현직 재산관리인, 총무, 재무, 경리책임자, 양측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도회 회장, 관음회 회장, 대승불자회 회장, 반야회 회장, 청년회 회장, 교계 기자, 일반기자 등

※ 소요경비는 조계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재산관리인 지 홍

낙태영가를 천도해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중에 가장 큰 죄가
자식이 부모를 죽인죄이며
그 다음은 태아를 유산시켜 죽인 죄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생명을 죽이고도
참회하지 않고 태아영가들의 원한을
모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지장재일마다 그 어린 생명의 혼을 해탈시켜 드립니다.
낙태영가의 원한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자식을 방황케 하며 부부를 이혼시킬 정도로 무섭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상영가 열명보다 수자영가 한명이 생활속에 더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세요.
유산했거나 태어나서 죽은 아기의 영혼을 함께 천도해 드립니다.

◆ 비용 : 영가 1위당 3만원(부처님전에 올리는 공양과 옷, 우유, 과자등을 포함)
(본인의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을 동봉할 것. 집안식구의 인적사항을 동봉해도 무방함)
◆ 일시 : 매월 지장재일(음력 18일)
◆ 연락처 및 온라인번호 (053)957-9551, 011-398-9807 성불사, 법장스님

축 협	613-72-14831-417	예금주 : 장봉임
제일은행	153-20-227927	

대구시 동구 신암4동 648-5

광명수자 성불사, 주지 법장 합장

교계 청소년 대상 '여름방학 강좌'
컴퓨터 · 어학 · 국악 · 영화등 다채

"골라…골라…배우세요"

여름방학이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위와 일상에 지쳐 의미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소년불자들이 남은 방학기간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교 청소년·복지시설의 문을 두드려보자. 교계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청소년들의 등참을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 영어연극, 댄스, 국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흥미는 물론 실력까지 쑥쑥 자랄 것이다.

목동종합청소년회관은 컴퓨터홈페이지제작, 만화그리기, 컴퓨터애니메이션, 자기표현연극교실, 테마신문만들기, 뮤지컬 영어연극, 폐품활용공작교실 등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을 21일까지 실시한다. (02)646-6815

양정청소년회관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컴퓨터, 만화그리기, 힙합댄스, 스포츠댄스, 영화제작 등 정보취미교양강좌를 열고 (051)868-0750,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서도 영어교실, 국악교실, 장구교실, 수지침교실 등을 진행한다. (051)405-5223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논술, 글쓰기, 동화구연, 단소교실, 영어 수학을 지도하는 매미학교를 열고 있으며 (042)633-1141,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박물관기행, 바둑, 어린이영어, 동화구연, 영화상영 등의 방학특강교실을 준비했다. (02)817-8052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학습보조교실, 어린이시사토론반, 영어, 독서, 일기, 한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02)571-2988, 구로종합사회복지관도 유레카과학교실, 동화구연교실, 아동컴퓨터교실, 꾸러기영어교실 등과 중고생을 위한 영어수학 집중복습 계절특강을 20일까지 실시한다. (02)852-0525

덕유사회복지관은 중3학생과 고1학생을 위한 수학 영어 교실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며(032)325-2161, 삼전방과후어린이집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흐트러지기 쉬운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해 매일 오전 8시30분~1시까지 집단활동을 실시한다. (02)421-6077

부산불교교육원은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학습능률과 창의력을 키우는 여름방학 청소년참선교실을 연다. 초등학생은 오전 10시, 중고생을 오후 5시에 실시한다. (051)466- 4080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한 자기표현 훈련프로그램을 매주 월,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실직가정과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여름학교를 준비했다. 25일까지 매일 오전 9시~ 오후 1시 학습지도, 영화상영,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과 중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02)2282-1108

한편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만 4세~13세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신변처리와 학습지도,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여름계절학교를 21일까지 연다. (0443)652-0900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교계 청소년 복지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자.

명사들의 건강비결 ⑫



이 외 윤 〈불교교화원 총재〉

"육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건강의 원천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매일 아침 새벽예불과 운동을 한다는 이외윤 한국불교교화원 총재(78). 이총재는 삼보를 예경하는 새벽예불을 매일 봉행함으로써 불자의 예를 다함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에너지를 축적하고, 육체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기력이 소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기체조를 한다고 밝혔다.

13살 때 사찰생활을 하면서 시작한 새벽예불을 78세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또 12년전 부터는 새벽예불을 마치고 집 근처인 양천공원에서 매일 실시

66년째 새벽예불…아침체조도
"한가하면 병든다" 바쁘게 살아

되는 조기체조회에 나가 운동을 한다. 1시간 정도 하는 조기체조는 지엽적인 건강법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이 총재는 설명한다. 사실 이 총재의 가계는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은 아니었다. 이 총재도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나 새벽예불과 체조를 거르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감기나 몸살조차 피해가는지 앓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 총재의 새벽일과는 몸과 정신의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질서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하루라도 거르면 조화가 깨지고 기운이 탁해져서 모든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 총재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에 비해 건강한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삶'이다.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는 젊은 사람 못지 않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으로 가득차 있다. 이 총재가 몸담고 있는 단체만도 한국불교단체연합회, 한국불교교화원, 대한노인회, 한경장학회, 한국평생교육기구 등 열 손가락으로 셀수 없을 정도. 이같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숙면과 소화 등 여러측면에서 건강을 지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바쁘게 살자'는 것이 신조가 되었다.

"한가하면 몸도 마음도 나태해져 병이 들기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예방의학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이 총재만의 건강비결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심성 좋은 아이 가지려면 이렇게
btn '좋은인연, …' 태교일기등 모범사례 소개

인간의 탄생을 업력소생에서 원력소생으로 바꾸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 해답을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마련된 불교TV의 태교 프로그램 '좋은 인연, 좋은 아이'(담당PD 최정란)가 임산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전9시30분부터 30분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는 불교식 태교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석성우스님(대구 파계사주지)이 출연해 태교의 목적부터 육아법에 이르기까지 태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불교 사상과 연관시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또 임신 12주를 맞은 임산부의 실제 생활을 카메라에 생동감 있게 담은 '수경씨의 태교 일기' 코너와 태교의 모범 사례와 경험담을 소개한 '나의 태교이야기'도 이 프로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불교태교법을 설명하는 석성우스님.

이 프로에서는 앞으로 △아이에게 들려주는 좋은 염불 △차(茶)와 태교 △육바라밀 태교법 △부처님의 육아법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경산심인당에서 개최된 진각스카우트 발대식.

진각스카우트 창단
품성 기르고 청소년포교

대한불교 진각종 경산심인당(주교 증광)이 청소년 진각스카우트를 조직, 21일 정식으로 창단했다. 청소년불자들의 품성향상과 체력단련을 위해 결성된 진각스카우트는 이날 창단식에 이어 23일까지 경북 울진의 한국보이스카우트 야영장에서 제1회 야영대회를 개최했다.

유년대, 소년대, 연장대 등 총 87명의 대원과 지도자가 참석한 야영대회에서 청소년불자들은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르며 심신이 건강한 불자청소년 대원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경산심인당은 앞으로 진각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봉사정신과 불심이 깊은 청소년을 교화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진행해온 청소년 자성학교 운영등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음으로써 청소년포교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창단식에는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일심행신도회장, 한국보이스카우트 경북연맹 오규화 국장 등이 참석해 진각스카우트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은자 기자

어린이집 교사 수련회
31~2일 하동 쌍계사서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회장 정인스님)가 주최하는 제26회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수련회가 7월 31일~2일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300여명이 참석, '유아과학교육' '대화기법' '교육사례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토지불사의 대원력을 횡령으로 몰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 조계사 운영에는 한 점 의혹도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옛말에 '적반하장(賊反荷杖)'도 분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계사 사부대중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해 12.23법난에 의해 6천여 경찰병력이 신성한 도량을 유린했을 때, 소위 금강호법단이라는 깡패 승려들이 주지 현근스님을 사경에 이를 정도로 집단폭행하고 일체의 조계사 서류를 강탈해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계사 사부대중은 폭력경찰의 비호를 받는 깡패 승려들의 위세에 눌려 그저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경찰에 게갑이 끌려가거나 도량 밖으로 내팽겨쳐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근스님은 그날 사건으로 뇌를 다쳐 사경을 헤맸고, 도피가 아니라 치료를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당시 집단폭행을 목격한 경찰은 폭행범들에 대한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계사를 강점하고, 강탈한 사람들이 이제 6개월이나 지나서 주지 현근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14명을 무려 2백5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황당한 죄를 뒤집어 씌우며, 검찰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강탈해 간 서류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며, 백보를 양보해 설령 장부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 해도 검찰의 수사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개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언론에 '마녀사냥'식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련장부가 모두 강탈당한 상황 아래서 수백억에 이르는 그동안의 조계사 재무구조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임자들의 기억과 증언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저들 주장의 허구성과 악랄한 저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1. 조계사는 지난 11년간 무려 3천여평에 이르는 대규모 토지매입불사를 진행해 왔고, 그 금액만도 약 2백80억원대에 이르며, 저들이 제시한 금액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홍을 비롯해 현재 조계사를 강점하고 있는 세력들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11년간 조계사가 매입한 부동산 총액이 2백49억여원이며, 96년부터 98년까지 매입금액은 1백22억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이후의 정확한 매입금액만 1백61억3천여만원으로 무려 4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며, 11년간 매입금액을 산정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들은 조계사에서 마치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 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심지어는 끈질긴 협상을 통해 매도호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저들은 11억 1천여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10억여만원으로, 그나마도 보현의 집과 어린이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각 1억5천만원과 2천만원이 지출되어 8억7천여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96년 이전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수입발생 시점이 96년 이전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자세한 96년 이후 부동산 매입가격과 전세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96년 이후 부동산 매입금액

병원건물 2동 (현 교육원 건물)	27억원
공인회계사 회관(현 포교원 건물)	31억5천만원
교육원 앞 주차장	36억원
구 제일승복	2억 7천만원
총무원 극장 숙소	2억 4천만원
성종사 건물	27억원
생명나눔실천회 건물	18억5천만원
국유지 불하	7억원
삼운중심 건물 낙찰 보증금	1억2천만원
수송빌딩(계약금, 중도금)	4억원
방앗간 가건물 및 관음회 등 사무실 토지	4억원
총 계	1백61억3천만원

(※제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기타비용은 산정하지 않았음.)

※전세보증금 내역

초 향	3억원	유 정	1억5천만원
성총사	1억원	만 포	5천만원
만 화	5천만원	이발소	1천5백만원
조계사 신협	3억원	도장집	3백만원
가 게	1천만원	미용원	1천만원
사회복지재단	3천만원	출판사	3천만원

2. 현대건설에서 받은 보상금 41억원은 한점의 거짓도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저들은 정말 터무니 없게도 조계사 사부대중이 온 몸을 던져 싸운 끝에 조계사 대웅전을 지키고,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41억원의 보상금을 전액 횡령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어떻게 고령의 노보살들이 실신을 해가면서까지 싸워서 받아낸 보상금을 횡령할 수 있을 것이며, 조계사 사부대중이 그토록 피나게 투쟁하고 있을 때 총무원에서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도움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의 보상금은 4회로 분납해 입금되었고, 현금이 아닌 1개월 약정의 어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될 수 없고, 입금되는 즉시 교육원앞 주차장 부지 매입비 36억원과 교육원 건물 계약금 등으로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3. 농협 대출금 50억원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차용이었으며, 전액이 투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98년 10월 농협 종로지점에서 대출받은 50억원은 IMF사태로 인해 은행과 사채이자가 급등함에 따라 날로 늘어가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하나은행 대출금 10억원의 이자는 무려 18.3%에 달했으며, 그나마 은행권에서의 신규대출도 불가능해 할 수 없이 토지매입을 위해 고금리의 각종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계사에서는 하나은행 대출금 및 사채상환 목적으로 총무원의 기채승인을 받아 14.5%의 농협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덧붙여 이전의 사채들도 모두 총무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정체불명의 사채'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50억원의 대출금은 일단 하나은행 대출금 상환 10억원과 사채 상환 24억원 등 34억원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6억원은 삼운중심 매입대금 10억원과 수송빌딩 잔금 6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조계사 신협에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종단 사태로 정화개혁회의의 요구에 따라 분담금으로 8억여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8억원은 현재 조계사를 강점한 자들이 가져간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조계사의 순부채는 50억원의 대출금 중 34억원과 전세보증금 8억여원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4. 사중운영과 각종 불사는 모두 총무원과 종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 왔으며, 한 점 의혹의 여지도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현재 조계사를 강점하고 있는 세력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불전과 기도비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 무려 1백80%가 증가했다고 주장해, 마치 이전에는 불전과 기도비 운영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IMF사태로 인해 불전과 기도비 등 사중수입이 급감한 시기였음을 강조하고자 하며, 백번 양보해 그들의 주장을 믿고자 해도 오히려 부처님 오신 날 수입은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7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11년간 사중운영을 함에 있어서 직영사찰법 및 직영사찰운영 관리규정에 의하여 매월말 총무원에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또한 동법에 의하여 총무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종회와 총무원의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각종 토지매입 불사시에는 사전에 가격결정부터 계약시까지 반드시 총무원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불사를 진행해 왔고, 은행대출과 사채차용시에도 반드시 총무원의 입회하에 불사를 진행해 왔고, 은행대출과 사채차용시에도 반드시 총무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만불전 불사는 신도 여러분의 염원에 따라 착실히 진행돼 왔고, 불사 보시금은 모두 목적용도에 사용됐거나, 잉여자금은 토지매입불사에 사용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들은 지난 92년부터 벌여온 만불전 불사 보시금이 마치 유용된 것인양 매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만불전의 부처님은 민한식씨에 의해 이미 1만5천6백기가 조성돼 있으며, 건축에 필요한 목재도 모두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래는 정화회관을 철거한 자리에 바로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총무원 청사 건립등 조계사 종합 성역화 계획에 따라 입지선정을 위해 착공을 미루고 있었을 뿐 공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온 바 있습니다. 더불어 남아있던 불사금은 전액 토지매입불사에 사용됐음도 알려드립니다.

사실 일일이 변명을 하고, 대응을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우리는 인내를 갖고 참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계사를 중흥시키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왔던 사부대중을 한낱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보다는 양측이 공동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진상조사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실제로 지홍은 지난 3월 열린 종회발언을 통해 "2천만원을 주고 공인회계사를 통해 2달간 장부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뚜렷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것인가는 조사를 하면 당연히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난 4년간 총무원장을 맡으며 갖은 비리를 저지른 월주스님이 아직도 당당히 '상왕'을 자처하며, 종단을 주무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계사 사부대중과 이천만 불자 여러분!

지난 11년간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사를 성역화 하고자 그 누구도 엄두내지 못했던 대작불사를 일구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날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노력들을 이렇게 간악하게 매도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불사의 원력을 내고, 어떤 신도가 보시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간교한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과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불기 2543년 7월 28일

조계사 前소임자 일동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http://mall.buddhapia.co.kr)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부다피아 쇼핑몰 신정 여름 기획 상품 특판전

부다피아 티셔츠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범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나팔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7,000

100장 이상 주문시 로고인쇄,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경의 경전 · 스님 요사채 · 불자등의 경전읽기 · 자녀등의 학습

- 크기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ASH(느릅나무)완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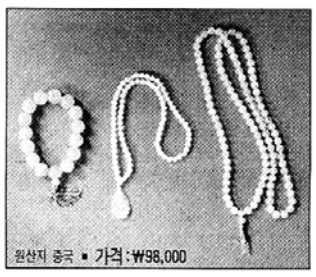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첫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70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젊은 수험을 허더리도 최고의 희망을 하고 싶은 수험생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경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걸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걸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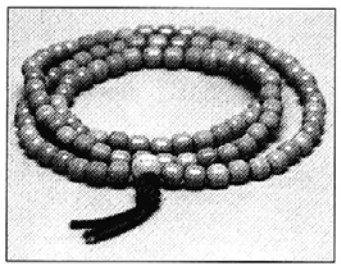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원산지 중국 ▪ 가격:₩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은 23000여년전 부터 내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패'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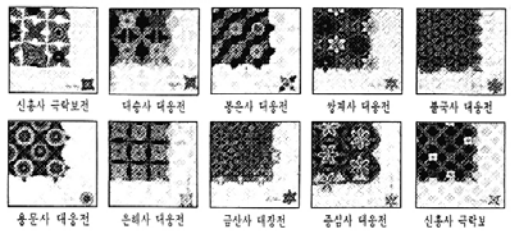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여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가격:₩35,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신흥사 극락보전 대흥사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용문사 대웅전 은해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중심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협의하여 드립니다

108진주 팔찌

신상품



천연 진주를 이용하여
만든 팔찌 제품 특성상
고품위를 더하기 위하여 양쪽 끝은
칼라색상의 돌로 마무리 하였다. 손목의 크기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하였다.

•108 진주 팔찌(세트- 진주 104개 칼라스톤 4개)
가격 : 40,000

•108 진주 팔찌 (낱개 - 진주 52개 칼라스톤 2개)
가격 : 22,000

법성게 걸망



법성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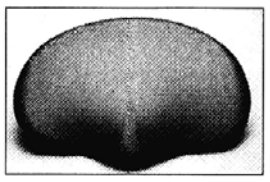
- 크기 500×460(mm)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가 8월 6일부터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불자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부담 없는 가격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에서 만나십시오.
아울러 고객 여러분들의 보다 쉽고 빠른 접속을 위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인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로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 서비스, 고객중심 매장 서비스 및
저렴한 가격의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참선 명상 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억착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의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브론즈 코팅형 개금형 골동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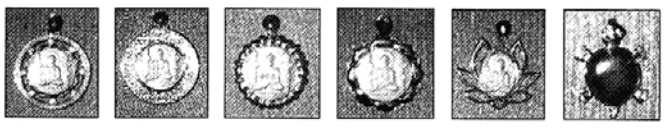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4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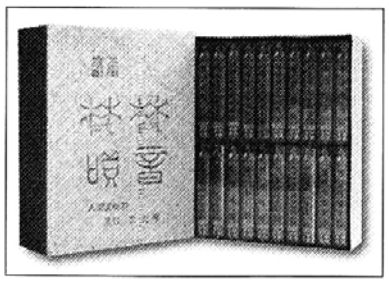
- 가격 : ₩350,000(코팅형,골동품형)
₩580,000(개금형)

상진주 호신 메달

상진주(像進珠) 란?
조개속에 미리 새겨진 핵을 삽입하여 수년간 양식 과정을 거쳐 그 상(像)대로 형성 되어진 진주입니다. 상(像)은 인위적인 가공없이 자연 색상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성공율 30%로 희소가치가 큰 보석입니다.


상품명 법륜 호신불메달 / 중급가 ₩241,200 / 재 질 금18k 약2.2돈 상진주
상품명 인다라 호신불메달 / 중급가 ₩269,200 / 재 질 금18k 약2.6돈 상진주
상품명 디라니 호신불메달 / 중급가 ₩159,600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상품명 12연기 호신불메달 / 중급가 ₩199,800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상품명 연꽃 호신불메달 / 중급가 ₩159,600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상품명 개복 호신불메달 / 중급가 ₩124,600 / 재 질 금18k 약0.9돈 상진주

문구암스님 법음 · 법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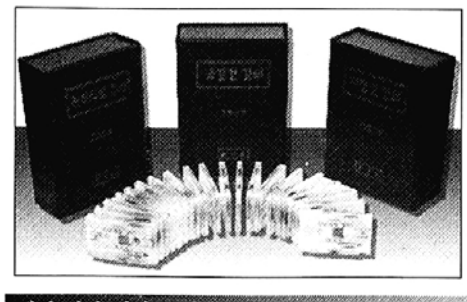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심신이운 3.신장청 · 소증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 II 8.대령 · 관욕의식 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 I 11.영산작법 II 12.영산작법 III 13.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명전점안 20.종성 · 천수작법 · 요잡

- 가격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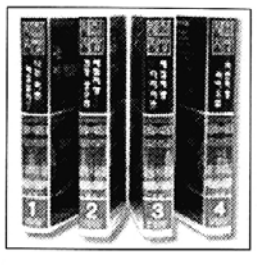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환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인가?
· 체질이란 무엇인기?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범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 과일,해물,차등
· 건강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한강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 가격 : ₩70,000(가방포함)

달마도 순금판 액자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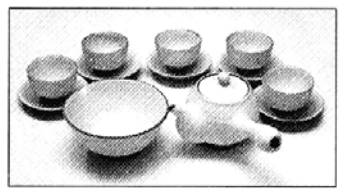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증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키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물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66 호

- 가격:₩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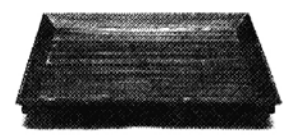
고산다기



고산 이규탁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신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산의 심임대손인 고취정신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리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실신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붙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 가격:₩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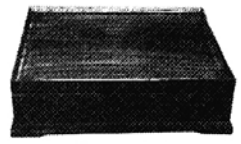
찻상



- 크기 52×38×8(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찻상 정원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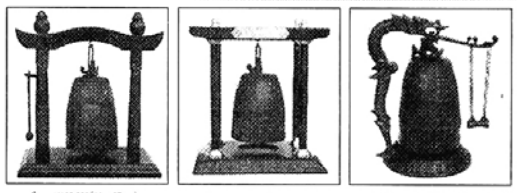
다기함



- 크기 50×39×15(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다기 보관함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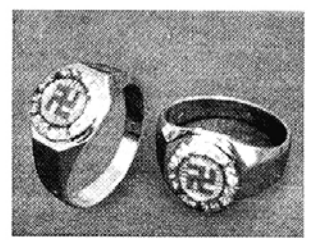
- 가격 : ₩126,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대 ₩63,000(11×25cm) 중 ₩47,000(8×16cm) 소 ₩31,000(6×13cm)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59,000(9×13cm)
대 ₩37,000(11.5×18.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신라의 미 하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측정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봉덕사 신덕대왕신종 은 구경(口徑) 2.227mm, 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音筒高)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동양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의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반야 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육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斬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삼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환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지발 쑥 환이 좋은 37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 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정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지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지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드 특신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달이지도 않고 분쇄후 풀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로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밥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홈희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아이디어 건강 칫솔 (어린이 선물용)

신상품


벽깊이
모래시계(3분용)

치약을 내장 시킬수 있는 칫솔로써 칫솔과 치약이 분리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치약을 떨어 뜨리거나, 과다사용)을 말끔히 해소시킨 아이디어 상품

제품의 특징
1 미국 듀폰 타이넥스사의 부드러운 양질의 모를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보호
2.치약 1회 주입으로 12~15회 사용
3.치약 떨어 뜨림, 과다사용 방지
4.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양치 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줌

사용방법
· 피스톤을 분리 후 칫솔 몸통을 쥐고 치약을 꾀 넣습니다.
· 필요에 따라 적정양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격:₩3,900

어린이 선물용으로 다량 주문시 협의해 드립니다.

실용신안 제18263호 / 의장 제16339호 / 상표 제28424호

법회안내

동산청년회 초청법회



혜경스님(무설정사 주지) 19일 오후 7시 동산불교청년회 초청법회. (02)732-1206

정토불교대 특별법회



암도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19일 오전 10시 정토불교대학 특별법회. (052)258-9944

대념처경 특강



성열스님(강남포교원 원장)매주 월요일 오후 2시, 7시 〈대념처경〉·위빠사나 법회. (02)539-2631

만혜교육관 교리강좌



보각스님(소쩍새마을 원장) 4일, 11일 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 만해교육원 교리강좌법회. (02)730-9108

8월 다보법회 특강



이봉춘교수(동국대 불교) 4일 오후2시 대한불교진흥원 8월 다보법회. (02)703-0108

삼보회 '불교와 인간' 강좌



최봉수교수(동국대 불교)15일, 22일 오전 10시 대한불교 삼보회 여름불교대학 '불교와 인간' 주제 강좌. (02)913-2859

우곡선원 '육조단경' 강설



장명화법사 7월~9월 25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 우곡선원 〈육조단경〉 강설법회. (02)529-5027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8월6일 (금)

■ **오대산서 파라미타 연합캠프**=제4회 파라미타 연합캠프가 9일까지 강원도 오대산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열린다. (02)723-6165

■ **전국 초중고교 교사연수회**=한국불교연구원은 8일까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제19회 전국 초중고교 교사불교연수회를 연다. (02)3411-6169

■ **선재 어린이 전래놀이·여름절살이**=제4회 선재 어린이 전래놀이·여름절살이가 8일까지 설악산 신흥사에서 열린다. (02)433-1506

8월7일 (토)

■ **서불청 정진법회**=서울불교청년회는 오후 6시 30분 서울 우면산 대성사에서 더위를 잊고 신심을 기르는 8월 정진법회를 갖는다. (02)730-9108

■ **쌍계사 제3차 수련회**=쌍계사 제3차 수련회가 8일까지 1박2일간 열린다. (0595)883-1901

■ **보리암·칠불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7시 남해 보리암과 이락사, 지리산 칠불사로 참배법회를 떠난다. (02)2279-1191



◇사찰참배기행에 동참해 법문도 듣고, 신심도 증장시키자.

8월8일 (일)

■ **맑고향기롭게 우리꽃나누기**=맑고향기롭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길상사, 도선사, 조계사, 봉은사와 대구 동화사, 용두골 등지서 우리꽃나누기 행사를 전개한다. (02)741-4697

8월10일 (화)

■ **청교련인천지부 어촌체험 봉사활동**=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는 14일까지 4박5일간 인천 중구 선재도에서 어촌체험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032)583-1318

■ **학교부적응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한국제이티에스 청소년사업부는 13일까지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학교부적응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을 실시한다. (02)587-8995

8월12일 (목)

■ **한국불교연구원 제26회 연수과정**=한국불교연구원은 15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제26회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정병조박사가 〈수심결〉을 주제로 지도한다. (02)3411-6169

8월13일 (금)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상원사. 5대 적멸보궁중 하나.

■ **강원도 적멸보궁 참배**=우리문화기행은 15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평창 상원사, 영월 법흥사, 태백 정암사 등의 적멸보궁으로 참배를 떠난다. 영월, 동강과 청령포도 둘러본다. (051)466-4080

8월14일 (토)

■ **남해 보리암 참배**=답사여행의길잡이 터사랑은 15일까지 남해 보리암으로 참배를 떠난다. 미조항, 관음포 등 남해의 아름다운 경관도 감상한다. (02)725-1284

8월15일 (일)

■ **관촉사·고란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30분 미륵도량 관촉사와 약수물로 유명할 고란사로 참배를 떠난다. (02)2279-1191

게 시 판

알림

▲**무료법률상담**=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13일까지 복지관 6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02)989-4215

▲**무료한방진료**=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7시 30분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한다. (0443)652-0900

강좌

▲**장애인 무료 한글교실**=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학령기에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글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4세~40세 (02)989-4215

▲**꽃방창업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꽃방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지도하는 꽃방창업교실을 운영한다. (02)571-2988

▲**미용자격증반**=신도림복지관에서는 매주 월, 수, 금, 토요일 오전 10시 미용자격증(연구반) 교실을 진행한다. (02)2631-9792

▲**생활도예반**=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3시 생활도예반 강좌를 연다. (051)265-9471

▲**생활역학강좌**=대원불교문화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생활역학강좌를 연다. 3개월 과정에 6만원. (02)773-9171

모집

▲**방충망 서비스 후원품**=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어르신 무료방충망 설치를 위한 후원품을 모집한다. 방충망과 쫄대, 기타 공구용품 등. (02)2203-3677

▲**어르신 성신잔치 후원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1회 실시하는 어르신 생신잔치를 후원해 줄 후원자를 기다린다. (0342)716-4215

▲**은평주간보호소 이용어르신**=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은평주간보호소를 이용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만 60세 이상 경증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다. (02)385-1351

▲**복지관 자원봉사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요리, 조리, 아동인솔, 전산입력, 자료수집 등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17-8052

▲**능인선원 합창단**=능인선원 능인합창단은 남녀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관심있고 소질있는 불자 누구나 가능하다. (0346)553-3917 조등정각

▲**중증장애인목욕서비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혼자서 목욕하기 힘든 중증장애인 목욕서비스에 동참할 봉사자를 기다린다. 차량지원자도 모집한다. (0443)652-0900

▲**아동도서 및 컴퓨터**=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도서 및 컴퓨터 후원자를 모집한다. 초등학생용 도서 및 도서상품권, 486컴퓨터. (02)2282-1102

▲**영어·일어 번역봉사**=능인불교연구소에서는 지광스님 법문을 영어와 일어로 번역하는데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02)3461-4077

▲**어르신 정기 후원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1만원이상 후원해줄 후원자를 찾는다. (02)852-0525

답사

▲**살아있는 백제를 찾아서**=답사여행의길잡이 터사랑은 6일 오전 7시30분 살아있는 백제를 찾아서 답사기행을 떠난다. 정림사터, 부소산성, 궁남지, 농산리고분, 부여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본다. (02)725-1284

부음

▲재단법인 대각회 이태석 사무국장이 7월 27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종단소식

조계종

은해사 일요일 가족법회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1일 일요가족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족법회는 가족과 함께 기도와 교리공부, 수련캠프 체험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은해사 일요가족법회는 가족과 함께 법회도 보고 천년고찰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도 관람하는 등 불자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0563)335~3318.

동화사 신도회 정진법회

대구 동화사신도회(회장 유상종)는 7월 24일 6백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초발심회복을 위한 정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신도들은 초발심을 회복하고 불교발전을 서원하며 참선실수와 잠선정진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태고종

경남 동불회 수련회

경남교구 종무원 산하 동방불교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방불교대학동문법우회(회장 호정스님)는 13·14일 양일간 승주 선암사에서 여름불교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지역포교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수련회에는 등불회 소속 14개 사찰 불자 2백여명이 동참한다.

로타리회장 능화스님



인천 구양사 주지 능화스님 〈사진〉이 국제로타리 3690지구 서인천로타리클럽 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선출됐다.

천태종

경제회복기원 사경불사

총무원(원장 운덕)은 20일부터 22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도용종정스님을 증명법사로 국가경제회복 법화경 사경불사 영산불공을 봉행한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동참비 5만원. (0444)423-7100-8

일붕선교종

경남교구 종무원 개원

경남교구 종무원(원장 현각)이 7월 28일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경남포교원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청송 총무원장, 동령 종회의장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0551)271-0150

총지종

종단홍보 다큐 제작

통리원(원장 총지화)과 법장원(원장 효강)은 밀교역사와 교리를 더듬어보는 종단 홍보물 특집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밀교의 역사 총지종 역사 종조탐구 창종과정과 성장과정 밀교수행법 종단의 주요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제작은 불교TV.

총화종

23~24일 중앙연수교육



총무원(원장 남정)은 7월 23~24일 총본산 수진사에서 종정 동광스님 교육원장 화담스님 포교원장 청해스님 등 종도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7회 중앙연수교육〈사진〉을 개최했다. 종정스님의 법어에 이어 등국대 목정배교수의 특강, 남정스님의 〈반야심경〉 강설, 부종정스님의 범음범패 특강, 현오스님의 한방교육, 전통불교의식 등의 교육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불교 기초교리 강좌

총본산 수진사(주지 남정)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전 불교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기초교리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지오스님(수진사 총무). 점심공양은 무료제공하며 수강료 2만원. (0346)591-7710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신제품
걸망 CHUN HWA
◆ 특허청 ◆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ㅎ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44cm 세로 48cm
小 가로 40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은행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울·경기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농 협	061-17-001230	(주)천화무역	
우체국	013805-0068619		

※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불자들의 모임
공급처: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학제의 신간
해서 명리진평

혜서 신명리진평은 자평서(子平書), 적천수(適天殊), 궁통보감(窮通寶鑑), 명리정종(命理正宗), 잡론구결(雜論口訣), 추명가(推命歌)등 고서(古書) 전부를 하나로 묶어 알기쉽게 완성시켰습니다.

▸▸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책을 출간하기 위해 필자는 오랜 연구노력끝에 5년간에 걸쳐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의 역학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우리말 21C 최신판 대운만세력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여는 사람은 세월(철)을 알고 행해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쓰기와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4×6배판/ 값 15,000원 신국판/ 값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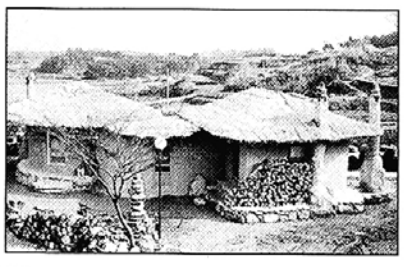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25,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大)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징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징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윤무병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윤무병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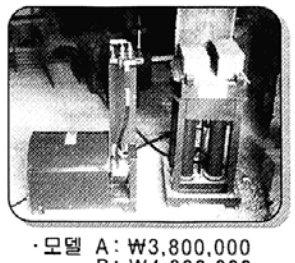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출판사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강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동서화합 불교운동 대구경북본부 창립

조계종 5개 본사 참여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권을 각성시키고 화합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계종 대구·경북지역 5개 교구본사가 나섰다.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고운사 불국사가 참여하는 동서화합불교운동 대구·경북본부는 3일 대구불교방송 7층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합본부는 은해사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대구·경북의 사찰과 신도, 불교단체가 연합하여 오는 10월 17일 대구·경북지역의 불교인과 호남지역의 불교인이 함께동참하는 대규모 창립법회를 갖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31사단 군법당 기공

60평규모 10월 완공



광주·전남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제 31사단 군법당 신축발원법회및 기공식이 7월 27일 광주 일곡동 군법당 신축부지에서 열렸다.〈사진〉

법회에서 군법당추진위원장 천운스님은 "광주·전남지역 장병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게하기 위해 군법당을 건립하게 됐다"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31사단 군법당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당 60평 요사채 40평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완공하게 된다.

이날행사에는 천운(향림사 조실) 현지(송광사 주지) 광민(무각사 주지) 동환(태고종 광주종무원장) 월인(법륜사 주지)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이춘범 광주광역시의회의장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미륵사 복원 발원 법회

익산 관음사 청년회

익산시 관음사 불교청년회(회장 최형수)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금마 익성수련원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수련회에서 청년회원 1백50여명은 미륵사지 복원을 염원하는 한마음법회를 개최하고, 미륵산과 미륵사지에 안내표찰을 부착하고 환경정화활동과 체육행사 등을 가졌다. 김원우 기자

동해안에 부는 신행바람

강릉 20여단체 연합회 준비…"사회봉사 강화"

동해 불교회관 건립…교사·기사 불자회 추진

동해안을 축으로 하는 영동지역에 불교바람이 불고 있다.

양양 속초를 아우르는 강릉불교계가 최근 신도단체 연합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고 동해시에서는 교사·운전직등 직장·직능불자회가 결속을 꾀하고 있으며 유치원등이 들어서는 복합불교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영동지역 불자 5천7백여명이 자발적으로 뭉쳐 동해시에 설립한 원화불자새마을금고(이사장 최수철)는 165억원의 수탁고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에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강릉불교신행단체연합회 준비위는 14일 오후 3시 강릉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강원불교대 강릉지역 동문회, 보리방송모니터회 강릉지부, 아산재단 강릉병원 불교동아리 회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연합회 결성을 논의한다.

이날 사회봉사와 사회참여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불교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매월 1회 연합법회를 열어 연말까지 20여개 단체의 통합을 이룬다는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2개 신도회와 4개 신행단체가 속해있는 동해불교신도연합회(회장 전영규)는 연말까지 교사불자연합회와 운전기사불자회 등 전문직 불자모임을 창립해 조직을 확대하고 불교유치원이 들어서는 불교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동해불교신도련은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4천만원의 기금으로 동해시 청곡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매월 정기법회와 큰스님초청 강연회를 열고 있다. 또 봉사대를 조직하여 사찰주변환경정화에 나서는 한편 방학중에는 학생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삼척과 동해에 환경경비초소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오염불투기 방지 캠페인과 환경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원불교대 강릉동문회 황희제회장은 "영동지역의 불교세가 타지역에 비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화와 단합으로 불교발전을 이룩하겠다"며 "최근 영동지역 불교계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하와이 대원사는 11년간 끌어온 법정소송 승소로 한인문화원 건축을 재개한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됐던 한인문화원 전경.

하와이 대원사 '11년 송사' 승소

법원, 주민고소 기각…한인문화원 건립 재개

11년간 지역주민들과 사찰건립 문제로 법정소송을 해온 하와이 대원사(주지 도현)가 7월 11일 하와이주 순회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14년전 대원사가 건립되면서 주민들과의 분쟁이 시작돼 급기야 11년전 법정송사로 이어지며 건축이 중단된 한인문화원등이 시당국과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됐다.

하와이주 순회법원 밀크스관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관결에서 6명의 배심원들은 "대원사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담장 훼손과 사찰의 경내소음, 법정허용치 9피트를 초과한 문화원지붕으로 인해 1백16만달어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불충분 하다"며 주민들의 고소를 기각시켰다.

주지 도현스님은 "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도위반부분을 헐지 않고 문화원이 완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용호 가정봉사교육원

1기생 94명 배출

부산 용호복지관 부설 용호가정봉사원 교육원(원장 혜총)에서는 7월 22일 복지관 강당에서 제1기 가정봉사과정 가정봉사원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배출된 94명의 가정봉사원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세대등에 파견되어 가정봉사 활동을 펼치게 되며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 점수저축제도에 따라 노후 복지히택를 받게 된다.

이자리에서 원장 혜총스님은 "질적으로 향상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용호가정봉사원 교육원은 매월 한차례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동화사 발전기획단 발족

복지·포교·종무행정·장학 등 쇄신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가 8월중으로 전문자문위원과 지역 승·재가 원로로 구성되는 동화사발전기획단을 결성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놓는다.

문화 복지 법률 환경등 분야별로 1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 자문위원들은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일반인들의 신심고취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21세기 불교대중화에 걸맞는 교구운영이나 종무행정의 틀을 구축하고 구별신도회 조직, 장학재단 설립등을 모색하게 된다. 또 상임포교사제도를 운영하여 일반인들에게 효율적으로 불교를 안내하고 청소년포교 특수포교 법회관리를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화사 기획국장 지도스님은 "지난해 종단분규로 발전계획안 마련이 계속 늦춰졌다"며 "기획단의 발전안에 대해서는 사부대중의 공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전북 불교자원봉사단

노인위문·이미용 봉사

전북불교자원봉사단은 6월 30일 창립이후 첫행사로 31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펼쳐진 제 6회 완산골 연꽃 예술제에 참가하여 이·미용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와함께 노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위문행사와 점심공양을 대접했다.

전북불교자원봉사단은 금산사를 주축으로 각 시군에 10~30명 단위로 구성된 36개 지단이 있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전서' 인터넷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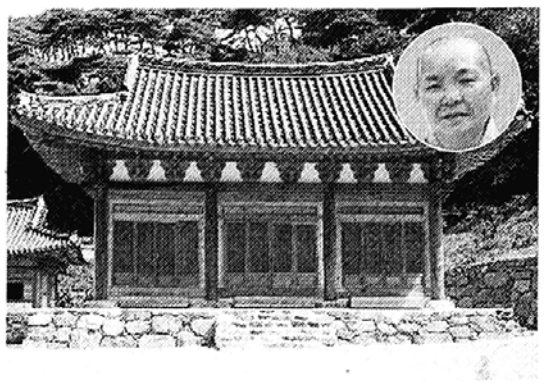
동국대 불전硏 시연

〈한국불교전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스님)는 7월27일 동국대에서 전자불전연구소의 홈페이지(http//ebti.dongguk.ac.kr)의 한국불교전서 검색코너 시연회를 개최하고 사업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코드편집기와 검색엔진 등을 자체 개발한 연구소는 현재 시범으로 〈한국불교전서〉 4책의 일부인 보조전서와 대각국사 문집을 전산화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불교전적 전산화를 위해 97년 12월 설립된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불교자료 종합전산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2월 동국역경원 불교문화연구원 정각원 도서관 등과 함께 불교자료전산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사업으로 이달부터 한국불교전서 1책과 4책을 모두 전산화하고, 앞으로 1년에 2책씩 전산화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국불교전자도서관 멀티미디어사이버법당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오는 10월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을 주제로 국내 최초의 전자불전 학술회의도 개최한다. 강지연 기자

우리절 불사 화엄사 금정암



◇91년 화재로 전소된 금정암 대웅전 복원불사가 착공 9년만인 올 10월 회향된다. 원안은 주지 각심스님

화재로 잃은 대웅전 복원

착공 9년만에 10월 낙성 원통전·요사채도 건립

구례 화엄사 금정암(주지 각심)에서는 5백년 역사를 담아내는 불사가 고즈넉히 진행중이다. 불사의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란함은 찾아 볼 수 없다. 산세만큼 넉넉하게 진행되어온 불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심스님이 요란한 불사를 꺼리는 까닭이기도 하다.

1562년(조선 명종 17년)에 화엄사에서 선교를 강설하던 설응스님에 의해 창건된 금정암은 91년 화재로 본당이 전소되었다. 화재이후 각심스님과 혜광스님은 복원불사를 발원하고 91년 땅정리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불사가 9년째 접어들어 올해 10월 10일이면 낙성식을 갖는다.

본사인 화엄사의 부처님 사리탑이 바라보여 자연스레 친견, 참배할 수 있는 이곳에 마침내 심검당, 적묵당, 원통전이 복원된 것이다. 요사채인 심검당과 적묵당은 35평, 15평 규모로 일반불자들에게도 개방돼 공부하고 쉬어 갈 수 있도록 제공된다. 또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지는 25평의 원통전은 기도와 정진의 터전이 될 것이다.

각심주지스님과 함께 금정암불사를 추진중인 혜광스님은 더디게 진행되는 사찰불사가 안타까워 조속한 불사회향을 위한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그전부터 일과처럼 해오던 기도지만 천일 기한을 잡고 시작한 것은 오로지 불사에만 마음을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두문불출 기도에만 매달리면서 원통전과 요사채가 착공되고 그전보다 수월하게 불사가 진행됐다.

혜광스님은 "어렵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불사를 해왔다"며 "사탑이 가면 그림자가 따르듯이 굳은 원을 세우면 불사는 저절로 성사된다"고 강조했다. 길고 긴 불사기간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면서 오히려 신심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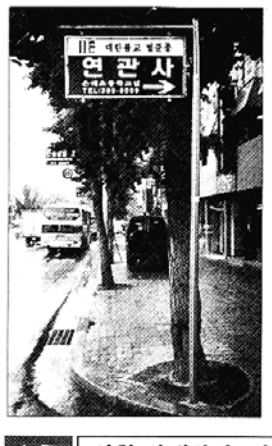
새롭게 지어진 당우들의 자태가 암자에 살고 있는 스님과 닮아 말쑥하고 단아하다. 10월 회향을 앞둔 금정암은 지리산 자락, 산세를 타고 내리며 어루어져 참배객들을 반긴다.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수입콩, 농약콩으로부터 탈출선언
우리 콩으로 콩나물, 두부, 청국장을 만들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지 않으세요? 귀찮지 않느냐구요? 아닙니다. 시장가는 것보다도 간편합니다.
⊙두부틀 겸용 콩나물(새싹) 재배기
(실용신안 111965-113676호) - 자화 흡수식

재배기 하나로 두부도 만들고 콩나물도 기르고
콩나물 1. 중간에 물을 줄 필요 없음. 2. 한번 안치고 3~5일 기다리면 재배끝!
두부 1. 가정용 믹서기 활용 2. 2모, 4모, 6모 원하는 대로 3. 두부틀, 자루, 보자기, 간수빅모불
가격: 38,000(재배기+두부틀)
⊙두토 청국장 발효기(발명특허원 15826호)
(청국장, 식혜, 요구르트 발효)

◆청국장 : 콩 삶아 두토에 넣고 2일이면 청국장 끝. (여름에도 아주 잘됩니다.)
◆요구르트 : (우유+씨요구르트) 두토에 넣으면 9시간 후 떠먹는 요구르트 완성
◆식 혜 : 설명서 참고하세요.
가격: 97,000
⊙토종콩나물 콩(오리알태)과 무씨앗 엄가공급
〈전화신청하시면 5일이내 배달〉
대리점 모집 · 1단계 - 사용하여 본 후 확신을 가지신 분 · 2단계 - 무점포 소자본 창업가능(약 70만원)
TEL.(0331)293-2280,5943 FAX.293-5944
우리콩 운동본부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 규격
- 종로구 80cm × 40cm
- 그외 지역 110cm × 55cm
- 개인소유지 : 제한없음
■ 재질 스텐레스
■ 허가 대행 및 A/S
취급 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혁판, 건주용 간판, 게시판, 연등전기배선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 지방출장 가능
신성기획 TEL: 02)3141-3789 02)332-3786 H.P: 016)336-3786

수 맥 탐 사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수맥을 피해 잠을 자십시오.
아래의 경우에는 수맥파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 증상입니다.
1. 장기간 수행으로 인하여 관절염, 근육통, 요통, 우울증, 탈진 상태로 심히 고생하시는 수행자.
2. 잠을 자고 나도 피로 회복이 안되고 몸이 무겁고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흥몽을 자주 꾼다.)
3. 우울증이 생기며 대인 공포증이 생길 때.
4. 질병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 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
5. 노력해도 수업능률이 오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해지며 정신집중을 못하고 쉬 피로를 느끼며 신경질 적인 학생에게.
6. 오십견, 관절염, 신경통, 편두통, 요통등 증세가 생길 때.
수맥을 정확하게 탐사하여 수맥 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수맥을 진단하여 수맥 파 차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2. 수맥 파를 차단하고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드립니다.
3. 수맥 파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원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금강수맥원
송파구 거여1동 135-67(201호)
(02)400-6190
017)332-5019, 011)711-619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 大후,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성보도난방지 묘책 찾자

조계종 '백서' 발간…불교유산보존硏 설립키로
'비지정문화재 절도 처벌강화' 등 법개정 요구

한해 평균 28건의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찰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국보의 56.1%, 보물의 65.3%, 지정문화재의 50.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재중 성보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사찰문화재 도난건수는 전체문화재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4년 이후 올 6월까지 도난당한 성보문화재 316건 가운데 되찾은 성보는 불과 20건에 불과, 사찰문화재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이 최근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이하 백서)에서 분석된 것으로 지난 8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5년동안 전국 사찰에서 도난당한 성보는 총 316건 453점으로 집계됐다〈관련기사 11면〉. 도난 문화재에 대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취지로 발간된 이 백서에는 도난성보에 대한 사진과 도난경위 등 상세한 정보가 수록, 도난품 회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난백서에 따르면 불교회화가 186건 275폭으로 가장 많으며, 불교조각이 61건 109구, 탑파가 18건, 기타 51건으로 이중에는 보물, 시도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재도 24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11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전남 60건, 경남 36건, 전북 34건, 충남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본사별로는 금산사(17교구 본사) 31건, 직지사(8교구 본사) 30건, 고운사(16교구 본사) 26건, 동화사(9교구 본사) 21건 등의 순이며, 신흥사(3교구 본사)와 관음사(23교구 본사) 등은 도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성보문화재 도난 건수는 91년 48건을 최고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올 상반기 들어서 12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들어 다시 사찰문화재가 도난 위험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은 백서발간과 함께 성보문화재에 대한 국가 및 시도지정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비지정문화재 절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검·경찰청 및 문화재 관련부처에 백서를 배포하고 더 이상의 도난을 막기위한 '(가칭)불교문화유산 보존연구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또 △안전관제 시스템 도입 △성보박물관 확충 △성보보존위원회 활성화 및 관련 종법 개정 △성보문화재에 대한 연구 및 편찬사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백흥암 탱화 밀거래 교수등 3명 붙잡아

10여년전 도난당한 은해사 백흥암 감로왕도 탱화를 밀거래한 지역 고미술품 협회 간부와 대학교수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부산 D화랑 주인 이모씨(60·고미술품 협회 간부·부산시 초읍동)와 조도씨(49·부산시 대청동) B모 교수(43·K대 건축학과)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알선 혐의로 긴급 불구속 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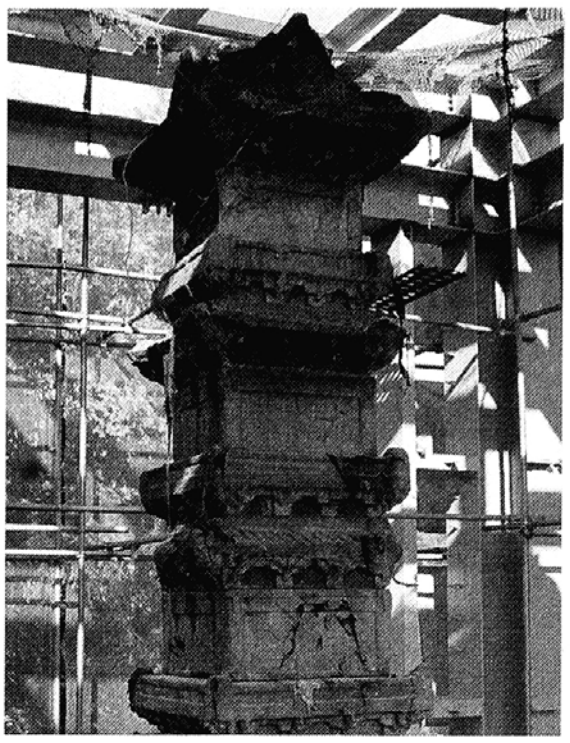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5월 서울 서초동에서 B교수에게 은해사 백흥암 탱화 감로왕도를 3천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은해사 백흥암 감로왕도는 조선 영조 38년(1762년) 제작된 것으로 87년 8월 도난당했다.

'조계사 공금횡령' 합동조사 이뤄질듯

조계사 부주지 지홍스님은 30일 前총무 선광스님이 7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선광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중운영과 각종 불사는 모두 총무원과 종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왔으며, 한 점 의혹의 여지도 없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당당하게 응할 것이지만, 이에 앞서 양측(전·현 재산관리인)이 공동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사 부주지 지홍스님은 선광스님의 제안을 수용한다며 5일부터 9월 5일까지 합동조사를 벌이자고 밝혔다. 지홍스님은 합동조사는 조계사 회의실에서 하며, 참여자는 종회의원 2명, 총무원 집행부 2명, 전·현직 재산관리인, 총무, 재무, 경리책임자, 양측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신도회장, 관음회장, 대승불자회장, 반야회장, 청년회장, 기자 등이며 소요경비는 조계사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검게 그을린 국보 원각사지 석탑 국보 2호인 서울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10층석탑에 불이 붙어 상단이 검게 그을리는 등 훼손됐다. 원각사지석탑은 보호용 유리벽을 설치중인데 7월27일 이 공사를 벌이던 중 탑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싼 천에 용접용 불꽃이 옮아붙어 불이 일어났다. 관리사무소측이 자체 소화기를 동원 10여분만에 진화했다고는 하나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과 비례미로 탑중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히는 국보 원각사지 석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사진제공=경향신문〉



◇한국대학생불자들의 유일한 대중대회인 한국불교 1600년 여름대회가 5백여명의 청년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7천만 겨레 하나되는 통일세상"
대불련, 18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 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한승희, 이하 대불련)는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동국대학술문화회관에서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법등 종회의장 등 종단 관계자들과 5백여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제18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하나에서 칠천만으로 이어가는 통일세상! 청년불자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대불련 조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대불련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9일 입재식에서 한승희 회장은 "불교사랑과 조국사랑, 법우사랑의 참 의미를 일깨우고, 대불련과 불교의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남과 북이 하나되고 나와 칠천만 겨레가 하나되는 통일세상을 만드는 청년역군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제18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는 오리엔테이션, 통일만들기 공동체 한마당, 통일강연 및 비디오 상영, 통일전망대 및 임진각 답사, 포교대회 선포식 및 실천대회, 대불련 가요제 및 대동제, 자자포살 등으로 진행되고 2일 회향됐다. 도필선 기자

사찰환경 수호 서명운동 전개
범불교대책위 결성…전사법 개정 입법화 추진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공동대표 보광, 여연, 성조)는 7월 28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대책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전사법 개정을 위한 천만불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관련 인터뷰 4면〉.

이날 결성식에서 고산스님은 "민족의 문화유산인 사찰의 주변환경이 침해되고 훼손되는 일이 부쩍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찰환경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불교대책위는 앞으로 △중앙종회 결의문 채택 △민간환경단체와 연대 성명서 채택 △분쟁사찰순례 및 결의대회 개최 △환경친화사찰 만들기 공청회 △국회에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법안 상정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국회 대체법안 입법화는 지난 2월 8일 환경규제를 담고있는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되면서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의 남용으로 사찰환경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2항에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담아 입법화 시키겠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원우 기자

민영교도소 설립 '가시화'
조계종 "교정시설 선교수단화 우려"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7월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은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관련법 제정과 관련, 법무부 내부의 필요보다는 한기총의 로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교정시설의 선교수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 설립에 앞서 교정프로그램의 민간위탁 확대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5월 서울 서초동에서 B교수에게 은해사 백흥암 탱화 감로왕도를 3천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은해사 백흥암 감로왕도는 조선 영조 38년(1762년) 제작된 것으로 87년 8월 도난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5월 서울 서초동에서 B교수에게 은해사 백흥암 탱화 감로왕도를 3천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은해사 백흥암 감로왕도는 조선 영조 38년(1762년) 제작된 것으로 87년 8월 도난당했다.

법률안은 △수용자의 수용관리·교정교화·직업교육·교도작업 등 교정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가능 △위탁 계약기간은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내, 기타의 경우는 1~5년 △위탁업무 부적합시 계약 해지 가능 △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교정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국가는 교정법인에게 매년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원칙적으로 교정법인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당해 교정법인이 자율적으로 임면 △법무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공무원 파견해 업무 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8월까지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뉴스 & 뉴스

생명운동 작은대학 개강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10일부터 20일까지 생명운동 작은대학을 개강한다. 불교환경교육원의 전문환경교육프로그램은 10일부터 15일까지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깨달음의 장이 진행되고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동안 서울 길동 두산연수원에서 생명대학이 열린다. 주요프로그램은 '밀레니엄시대 새로운가치와 생명운동' '환경윤리와 생태적 가치' '생명운동의 철학과 이념' '생태주의와 사회운동'. 김원우 기자

복지관 편파 위탁 사과

경기도 안산시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불교계를 제외시킨 것과 관련 안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허, 천수사 주지)에 공식 사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본지 230호 2면 기사 참조〉

박성규 안산시장은 지난 7월12일 시내 한 식당에서 안산시불교연합회장 지허스님, '종교편향성 시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장' 능혜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는 종교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정을 펴나가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재경 기자

20일 '도농공동체' 토론회

불교 도농공동체운동본부추진위원회(위원장 원혜, 이하 추진위)가 9월 11일 창립을 앞두고 자료집 발간 및 지역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7월 26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도농공동체 운동이 대중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오는 2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연기적 세계관으로 본 도농공동체 운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8월 중순부터 창립전까지 한달간 일정으로 호남·영남 등 6개 지역에서 지역간담회를 갖는 한편 이달말까지 자료집을 낼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김 소장' 공정재판 요구

전 육군 101여단장 김태복 소장에 대한 고등군사법원 7월 23일 열린 1차 공판과 관련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현진·원혜)는 7월 24일 "군검찰이 2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 편향적 논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군 검찰과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안호)도 27일 "군부는 불교탄압 작전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군부대 인분사건, 김태복 장군 사건 등은 군부의 지휘 및 방조하에 자행되었다"며 국방부와 정부의 군부대내 종교 차별적 부당한 대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경·도필선 기자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 (16주)	◇불교경전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불교상용 의식	◇유식사상
	2학기 (12주)	◇화엄사상 ◇구사론(아비달마)	◇중국불교의 이해 ◇불교상용의식 실습	◇비교종교
2학년	1학기 (18주)	◇부파불교의 이해 ◇대승기신론	◇밀교학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반야사상
	2학기 (12주)	◇한국불교의 이해 ◇선사상	◇대승불교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천태사상

3. 교수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전통식품지정업체

0598-945-0075~7

심부농신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새로운차, 꼭 드셔야 할 차
귀한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황토삼백초

황토삼백초와 함께 몸도, 마음도 맑아진다.
- 황토삼백초차,신농차-



신비의 황토삼백초

신비의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예로부터 본초강목, 중약대사전, 동의보감 등에 놀라운 효능이 전해 왔지만 희귀식물로 특정지역에서만 자생되어 일반인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소중한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이제 손쉽게 만나 실 수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삼부농산 김봉서 선생이 거창의 청정지역 황토에서 무농약, 유기농으로 대량재배·가능식 고급차로 개발하였습니다.

몸과 정신의 기를 맑게 정화시켜주는 황토삼백초차, 신농차

- 강력한 이노작용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해독작용 • 온몸이 정화되어 면역력 증강 작용.
- 피를 맑게하고 맑은 피를 온몸에 잘 순환시켜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
- 위장기능을 튼튼히 하여 속을 편하게 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작용.



이런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 차를 자주 드시는 분 •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늘상 피곤 하시는 분
- 소화가 안되고 속이 거북하거나, 관치 않은 분
- 머리가 개운치 않고 항시 무거운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생 하시는 분 • 변비축변에 시달리시는 분 • 식수공해가 염려되시는 분 • 몸이 계속적으로 안좋으신 분

특징

- 뇌세포 증식 및 기억력 증진과 치매에 관여하는 클린과 레놀레티노이드 배당체가 들어 있습니다.
- 장기능을 활성화 해주는 천연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피를 맑게하고 막힌 혈관을 열어주어 피의 순환을 돕고, 손상된 혈관 치유에 도움을 주고, 과산화지질 조직세포 생성 억제로 항암, 노화 방지에 영향을 미치고, 해독과 이노작용에 좋은 프리본계 물질과 수용성 탄닌, 루친등의 물질등이 들어 있습니다.
- 희귀미네랄인 게르마늄과 천연아미노산인 아스파탄산, 글루타민산, 트레오닌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법

- 온가족이 일상차나 숭늉처럼 드시거나 손님접대용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 참고문헌 : 조규형 편저 "삼백초건강법"

'무설지설' 임제선풍 해동에 꽃피워

구산선문 참선기행

7월 - 동리산문



◇태안사 대웅전에서 주지 종하스님의 지도하에 참선삼매에 든 기행단.

200여년 동안, 세차게 흐르는 계곡의 물을 한결같이 지켜보고 있었을 능파각(전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을 지나 기행단이 태안사 일주문(전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에 들어선 때가 새벽 4시. 동리산문(桐裏山門)의 본산 태안사는 전남 곡성군 동리산 서쪽 능선에 자리잡은 신라 고찰이다.

동이 트기 전 집게 깔려있는 신새벽의 새파란 기운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던 태안사(주지 종하)는 아침 예불을 올리는 스님의 청정한 염불과 목탁소리에 맞춰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줄의 횡서로 '동리산 태안사' 현판이 걸린 일주문을 지나 보제루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맞은편에서 선사의 가부좌모습처럼 당당한 대웅전 지미가 희미하게 다가왔다.

동리산문을 개창한 혜철국사(785~861)는 중국 남종선의 개창조 육조 혜능의 법맥을 이은 서당 지장선사를 만나 "무설지설 무법지법(無說之說 無法之法 설하는 바 없이 설하고 법이 없는 가운데 있는 법)이 해동에 전해지면 더할 나위없이 다행이겠다"고 말하며 심인(心印)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말없이 설해지고 없는 가운데 있는 법'을 해동에서도 꽃피우기 위해 혜철국사는 중국에서 30여년간 공부하고 돌아와, 신라말기인 814년(신라 헌덕왕 6년) 이곳 태안사에 동리산문을 열고 선풍을 일으켰다. 이후 그의 법을 이었던 도선국사(827~898)와 광자대사(864~945) 등이 고려 왕건의 도움을 받아 태안사를 동리산문의 중심 도량으로 키웠다. 당시 백여개의 당우와 천여명의 스님이 있었고 송광사, 화엄사 등 전남지역 절 대부분이 태안사의 말사였다는 기록이 〈태안사적기〉에 전할 만큼 태안사의 사세는 더없이 웅장했다고 전해진다.

일주문과 보제루 사이를 잇는 오솔길 오른편에 혜철스님의 제자 광자대사의 부도와 탑비(보물 제274·275호)가 마치 스님이 현현한 양 고아한 자태를 보이고 있다. 기행단은 종각을 지나 대웅전에 들어가 삼배를 올렸다. 대웅전에는 아미타불이 봉안돼 있다.

태안사는 고려 중기에 이르러 말사였던 송광사가 수선(修禪)의 본사로 독립하고,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에 밀리고 6·25전쟁 당시 대부분의 당우가 불타는 등 동리산문의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문으로서 태안사의 선의 불꽃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선사로 이름난 청화스님이 85년부터 94년까지 10여년동안 조실로 주석하면서 제방의 선객들을 지도했으며 매년 30여명의 수좌들이 금강선원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다.

"산중에 사람이 없더니 오늘에야 돌아오도다. 나라가 보물을 얻음이라. 부처님의 지혜와 달마의 선법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는 혜철국사의 선기를 눈푸른 납자들이 면면히 이어온 것이다.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는 2백여개의 완만한 계단이 있다. 간단한 계단길이지만, 그 외길은 거침없이 정진하는 사람을 피안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는 선로(禪路)를 상징한다. 불성을 찾는 길은 외나무 다리 한 길을 가는 것처럼 무애자재하지만 와공으로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날 기행단을 안내했던 황호균(전남대박물관 학예연구원)씨는 "태안사에 와서는 천여년전 혜철스님이 이곳에서 일으킨 임제선풍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참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안사 고려초 당우 1백개 · 스님 1천여명 '대찰'

일주문서 대웅전까지 2백계단 마치 禪路인듯

청화스님 10년간 조실 주석…현재 금강선원 30여명 수행정진

태안사에서 기행단의 시선을 가장 오래도록 잡아두었던 것은 작인선사조륜청정탑(보물273호). 혜철스님의 부도인 이 탑은 경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부도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알문'이라는 작은 문을 지나야 하는데, 이 문은 너무 낮아 작은 키의 사람들조차 머리를 정중하게 굽히고 들어가야 할 정도다. 수행하는데는 물론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하심(下心)을 가르치는 문처럼 느껴진다. 경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이 혜철스님의 부도탑은 경임없이 정진하는 선객들의 경계를 살펴주고, 또 졸탁해주고 있는 듯 보인다. 부도탑 있는 언덕 자락에 금강선원이 있다. 현재 30여명의 선객들이 화두와 씨름하고 있다. 태안사 주지 종하스님은 "선객들이야말로 태안사 본래 면목을 지켜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종하스님의 지도로 대웅전에서 40여분간 참선 삼매에 든 기행단은 숙진에 찌든 자신을 돌아보고 천여년전 '말없는 말'을 설했던 혜철스님을 상기하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참구했다.

기행단은 천여년동안 선풍을 이어온 동리산문이 새롭게 중흥돼 선의 대중화를 선도하길 기원하면서 화엄사와 천은사로 발길을 옮겼다.

글=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gbo@buddhapia.com)





▲태안사 '배알문'. 누구든지 머리를 깊숙히 숙이고 드나들수 밖에 없을 정도로 키가 낮은 이 문은 '하심'을 가르치는 문이다. 이 문을 지나면 혜철국사 부도탑이 나온다.

◀혜철스님 부도탑인 '작인선사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 적절한 비례와 조형미를 갖추어 장중한 품위를 느끼게 한다.



◇기행단에게 광자대사 탑비의 이수를 설명하고 있는 황호균 학예연구원.

혜철국사는

814년 동리산문 개창

신라 원성왕 1년(785년) 경주에서 태어나 영주 부석사에서 화엄학을 익혔다. 자는 체공(體空), 혜철(惠哲)은 법명. 선불교가 전해지기 전인 814년(헌덕왕 6년)에 당나라로 가서 남종선 계통의 지장선사 문하에서 수선했다. 지장선사가 입적하자 839년(문성왕 1년)에 귀국했는데, 당시 만백성과 군왕이 그의 귀국을 반겼다는 기록이 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에 전해진다. 귀국후 태안사에 머무르면서 중생교화에 주력했으며, 문성왕이 때때로 사신을 보내어 설법과 정치의 정도를 청하기도 했다. 861년(경문왕 1년)에 입적하자 왕이 적인(寂忍)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분도로는 풍수도참설로 유명한 도선국사, 여(如)선사와 광자대사등 수백인.

화엄사

인도승 연기조사 창건

화엄사(주지 종열)는 544년(신라 진흥왕 5년) 인도승 연기조사가 창건했다. 670년 신라의 의상대사가 화엄교학을 전파한 화엄 10찰의 하나로 중창시켰다. 원융무애한 경계인 화엄세계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계가 그대로 드러난 화엄사상을 기초로 하여 지어진 사찰로 이름도 〈화엄경〉에서 따왔다. 각황전(국보 제67호),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 등이 유명하다.

천은사

지리산 3대사찰 꼽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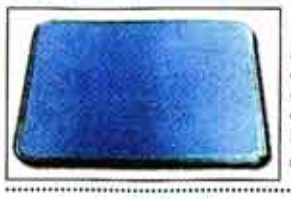
천은사(주지 종고)는 화엄·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힌다. 신라 중기인 828년(흥덕왕 3년)에 인도의 덕운스님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명산을 두루 살피던 중 지라산에 들어와 천은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그 뒤 875년(헌강왕 1년)에 신라말의 유명한 고승 도선국사(827~898)가 장흥의 가지산에서 이곳으로 와 절을 중건했다. 고려 후기 충렬왕 때에는 남장제일선원으로 지정되기도 할 만큼 번창했다.

문화재로는 극락보전(전남도유형문화재 제50호), 아미타후불탱화(보물 제924호) 등이 있다.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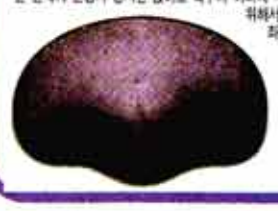
몰 부다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을 원석 그대로 가공한 석풍 건강옥 방석으로 시원한 여름을...
- 언제날림, 공정이 세균 없는 청결한 옥방석
- 세계 최초로 방충 및 항균 효과가 있는 옥방석
- 천연옥을 가공한 건강 옥침석으로 여름철 시원함(대나무 방석 대용)
- 커피, 기름, 김칫국물을 흘려도 걸레로 닦아주는 것으로 처리
- 화장 방석으로 사용가능



•크 기 44 X 44 Cm
•천 연 국내산 연옥 분말
•로 산 헬륨지
•비닥재 피크림방지
(우레탄+바이오세라믹 처리)
•가격:₩9,000

더우십니까? 참선명상 방석으로 선 삼매에 드세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근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크기 39×43(cm)
•가격:₩27,000



자비로움의 표현 붓자들 모두가 함께입는 여름 필수 부다피아 티셔츠
•재질 순면 100% (20수)
•색상 흰색
•인쇄 나염인쇄 (칼라)
•가격:₩7,000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여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뱁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물명 인쇄해 드립니다.

천진동자 부채로 더위를 날려 버린다.



앞면 뒷면
3000개 이상 주문시 단체·사물명 인쇄해 드립니다.
•가격:₩750(1개)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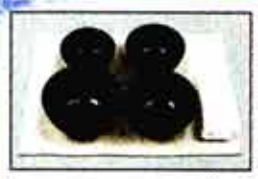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왕족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여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많이 수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 감독-황기채
상영시간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 그릇 발우



•화발우(4합) · 가 격:80,000원 무게 : 2.7Kg
•의발우(2합) · 가 격:30,000원 무게 : 1 Kg
(1합은 적기 불가능하한 발우 입니다.)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밥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팔다리(鉢多羅-patra)인데 재료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應量器)"이라 해석한다. 〈몽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질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종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27cm X 32cm
순금판크기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56 호
•가격:₩120,000

부다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mall.buddhapia.co.kr